

7년차 직장인 돈모으기 :: 돈모으기 시리즈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직장인라이프

2020/07/04 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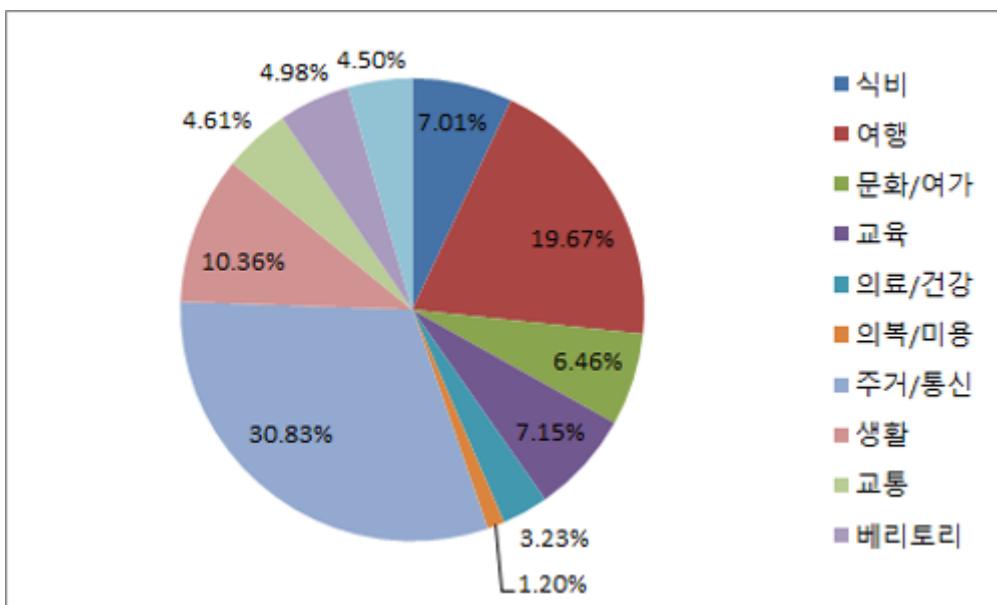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0928863>

7년차 직장인으로서
직장인 돈모으기 마무리?

6.5년을 일했으니 돈 그만 모으고 쓸래^^
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 그런건 있을 수 없다.

직장인에서 학생신분으로 곧 바뀌기 때문에
반년마다 올리는 나의 돈 모으기 시리즈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

<직전 포스팅 참고>



[7년차 직장인 돈 모으기, 미쳤다 내가 7년차래](#)

[7년차래 미쳤다...소오오오름...아직도 마음은 대학생이구여? 중딩친구들 만나면 중딩되고? 고딩친...](#)

blog.naver.com

재정 주요 이슈

기존에 이야기 했던 돈을 크게 써야할
주요이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스위스 유학)
이제는 돈 쓸일만 남았다!

내 78개월 직장생활의
돈모으기 정산 포스팅인셈
오래도 일했다ㅋ 어유 지겨워ㅋ
좀 학생됐다가 돌아올게

2020년 하반기의 주요 변화 :
지출만 개많고 이렇다 할 수입 없다

목표 달성 여부 및 자산 비중

[2020년초 세웠던 6개월 목표]
상반기 목표 저축액 : 2,790만원
월 평균 소비목표액 : 144만원

[6개월 목표 달성 체크]
상반기 저축액 : 3,890만원
월 평균 소비액 : 118만원

★달★성★경★축★

6개월간 매월 648만원 저축한걸로 계산되는데
오 월급이 그럼 얼마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매번 포스팅마다 말했듯이
업종특성상 상반기가 돈을 많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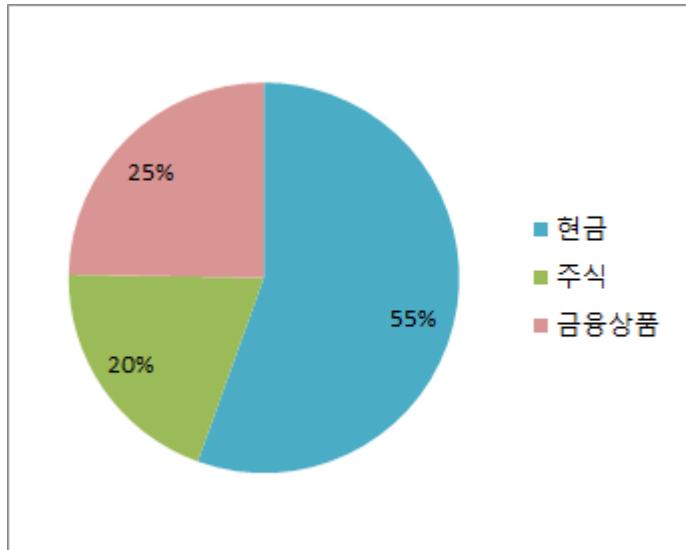
하반기는 진심 뭇도 없다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가는거는 아닙니다ㅎ)

현재 자산 비중은 현금이 만빵이다.

스위스 가서 쓸 경비 마련하느라고 현금화 했기 때문

[2020년 6월말 자산 구성]



집대출이 있었는데 유학준비하면서 집을 팔았기 때문에

대출도 전액상환해서 이제는 없다. 순자산뿐.

향후 직장인의 돈모으기(매 반기) 포스팅은

없을 예정이오니 아쉽더라도 양해해주세요

돈을 안 벌어서 쓸말이 없음

그래서..... 얼마 모았어?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 데,

해놓고 공개 중인 관종 중의 상관종 초코빵이다.

아무튼 맨 앞자리는 2이다. 3으로 못갔다.

직장 생활 전체 월 평균 300정도 모은것으로 계산되니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직장인의 돈모으기 시리즈 앞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조회수 좀 늘리게요 ㅎ ㅎ ㅎ

여태까지 쭉 보니까 3년차까지는

월평균 210만원을 모으는

수준이다가 점점 올라온것 같다.

아파트를 갑투자해놓고 가고 싶어서

정말 수많은 고민... 입장... 대출.... 알아봤지만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유학에 집중하기로 했다.

할많존 많하않이지만 마음은 편해졌다고 한다.

기회는 또 있다. 나는 짱이니깐.

의미없지만 목표설정

스위스에서 2년간(희망사항이고 더 길어질 확률 97%)

유학하면서 쓸 예산은 총 7천~8천만원정도 잡고 있다.

내가 가는 학교(공립)는 등록금이

1년 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괜찮기는 한데,

스위스 물가가 미친놈이라서요 ——

[세계 주요국가 생활비 비교표]

								Search: <input type="text"/>
Rank	City	Cost of Living Index	Rent Index	Cost of Living Plus Rent Index	Groceries Index	Restaurant Price Index	Local Purchasing Power Index	
1	Zurich, Switzerland	130.59	64.37	98.41	130.81	117.82	119.97	
2	Lugano, Switzerland	129.63	40.02	86.08	134.17	112.58	101.36	
3	Basel, Switzerland	129.53	46.39	89.12	125.46	128.93	110.13	
4	Geneva, Switzerland	124.99	66.25	96.45	123.26	116.76	108.31	
5	Lausanne, Switzerland	123.95	51.75	88.86	124.97	115.45	111.05	
6	Bern, Switzerland	115.53	41.41	79.51	105.83	107.96	125.92	
7	New York, NY, United States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	Stavanger, Norway	95.57	31.98	64.66	88.51	96.97	83.93	
9	Brooklyn, NY, United States	95.24	81.76	88.69	95.82	89.13	85.01	
10	Trondheim, Norway	95.03	33.34	65.05	90.01	90.90	84.03	
11	Oslo, Norway	94.15	39.70	67.69	87.25	93.22	86.24	
12	Bergen, Norway	92.19	30.84	62.38	83.84	92.22	93.77	
13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91.77	109.76	100.51	89.79	86.66	139.29	

출처 : numbeo

네 저는 저기 1위에 있는 스위스 취리히로 가네요
 1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등수 반납안되나요.
 숨만 쉬고 살아보겠어요... 공기의 맛 습하습하

참고로 서울은 39위이다.
 39위에 사는데 왜 1위 가겠다고 설치는 걸까
 인생에서 이런 선택은 하지마세요
 근로소득 모아서 스위스 유학가는 명청이가 바로 나야나
 근데 또 그 근로소득 또한 발로 뻥차고 스위스로
 돈팡팡쓰러 가는 명청이가 바로 나야나

물가 때문에 정말 어쩔수 없이
 독일이랑 네덜란드 등을 같이 고려했으나
 다 조금씩 마음에 안드는 것들이 있어서 제외했다.
 (이거는 유학준비 포스팅하면서 자세히 쓸 예정)

직장인의 돈 모으기 시리즈 완전 끝. 디엔드.

스위스 공립학교 ETH/EPFL 등록금 3배 인상

유학준비 힘들어

2025/01/23 17: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3734647499>

스위스 공립학교 ETH/EPFL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3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미 졸업해서 관련 없지만
그래도 정보 공유차 글을 작성한다.



[ETH Triples Fees for Foreign Students](#)

[Explore the effects of the ETH Fee increase on students at ETH Zurich and EPFL. Discover the exemptions and the opposition from students.](#)

www.swissinfo.ch

적용은 2025년 가을학기(HS2025)부터이며,
현재 학기당 730프랑(약 110만원)에서
2,190프랑(약 330만원)으로 상승한다.
재학생에게는 기존 등록금이 적용되며,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다.

일전에도 등록금 인상이 있어왔지만
아주 적은 인상이라 임팩트가 없었다.
이번에는 세배를 한꺼번에 올려버린걸 보면
뭔가 상당한 결심을 했다고 보여진다.

ETH는 최상의 인재, 재정문제 등 각종
근거를 들어대며 3배 인상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상 누구나 느끼는
이유는 바로 '중국인 유학생'이다.

(저런 이유였다면 애초에 대상이 전체 학생이었어야지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국한하면 안되는거지.)

이것은 비단 스위스만의 상황이 아니다.
현재 모든 유럽과 북미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의 유학생 유입을
어떻게든 제한해보려고 노력중이다.
그 중 중국인의 수는 정말 넘사벽이다.

수업을 들어가보면, 최악의 경우는 정말
반 이상이 중국인이며,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
이러다간 중국인을 위한 학교가 될판이다.
게다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개개인은 각자 다른면모가 있으나
집단으로 있을때는 질낮은 행태를 자주 보인다.
집단 커닝, 집단 정보 공유 등 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특화되어있다.
나같은 비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불공정한 타격이 생긴다.

이들을 상대해야하는 학교와 교수진들도
얼마나 힘들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특정 한 국가의
유학생의 비율이 과도한 것은
어쨌든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입장에서도
전혀 좋은 방향일리가 없다.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서
중국인이 덜 올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일단 중국에서 스위스로 유학을 보낼 정도면
못사는 집안은 아니라는 의미라서
올리든 말든 사실 개의치 않을 것임.
그리고 인상에도 불구하고 타유럽국 대비
여전히 저렴한 등록금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로서는 어쨌든 무엇이든간에
조치를 취해야했다고 보여진다.

UZH의 경우에는 아직 등록금 인상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 다만 현재까지 항상
ETH의 결정을 따라갔던 형제학교라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을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가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스위스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던
<로컬과 차별없는 등록금>이라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로컬과 현격한 등록금 차이를 두는 국가들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처음부터 정이 떨어졌었는데
스위스는 안 그랬거든.
근데 얘네도 이젠 같은 상황이다.

대기업 7년 직장인&휴직러,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NLP 석사졸업.
하루의 1/3은 춤에 열정을 쏟고 있고,
나머지 1/3은 인생계획하기를 즐깁니다.

@ UZH @ Kpop Dancer @Daze Crew

유튜브 youtube.com/@imyourbest

김치퐁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imchi_fondue/reels

유학상담 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세법-연말정산] 해외 유학생 대학등록금 교육비 귀속(공제) 여부

유학준비 힘들어

2023/02/04 02: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999547731>

Q. 해외 유학생의 대학등록금 교육비 귀속 여부

A.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한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 제출서류 :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육비 납부내역서

▶ 주의사항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환율 조회 : <http://www.smbs.biz/ExRate/TodaysExRate.jsp>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환율조회 오늘의 환율 통화와 날짜를 선택후 기간별 USD/KRW 및 주요통화 변동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월,일 8자리로 입력 예) 20110901 ※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매 영업일(월-금요일) 1회 (9시 이전) 고시

합니다. [상세보기] 2023년 01월 30일 스웨덴 SEK 119.38 영국 GBP (US\$) 1,524.65 노르웨이 NOK 124.74 덴

마크 DKK 179.75 유로 EUR (US\$) 1,336.98 스위스 CHF 1,335.79 쿠웨이트 KWD 4,029.88 ...

www.smbs.biz

스위스 취리히 석사 유학생 :: 총 유학 준비 비용 공개

유학준비 힘들어

2020/10/01 06:51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104164664>

유학 준비 비용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 유학 총 비용이 아닌, 유학 <준비> 비용임 ※

나에게 유학 준비는 정착까지 마친 상태로

공부와 생활적응 할일만 남은 상태를 말한다.

지난 12년간 가계부를 적어온 경험치(?)도 있고,

유학경비를 남발ㅋㅋ하면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려 한다.

나는 짐을 85kg를 항공으로 가져온데다가

그 후 집에서 43kg를 보내줬기 때문에 사실 와서는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계속 산 것들이 없음.

그래서 여기 보이는 비용이 거의 전부다.

(하다못해 수세미 한 장도 집에서 다 보내줬고,

은근 이런 자잘한게 진짜 제일 사기 귀찮고 아깝다는걸 깨달아서

집에서 보내준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중임)

여러번 말했지만 내돈내산 유학이기 때문에
돈 쓰는걸 고까워하는 편임을 미리 알린다.

(+) 초심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급박해서 더 큰 돈을
쓰거나 한 내역들도 있으니 참고로 봐주세요.

"이런건 이게 더 좋아요" 싶은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블로그를 참고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게될테니 댓글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집단 지성은 좋은거니깐요.

한국에서 지출한 비용

떠나기 전

- 항공권 49만원 / 위탁수하물 추가 10만원
- 취리히 공항 포터서비스 40프랑
- 비자 수수료 95프랑
(입국비자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나,
가서 실제 비자 발급 수수료는 내야함)
- 해외장기체류보험 14만원
- 체류 극초반 Airbnb 8/26~9/2(1주일) 35만원

- 유학물품 구입비 약 40만원

포함 내역 : 이민가방, 캐리어, 각종 서류 출력비, 여권사진, 상비약, 브리타, 화장품, 압축팩, 국제학생증 신청비, 전기장판, 멀티어댑터, 충전기, 케이스, 욕실용품, 전기밥솥, 식품

/ 약 165만원 /

취리히 도착후 지출한 비용

정착비용 (시간순서대로)

- Prepaid 유심(레바라) 24.9프랑 + 충전 10프랑

으로 첫 한달을 생활했다.

- 취리히 ZVV 트램티켓 1개월권(3 zones) 125프랑

초반에 묵은 에어비앤비가 공항근처라 3zones가 필요했다.

- Residence permit B 수수료 182프랑

- 학생숙소 디파짓 1200프랑 +신청수수료 150프랑

(디파짓은 나중에 돌려받지만 어쨌든 현재의 비용으로 잡음)

- 학생숙소 첫달 렌트비 776프랑

원래 970프랑인데 9월 한달간 숙소 시스템 tidy up이

안되었었다면서 80%로 할인해줌! 헤헤♡

- 취리히대학교UZH 가을학기 등록금 900프랑

- 취리히 ZVV 트램티켓 1년권(2 zones) 782프랑

위에 구입한 1개월권 유효기간 종료 후, 1년권으로 구입했다.

- 모바일 Subscription

유심(Lebara) 59프랑, 월 통신비 19프랑

/ 약 535만원 /

추가적인 사항

+) 다음번 포스팅에 자세히 쓰겠지만

한달만에 방을 옮기게 되어(So happy!)

10월부터 렌트비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 대중교통은 연간 비용. 1년간 발생 X

+) 등록금도 내년 1월이 되어야 재발생하는 비용.

+) 최초 유심비는 1회성.

한국 회선을 살려둔 비용은 월 4,750원.

+) 보험에 대해서도 포스팅 따로 할 예정.

다음번 유학생의 지출/예산 관련 포스팅에서는

월 고정지출과 한달 식비

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

유학생 항공권 구입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58626335>

취리히 공항 포터서비스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74079748>

스위스 입국비자 신청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35429827>

유학생 상비약 저렴하게 구입하는 법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62057373>

국제학생증 발급받기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54100743>

취리히 트램티켓 구입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76496638>

레지던스 퍼밋 신청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77243304>

나의 학생숙소 랜선 집들이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079792931>

다음 이야기(?)는 언제 올라오냐고 묻는

질문이 꽤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질문자체가 넘 귀여워 미침ㅋㅋ 드라마 정주행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카테고리는 '유학준비'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고,

이후 유학생활에 대한 내용은

'유학생활 재밌나'에 연재중입니다.

이게 포스팅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쁘죠?ㅋㅋㅋ

'유학생활 재밌나'에서 계속 봐어요^*^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유학상담소

<https://blog.naver.com/imyourbest/222336954463>

스위스 취리히 석사 유학생 :: 출국날의 이야기 / 영상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27 00: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99954950>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스펙 [학부 학점 GPA편]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21 19: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94567075>

학점 좋아요?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내가 유학을 가게 되고 다양한 유학글을 올리면서
블로그 댓글, 쪽지 등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다.
물론 그냥 스치듯 하는 질문들도 있었을테고,
정말 간절히 하는 질문도 있었을 것이다.

응원메시지와 함께 내 상황을 이해하고 한가지 정도
아주 짧게 정중히 질문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와 한번이라도 댓글로 대화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빈말 아니라는거 알고 계실거예요.

다만 핑프 질문은 기분이 거지같다. 진짜 하지마라.

▼ 내가 생각하는 핑프 질문의 예시 ▼

지원이 가능할까요??

2020.8.11. 16:03 | 신고

답글

초코빵 블로그주인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은 학교에 직접 해주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도 지원전에 학교에 이것저것 질문 많이했어요 ㅎㅎ 저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2020.8.11. 16:04

답글

초코빵 혹시 어떤 학과 전공하셨나요?? 그리고 'must have earned an overall grade of 5 in a Bachelor's program in order to study' 라고 쓰여있었는데 이게 저희 대학교때 평점을 보는건가요??

2020.8.11. 19:12 | 신고

음... 내가... 학교 그 자체는 아니잖아?

지원이 가능한지, 학교 지원요건에 써있는 명확한
의미가 뭔지는 학교에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이걸 내가 말해줘야 암?

이런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내가 정리해서 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량적인 스펙]을 물어보는 분들이 꽤 계셔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스펙에 관해 쓰게 되었다.

저도 잘 되어 내년에 입학하면 스위스에서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군요ㅠㅠ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정량적인 스펙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ㅠ_ㅠ...

▼ 학부 전공 스펙/연관성이 궁금하다면

이전포스팅 [학부전공편] 참조 ▼



**University of
Zurich^{UZH}**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스펙[학부전공편]

내 학부전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 전공은 꽤 여러번 적긴 했지만 정리해보자면, 서울...

[blog.naver.com](#)

※ 주의 : 자랑할 만한 스펙 전혀 아님 ※

보잘것 없는 스펙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나의 객관적인 스펙을 보여드려야

이런 사람도 가는데 나라도 못가?

요런 생각 하실 수 있도록 ㅋㅋ 하는 취지이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지 마시오...

저 매우매우 창피하냄.....

<학부 학점/GPA와 석사 유학>

@초코빵 ❤ 한가지 더 여쭤보려고 방문 했어요! 혹시 학점은 어느정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혹 독일이나 스위스 공과대학들의 석사 유학을 위해 한국에서의 학사 gpa가 중요한 지표인 편인가요?

▲관련 질문들 몇가지▲

나의 경우,

학부 전체 학점은 4.5 만점에 3.78이며 백분율은 91.

부전공은 너무 데이터사이언스와 연관성이 없으니

전공학점만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전공을 제외한 경우,

전공 학점은 4.5 만점에 3.72이며 백분율은 91.

나의 생각이지만 성적은 최소요건 허들만 넘으면

(학교마다 학부성적 최소요건에 대해 적혀있다)

성적이 더 높고 낮은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학교에서 신경쓰는 것은

무슨 수업을 들었고, 뭘 배웠는지인 듯하다.

더 정확히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배웠는지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를 매우! 눈여겨 본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Course description을 잘 적어서 내야한다.

▼ Course description 관련 포스팅 ▼

Course name	Basic statistics	Code	0082
Credits	3	Language	Korean
Teaching	3 hours of lectures per week		
Course content	Lecture on basic theories and methods of statistics, including data organization and summary, diagrams, probability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estimation and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lecture aims to cultivate a quantitative approach and application in a variety of academic fields.		
Prescribed book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atistics by Sangik-Kim and 4 others		
Examination	Midterm and Final written examination		

Course name	Elementary statistics II	Code	3352
Credits	3	Language	Korean
Teaching	3 hours of lectures per week		
Course content	Learn basic theories and applications for inductive statistics as a continuation of basic statistics 1. In particular, by learning the techniques related to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in-depth, lecture cultivates the ability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the actual application problem. During the lecture, students will solve practice questions and learn analysis using computer packages.		
Prescribed book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atistics by Sangik-Kim and 4 others		
Examination	Midterm and Final written examination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유학 :: Course description

[유학 준비 서류 중 Course description 준비에 관해. ▲이전 포스팅 참고나는 그냥 내...](#)

[blog.naver.com](#)

취리히 대학교의 경우에는 최저 성적 요건은 따로 없다.

일반적인 4년제 학사졸업장이면 요건은 맞춰진다.

◆ Formal admission requirements

- **Bachelor's degree** or at least equivalent degree from a **state-recognized university** .
- Any academic achievements that have been credited have also been acquired at a state-recognized university.
- The course lasts at least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standard curriculum for a full-time course: 180 ECTS credits or equivalent workload).

3년이상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어야 하고,

180학점(ECTS)을 이수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유럽학교들이 대부분 160~180학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 나는 왜 이 기준에 미달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지 유럽과 학점세는 기준이

달라서일뿐이다. ECTS라는 유럽 표준 학점으로

환산을 해줘야 하는데 굳이 우리가 환산하느라

머리를 싸맬필요까지는 없다.

최소한 내가 지원한 학교들 중에는
"니가 알아서 환산해서 내세요"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4년제 정규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그대로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 이건 본인의 선택인데,
나의 경우에는 CV를 작성할 때 내가
A+ 받은 과목들은 따로 기입해서 돋보이게 했다.
그냥 나름의 꿀팁...!
A+이 뭐가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그거 받으려고 힘들게 공부했잖아?

<학점과 관련한 개인설>

나의 경우에는 막학기 학점이 좀... ㅠㅠ 많이 붕신임.
1,2학년 때 너무 많이 논탓에 지운 학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4학년2학기 막학기인데도 24학점(내가 속한
학부기준 학기당 최대학점이었다) 듣는 중이었음.
= 하나라도 F 뜨면 졸업 불가 상태 —— ㅅ ㅂㅅ ㅅ ㅂ
보통 막학기는 널널하게 듣는다던데요... 저는 왜이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막학기 취업준비도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난 막학기 다 마치고 취업준비해야겠다^^
했었는데... 그런데.....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여름에 어쩌다보니 인턴이
덜컥 되어서 정신없이 다녔고, 4학년 2학기가 시작한
9월에 정규직 전환 합격 통지를 받는 바람에
취업준비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로
막학기고 뭐고 간에 회사다닐 준비 하느라 바빴다.
이 회사가 내가 7년간 다닌 회사다.

여튼 이러니 막학기 중간/기말고사를 제대로 볼리가
없음... 교수들 찾아가서 비는게 일이었다 ㅠㅠ
그것도 24학점이니 교수가 몇명이었겠음 흑흑

'제가 회사 합격을 해버려....'
'축하하네'
'아 감사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
'시험을 안보고 학점을 줄수는 없네'
'아 맞죠 ㅠㅠ 겨스님 제발 C뿌리기라도 안 될까요?'

회사에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솔직히 학교처럼 나를 봐줄 이유가 없다.
들어오겠다고 대학생들이 줄 서 있는데요...
보통 회사가 졸업예정자/졸업자를 같이 뽑으니
신입사원 교육시간에 확인차 물어본 질문이 있었으니,

'막학기 16학점 이상 듣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나 혼자 손들 ㅋㅋ 아나... 아직도 그 때 기분이 생생함.
'초코빵 졸업할 수 있어? 확실해?'
'네 확실해요!(아뇨 사실 모르겠어요 흑흑ㅠㅠㅠ)'

그리고 나서 인사부 직원에게 달려가서
'(쭈굴쭈굴)기말고사라도 보고 올 순 없을까요?'
'(애를 왜 뽑아서)어휴... 절레절레'

정말 천운으로 ㅠㅠ 잘 봐주셔서 시험은 봤다.
흰것은 종이요 검은것은 글씨요라고 해도,
일단 시험 참석하면 F는 면할 수 있었거든.

취업인디 서류와 면접이 우여곡절이 아니라,
학점 채우는게 제일 우여곡절이었던 나의 취업기.

웬지 석사동안에도 학점 채우는게
제일 큰일일것 같은 이 기분ㅋㅋㅋㅋ

(참고)

아래 페이지는
취리히 대학교UZH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
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이다.

[Studienangebot und Studienwahl](#)

[Data Science \(Major 90\) Studiengang: Master of Science UZH in Informatik \(RVO16\) Allgemeine Beschreibung Zulassungsvoraussetzungen Studienrichtung Studienziele Berufsperspektiven ECTS Credits Abschluss Studienaufbau HF-/NF-Kombinationen Benotungsvorschriften Unterrichtssprache Allgemeine Beschreibun...](#)

[www.degrees.uzh.ch](#)

이건 석사 입학 요건과 프로세스 페이지.

[Zulassung zum Masterstudium](#)

[www.uzh.ch](#)

-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댓글 답변 달지 않습니다.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스위스 취리히 유학생 :: 스위스로 해외송금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10 00:42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85209930>

스위스로 해외송금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스위스로 해외송금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1. 스위스는 EU국가가 아니다. 유로(EUR)로 송금

가능한 케이스도 있지만, 학교/관공서/숙소 등

전부 프랑(CHF)으로만 송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CHF송금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2. 생각보다 그 플랫폼이 많이 없다.

그래서 고르기가 어렵지는 않다...

카카오뱅크고 K뱅크고 간에 CHF는 안해주니깐.

+ 진심 광고아님. 내가 써본거 올리는 것.

해외송금 초록창에 쳐보면 쓰잘데기 없는 광고밭.

나는 한국계좌만 보유한 상태의 예시이므로

유럽국가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주의사항 ※

현재 2020.09.09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환율 및 수수료 정책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3가지로 달라서 나눠서 얘기해야 한다.

아주소액, 중간금액, 좀큰금액

사실 본인이 플랫폼별로 직접 들려보면 되긴 한다.

플랫폼은 2가지이다.

1. 신한은행Sol쏠 어플
2. Transferwise

언제 뭘 써야하는지 정해드림.

설명 들어갑니다.

외화송금시 수수료는 3가지.

해외중계수수료/전신료/송금수수료이다.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가지,
해외중계수수료 때문이다.

1. 신한은행 SOL쓸 어플

어떤 경우에도 신한은행은
해외중계수수료가 35CHF로 고정이다.
35프랑이면 45,000원 정도이고,
수수료로 내기에는 상당히 큰돈임.

즉, Transferwise의 수수료가
35프랑+신한은행의 추가수수료보다 싸면 됨.
해외중계수수료에 비하면 나머지 2개의 수수료는
사실 내도 그만인 정도의 금액수준이다.

따라서, Transferwise냐 신한은행이냐,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정확한 구간까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수수료 기준으로 봤을 때
8500프랑 이하이면 Transferwise,
그 이상이면 신한은행이 나은 것 같다.
(Transferwise 수수료는 아래에 나옴)
정확한 수수료는 꼭 직접 넣어보시길.

중요한것은, 대충 금액만 넣어보고 어?
아닌데? 싼데?하면 안됨. 신한은행의 경우
해외중계수수료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보여줌.
빌어먹을... —— 그래서 마지막단계에 금액보고 놀람.

다 넣기 짜증나니까 그냥 밑에 표 보셈.

(2020.09.09 신한은행 수수료 정책 기준)

수수료/송금액	100CHF	1000CHF	5000CHF	10000CHF
해외중계수수료	35CHF	35CHF	35CHF	35CHF
송금수수료	0	0	7,500원	10,000원
전신료	5,000원	5,000원	8,000원	8,000원

수수료 합계	5만원	5만원	6만원	6.3만원
--------	-----	-----	-----	-------

현재 신한은행은 2020.12.31까지

3000USD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0원,

(3000USD가 넘으면 위의 표처럼 상승)

전신료 5,000원 이벤트 중이다.

(3000USD가 넘으면 8,000원)

끝나고도 계속 연장할지는 미지수.

2. TransferWise 어플

Transferwise는 수수료를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지불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도 지불방식에 대한 이해도는 낮기 때문에 알아서 고르자. 확실한거는 제일 싼 방식인

Bank Debit 어쩌고는 미국계좌 있는 사람만 가능했음.

나는 Credit Card로 했다.

씨티은행 계좌가 있다면 다른옵션들 아마 가능할지도.

이건 내가 일전에 95CHF를 스위스 이민국에 보냈던

송금 예시이다. 총 111.30USD 결제했음.

유학생이라면 해외결제시 유리한 카드 한개쯤은

갖고 있을테니까 그걸로 결제하면 됨. 나도 수수료

붙어서 원화 13만원 정도 나갔으니 괜찮은 수준이다.

하지만 똑같은 송금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했다면?

95CHF+35CHF+5천원이므로

약 17만원 넘게(146USD) 나갔을거다.

즉, 소액인경우 신한은행 수수료가 4만원가량 비쌌다.



Sending

95 CHF

Updates

Details

Transaction details

You're sending	111.30 USD
Our fee	6.37 USD
Exchange rate	0.905400

Your rate is guaranteed until 9월 17일
오전 11:09. We need to receive your
money by then.



Sending

95 CHF

Updates

Details

Waiting for funds to clear

Today at 11:17
am



You set up your transfer

Your money's on its way
to us

Your bank might take up to 39
minutes to get it to us. We'll let
you know when it arrives.

Transfer Overview

89% 직장인 일지 blog.naver.com/imyourbest

Amount paid (fee included)	111.30 USD
Convert and send to:	95 CHF
Fee	6.37 USD
Exchange rate	0.905400
Savings compared to banks	7.88 USD

하지만 지불방식이 Credit Card라는건 %를 의미해서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오지게 붙는다.

만약 Credit Card로 지불 할거라면,
1000프랑부터는 애초에 지불 불가능이고,
800프랑 이상부터는 신한은행이 더 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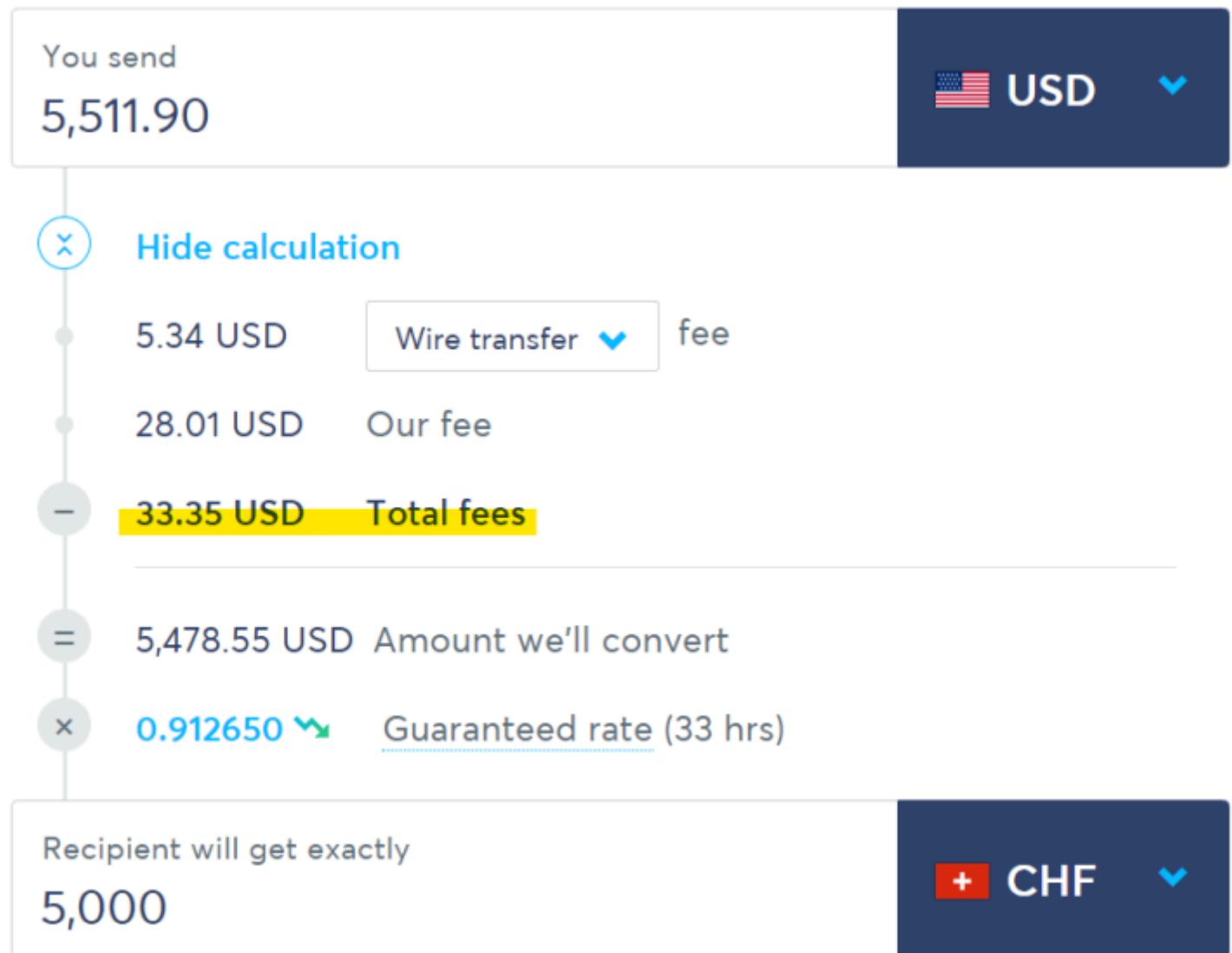
따라서 130CHF이하의 소액만 Credit Card를 추천.
제일 저렴한 지불방식이다.

International Wire라고해서
해외계좌에서 TransferWise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결제방식도 있는거 같긴한데, 이건 비추하는 이유가
수수료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림. 최소 1주일?

송금 금액이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되나.
5000프랑, 10000프랑 이렇게 커지면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오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추고,
Wire transfer를 해야한다.

중요한건 이 방식은 내가 해본적이 없으므로
잘 되는지 모르겠음. 다만 만약에 된다면
신한체인지업 카드 만들 때 만들었던 외화계좌에서
이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중. 곧 해볼 것 같다.



You send
11,017.90



USD



Hide calculation

5.34 USD fee

54.86 USD Our fee

60.20 USD Total fees

10,957.70 USD Amount we'll convert

0.912600 ↗ Guaranteed rate (33 hrs)

Recipient will get exactly
10,000



CHF



대략 8500프랑 전후 구간부터는 TransferWise도
별로다. 가장 싼 지불방식인 Wire transfer를 택해도
수수료가 신한은행 수수료를 넘기 때문이다

금액은 여기서 넣어보면 된다.

[Wise, Formerly TransferWise: Online Money Transfers | International Banking Features](#)

Banks charge a lot for overseas transfers. We don't. Transfer money abroad easily and quickly with our low

[cost money transfers.](#)

[transferwise.com](#)

이건 추천인 코드.

이 경로로 들어가서 500파운드 이상을 송금한다면, transfer fee가 무료이다.(약 78만원 이상)

[Transfer Money Online | Send Money Abroad with TransferWise](#)

[Banks charge a lot for overseas transfers. We don't. Transfer money abroad easily and quickly with our low cost money transfers.](#)

[transferwise.com](#)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다.

(괄호안 금액은 2020.09.09 기준)

* 아주소액 (130CHF이하) *

추천 : TransferWise 어플

통화 : USD → CHF로 송금

방식 : Credit Card 카드결제

* 중간금액 (130CHF~8500CHF) *

추천 : TransferWise 어플

통화 : USD → CHF로 송금

방식 : 외화계좌 Wire Transfer

* 좀큰금액 (8500CHF~) *

추천 : 신한은행 SOL쏠 어플

방식 : KRW → CHF 송금

더 나은 방식을 아시거나,

본인이 해본 다른 방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여기 덧붙이겠습니다.

댓글 환영하는 게시글입니다!

++ 추가된 댓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댓글하신 분의 허락 받았습니다



@초코빵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웨스턴 유니온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데 고정수수료 5000원에 usd to chf로 송금 돼요. 송금후 1분후부터 웨스턴 유니온 서비스 지원하는 곳 가면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스위스 전역 기차역 sbb에서 이용가능하답니다. 수수료가 작다는것과 송금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게 장점인거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아서 얼마나 저렴한진

모르겠지만 카뱅은 요즘 다 쓰니까

좋은 소식인듯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석사 유학생 :: 내가 싸간 한국음식들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08 02:34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83257286>

유학생 한식 싸가기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이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나는
당연히 한식러버임. 한국인이니깐...

미안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서론이 좀 갑니다.
의식주는 중요하자나요 그래요 안그래요 ㅋ

나는 아재입맛이라서 순대국밥에 미쳐버리고
(대딩 때 과외 3개를 하면서 순대국에 미쳐서 순대국밥집 알바를 함)
없어서 못먹는 소곱창!!! (중요)돼지곱창 아님.
돼지는 소와 급이 다름. 육회 닭발 돼지껍데기
선지해장국 으으으.... 셀프고문 입에 침이 주르르....

ㅠㅠ 하지만 어느정도는 유학을 와야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내 몸이 알아서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위스는 물가 비싸고 한식은 더 비쌀게 뻔해서.

난 요리를 싫어하고 관심 1도 없어하기 때문에
더욱이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희한하게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요리를 나름 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할일이 1도 없었고요.
요리 못하는데 내가 하는건 약간... 사약내리는거잖아.
엄마말로는 내가 그런남자들만 어떻게 잘 알아내서
골라온다고 했음. 아니요.. 걔네가 정상이고 내가
이상한거야 엄마 ㅠㅠㅠㅠㅠ

하루는 엄마가 카레라도 만드는 법을 알아야겠지
않냐면서 8월 어느날 주말에 성질을 내면서 카레
만드는 법을 보여줌. 그래도 머릿속에 남은건 없다.

그래 울엄마만큼 내 요리실력 얼마나 안드로메다인지
아는 사람은 없으니깐... 사실 엄마가 요리를 잘해서야,
라고 되도안하는 변명 :)

내 요리실력에 대해 말하자면 진짜 할말하않...
친구들은 진짜 말그대로 개쳐비웃을정도이다.

집에 엄마가 안 계시면 할줄 아는건 비비고 만두 데우기.
전자렌지에 뭘 몇분 돌려야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일전에 피자를 8분 돌려서 숯검댕이 연성한 이후로는
요리한다고 하면 쫓아올 기세일 친구들이 있다.
(무려 이번년도의 일임)

그 친구들 덕분에 내가 여기서 파스타를 성공했다.
나 진심으로 울뻔함.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카톡하면서
불 낮춰, 불 올려, 지금 뭐 넣어 등등

아주 상세하게 나를 아바타처럼 컨트롤한 결과다ㅋㅋ

아 물론, 취리히에 온지 일주일만에 냄비 하나
흘라당 태워먹기는 했다. 하하하 내가 그렇지.
심지어 내 냄비도 아니고 잠시 끓었던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냄비를 다 속검댕 만듬.
호스트는 자주있는 일이라며 시크하게 베이킹소다를
꽉 집어넣긴 했지만 암퇘리쉘이....
그것도 인스턴트 리조또였는데도요.

너무 무서워서 두번째 인스턴트 리조또 시도할때는
무려 1시간동안 끓였다. 매우매우 약불로.
이거 내가 아는 인스턴트 맞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지
음식을 만들어내질 못할뿐 일단 만들어낸걸
먹는거에는 정말 1도 문제가 없다.

아무거나 잘먹고 물갈이도 없고 화장실 들락날락 없는
입맛을 보유. 그 덕분에 한식 최애이긴 하나,
다른 음식도 무조건 있으면 다 잘 먹는다. 안가림.

다 잘먹는 사람들도 식재료를 안가리는것 뿐이지
위생은 가리기 마련인데 나는 동남아 여행을 그나마
많이 다녀서 그러는지 위생도 크게 신경안씀.
내가 먹을걸 손으로 말아서 줘도 뭔 상관임...
그냥 먹을수만 있으면 된다규

이 상태에서 나는 스위스라는 외식물가 최악의 국가에
유학을 왔다 = 무조건 요리해야함

나는 진심으로 음식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되었음...
내 8월 걱정의 8할은 유학가서 먹는거 걱정.

솔직히 먹는거만 잘먹어도 생활 다 됨.
게다가 8월동안 유학 준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엄마가 잘맥여도 오히려 살이 2kg가 빠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으며 엄마가 "거기가서 더 빠질텐데
어떡하냐"고 하심. ㅠㅠ 도록,,, 이 김에 강 좀 빼죠 뭐.
유학다이어트 들어봤나요

그래서 나는 한식을 바리바리 싸왔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한식은 "독일 마트가서 사면 싸~"류의
한식이 아님. 독일가서 구입해오는건 언젠가 할 예정.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준비중이다ㅎ ㅎ ㅎ ㅎ
내가 말하는 건 홈쿡드밀임.

홈쿡드밀을 한국에서 스위스로 반입해오려면 현재
코oron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뿐이다.(해외배송 불가)
위탁수하물로 가져가기.

내가 싸온 홈쿡드밀은 다음의 5종류이다.







출처 : 만개의 레시피

진미채볶음,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그냥 김치, 신김치.

가정용 진공포장기계와 진공포장용 비닐롤을 사서



진공포장하면 요렇게 요렇게 내려치면 누구하나
죽을지도 모르는 흉기같이 딱딱해진다.
전혀 훌러내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잘 왔다.





각 5개 종류별로 4팩씩 가져왔고 보냉백 하나를
가득채웠다. 이것보다 더 많이 안 가져온 이유는
역시나 유통기한 때문.... 만든 음식이라 수명이 짧다.

주의할점은 아무 비닐률이나 시도하면 안됨.
저 진공포장용 비닐률이 따로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님ㅎㅎ 만능양념장도 챙겨옴.
시중에 파는거 말고 올엄마가 만든거!
고추장베이스드만능양념장과
된장베이스드만능양념장 총 두개를 만들어서
깊은 락앤락통에다가 각각 싸주신걸로 알고 있다
(아직 안 열어봐서 모름. 엄마 매우 감사)

홈쿡드밀의 수명이 짧아서 또 챙겼지. 구입한 걸로.

오뚜기 블럭국. 2분안에 조리 완료.



5가지 종류를 각각 4개씩 구입했으니

블럭국만 100개 가져온 것.

아직 닭곰탕만 먹어봤는데 의외로 아주 괜찮았다.

광천김. 작은 네모로 한입사이즈 만들어진거 사면

안되고 큰거 사야한다. 부피도 생각해야하니깐.

와서 접어서 잘라먹으면 됨. 이게 싸서 좋다.



저거 하나에 5장 들었는데 나는 총 14세트 챙겨옴.

그외, 미숫가루/카레분말/버터오일/

소금/맛다시/맥심알커피를 챙겼다.

이 외에 참치캔 스팸캔 굴소스 올리브유 짜장분말
열라 많은데 수하물이 이미 넘나 초과한 상태여서
더이상 넣을 수 없었다.... 근데 엄마가 겨울짐 보낼때
넣어서 보내주기로 했음ㅋㅋㅋㅋ여하튼 받게될 듯.

미식과 상관없이 최대한 돈 없이 생존하고 싶었던
유학생의 한국음식 챙기기는 여기서 끝.

나중에 내가 요리를 잘하게 되어서
이 생각이 꼭 바뀌길 바란다. 제발ㅋㅋㅋ
아님 요리 잘하는 취리히 남자분들 절 만나주시겠어요? 우쥬?

스위스 유학생 짐 싸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07 01:04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82195369>

유학생 짐 싸기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생들이 짐 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건

유학가서 생활하는건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게

제각각이며 본인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챙겨가야 한다고 본다 :)

당연히 유학국가도 사람 사는 곳인데 없는 거 없지.

누가 모르겠나.

하지만 싸갈 수 있을 때 최대한 싸가고

나중에 정 없으면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특히, 스위스의 경우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고 나는

정말 작은 것 단 하나도 내돈내산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한국에서 최대한 챙겨갔다.

나는 해외생활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전긍긍하며 챙겼고, 멍청비용, 쓸쓸비용, 횟김비용,
집에 있는데 또삼, 싼거 있는데 비싼거 삼, 분위기비용,
이런 것들을 진짜 극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내 성향을 잘 아는 상태에서 짐을 꾸렸다.(★중요)

(난 한국에서도 예산 세우고 맞춰서 소비하는 타입
- 가계부 12년 경력자 -)

제가 돈을 어떻게 모아온지 궁금하다면
직장인 라이프 카테고리 내에
[직장인 돈 모으기]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와서도 다들 그냥 여기서 사면 되지 뭐~ 하면서
사는데 꿳꿋하게 나는 그런 말들은 무시하고 있으며
싼거사면서 아끼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니깐.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 아직 부모의 지원으로 다니는
친구들은 확실히 경제활동으로 벌어보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인지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하 아님. 경험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

그런 친구들도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더욱 내 돈을
온전히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에 분위기에 휩쓸리며 써다면 잔고는 하늘나라로.

물론 이 모든 것은 본인이 본인 경제상황 관리나
소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본인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나는 내 성향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며 마무리 :)

그래서 결과적으로 23kg 위탁수하물 3개에
8kg 기내용수하물+작은가방 까지 85kg를 챙겼다.
(핀에어는 23kg 초과해도 봐준다 25kg정도도 괜춘)

▼어떻게 무엇을 챙겼는지는 유튜브 영상 참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100kg 넘길걸... 위탁수하물 한 5개 할걸...

엄마가 겨울옷(니트, 패딩, 코트, 원피스 등등),
전기장판, 전기방석, 겨울신발, 스카프, 목도리,
밥솥코드, 운동화 1개 더, 감자깎는칼,
락앤락통 종류별로 많이, 그릇 여러개, 행주 여러장,

마늘다지기, 물빠지는 그릇, 굴소스,
참치캔, 스팸캔은 따로 보내주기로 했다.

더 없을까 계속 궁리중.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고
내년에 한국 갔다가 돌아올 때 또 짊어지고 올 듯하다.

정말 여기 돈 쓰기 싫다. 아니,
돈쓸맛이 안남. 돈 쓴만큼 내 손에 떨어지는게 없어서.

다음 포스팅은 내가 챙긴 한국음식들과
챙겨간 방법에 대한 포스팅.

스위스 유학생 신용카드/체크카드 추천 ::: 우리위비온플러스신용카드, 신한체인지업체크카드, 신한글로벌멀티카드, 하나비바G플래티늄체크카드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04 17:53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80374951>

유학생 카드 준비?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스위스 유학갈 때 챙겨야 하는 국내카드...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긴하는데,

국가마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니까.

나는 내가 발급받고 쓴것 위주로 포스팅하려고 함!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같은 댓글 답글 안함.

저는 카드 전문가가 아니니깐요 ㅋ

다만, 원하신다면 해당 댓글을

이 포스팅에 박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 카드결제 vs 현금사용에 대해 한마디.

카드 결제되는 곳 겁나 많음. 거의 대부분 됨.

UBS직원이 나한테 자기도 캐쉬써본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난다고 함.

이정도면 충분한 설명이겠지요.

나도 학생숙소에 디파짓 낼때 빼고는

아직 한번도 현금을 써본적이 없다.

1. 우리카드 위비온플러스 워라밸 카드의 정석



이 카드는 원래 내가 1년가량 한국에서 쓴 카드다.

연회비는 1.5만이고 어차피 최초 면제라 상관없었음.

내가 쓴 혜택은 :

국내사용 5% 할인(건당 5만원까지)

해외사용 3% 할인(횟수 제한 없음, 1만원미만 제외)

공항라운지 월1회, 연2회

- 위 3개는 전월 실적 최소 30만원이상일때.

해외이용수수료 0.3% 면제 (1% 부과)

해외 ATM인출수수료 건당 \$3 면제(1% 부과)

- 이건 전월 실적 무관.

이 카드는 솔직히 실적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국내사용에 막 좋은건 모르겠고, 해외사용에 좋다.

30만원만 넘겨주면 3%씩 5만원까지 할인가능하니깐

구분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	180만원 이상
국내 이용 할인한도	1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해외 이용 할인한도			5만원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카드를 유학준비기간에 썼다.

해외대학 지원접수비 낼때

이카드로 결제해서 개이득ㅋ

해외매출할인 받았던 예시들. 여기에 국내가맹점

할인도 쏠쏠하게 조금씩 있긴 하다보니 괜찮게 썼음.

2020.04.03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3,109원	▼
2020.04.07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3,854원	▼
2020.04.06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4,114원	▼

2020.02.25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309원	▼
2020.02.27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659원	▼
2020.02.27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2,503원	▼
2020.02.10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2,736원	▼
2020.02.13	차감-해외매출할인 본인 5849 신용 차감	-4,416원	▼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카드는 단종상태임.
혜택이 나쁘지 않았어서인지 1년반만에 단종.

출국 전에 DCC 걸어놓고 여기와서도
CHF 결제할일 있을 때마다 이 카드를 썼다.
이용수수료 면제니까. 대신 마스터수수료 1% 불을듯.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전월실적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전월실적에 해외사용금액은 포함안됨)
입국한 그 달에 결제하면서 혜택받고 끝내야 함.

나도 8월에는 실적충족했으니 9월동안 이 카드 쓰면서
해외매출 5만원 할인한도 다 채우면 될 것 같다.
그러고나서 10월부터는 쓰면 안됨.

2. 신한 체인지업 체크카드



이 카드가 해외결제에는 1번카드보다 유리함.

근데도 불구하고 1번카드를 쓴 이유는 위에 말했듯이
9월간 5만원 할인혜택 다 소진부터 하려고 해서임.

해외결제 수수료 1% 면제,
해외서비스 수수료 0.2% 면제 혜택인데
정확히 뭔 수수료 면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괜찮음.

외화예금이 있어야 하는 카드여서
USD 외화예금을 만들어두고
USD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에는
가끔 사용했다(에어비앤비 결제 등)

하지만 나에게 현지사용은 어차피 CHF이기 때문에
USD인 외화예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음...
어차피 또 환전 수수료만 나가는데.
그래서 뭐 그냥 애매한 카드로 남아 있음.

국내사용이 가능한 카드기 때문에
혹시몰라서 이 카드도 당연히 DCC 걸어둠.

3. 신한 글로벌멀티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라 특이하게 따로 홈페이지가 있다.

[Shinhan Global Multi-currency Cash Passport | MasterCard](#)

신한글로벌멀티카드 특징 10개 통화를 하나의 카드에 충전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USD), 영국 파운드(GBP), 유로(EUR), 호주 달러(AUD), 캐나다 달러(CAD), 일본 엔(JPY), 싱가포르 달러(SGD), 홍콩 달러(HKD), 뉴질랜드 달러(NZD), 스위스 프랑(CHF)으로 충전 가능# # 원화계좌인출 또는 원화 현찰 납부하여 충전 가능 고객님의 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Chip & PIN으로 보호되어 추가적인 위험으로 사용자정보가 보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카드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ww.shinhangmc.com

이 카드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인데,

CHF로 충전해놓을 수 있어서다.

CHF로 충전해놓는다는 의미는 카드사용시점에는

추가적인 환전수수료나 이용수수료 발생 안한다는거.

카드이용수수료, 마스터결제수수료 무료라 좋고

ATM에서 CHF인출시 정액으로 3프랑 부과된다.

이용수수료

USD GBP EUR AUD CAD JPY SGD HKD NZD CHF

카드 이용수수료		무료								
재충전 수수료		무료								
MasterCard® 가맹점 결제 수수료 (예: 매장, 레스토랑)1		무료								
ATM 인출수수료12	US \$3.00	GB £2.00	EU €2.50	AU \$3.50	CA \$3.50	JPY ¥330	SGD \$4.00	HKD \$25	NZ \$4.00	CHF 3

이 카드로는 UBS에서 ATM인출만 2번해봤다.

이 카드의 ATM인출한도가 최대 \$1,000여서
900CHF만 충전해서 인출시도했는데,
UBS의 ATM인출한도가 있는건지 1회 450CHF만
인출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두번에 나눠서 인출함.

UBS ATM은 인출수수료가 없는건지
건당 3CHF말고는 더 추가로 출금된건 없었다.

밑에 쓰겠지만 하나 비바G플래티넘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는 ATM인출수수료가 1% 붙음.
따라서 300CHF 초과하는 금액은
글로벌멀티카드로 인출하는게 유리해서 이득이긴 하다.

이 카드의 최대단점은 너무 귀찮다는것...
충전해야함. 핀넘버 입력해야함(심지어 내가 부여한
핀넘버 아니고 은행에서 부여한 핀넘버라 못외움).
카드 더이상 안쓰려고 돈 빼려면 수수료 붙음.

더 이상 쓸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음.

그 이유는 맨 하단에 나옴.

4. 하나 비바G플래티넘 체크카드

이건 발급받고 싶어서 받았다가 보다는

그냥 국제학생증 만드는데 체크카드 기능을

넣을 수있길래 넣어본 수준이다. 혜택 별로.

급한데 아무카드도 없으면 쓸 예정. 한번도 안 써봤다.



해외결제시 1%만 부과되고,

해외 ATM인출시 1% 부과됨(현지ATM수수료는 붙음)

그래서 소액ATM인출시에는 좋다고 하던데,

교환학생이면 모를까 난 여기 오래 있을거니까

그냥 소액 인출을 안하면 그만임.

구분	내용
해외 물품 구매 시	이용금액의 1.0%(그 외 수수료 없음)
해외 ATM 현금 인출 시	이용원금의 1.0%(이용 건당 수수료 없음)

- 전월 카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외이용 캐쉬백도 1번카드에 비하면 1/2밖에 안되고

국내 사용금액 제한... 해외장기체류인데 응 바이~

해외 이용시 1.5% 캐쉬백

- 서비스 제공조건

- 전월 1일~말일까지 **국내 가맹점 사용금액이 25만원 이상** 이용 시 & 결제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최초 카드 사용 등록 후 다음 월 말일까지는 전월 사용금액 25만원 미만 시에도 전월 카드 사용금액 25만원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혹시 내가 바보같이 허둥지둥 쓸까봐 DCC 걸고옴.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하로

짧게 있을거면 쓰기 좋은 카드들을 모아봤다.

해외 ATM인출시에는 300CHF 이상만 인출하고

신한글로벌멀티체크카드를 사용.

해외 결제시에는 9월은 해외할인 5만원 때문에

나는 우리카드 위비온플러스를 사용.

다른사람에게는 신한체인지업 해외결제 추천.

사람마다 다 다르므로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

정보는 찾아볼수록 대부분 다 이득이다.

단, 본인이 정리를 잘 하는 경우에만.

그럼 장기체류하는 나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현지 계좌를 만들고 현지 카드 쓰는게 최고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출국해서 초기에는 위의 카드들을 쓸 수 밖에 없긴하다.

난 UBS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UBS VIP된 줄 알았지나...

이건 다음 포스팅에.

스위스 유학생 취리히 숙소 구하기, 그 눈물겨운 우여곡절... feat.총 정리

유학준비 힘들어

2020/09/03 03:24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78827595>

취리히 집 구하기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집 때문에 매일 가시방석이었던건 처음이다.

주변에 유럽으로 유학갔다온 친구나 지인이 거의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일단 맨땅에 헤딩은 하는데 왜 난 안 구해져?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거야? 싶었던 시간들.

5월말에 학교 합격발표를 받고,

6월부터 천천히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공립학교들은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서 방을 구해야한다.

물론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물가 1위의 도시
취리히에서 학생들보고 '알아서 구해' 라고 하기에는
학교들이 양심에 찔렸는지, 자기네들이 연계해둔
검증된 숙소들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기도 하다.

일단 첫 단계로는,
구글링을 해가면서 정보 얻기 좋은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해두고,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했다.

아래의 사이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 스위스 학생숙소 총집합 사이트 *

[Student Housing in Switzerland](#)

[Basel Bern Fribourg/Freiburg Genève Lausanne Luzern Neuchâtel Sankt Gallen Zürich Zürich Zimmer- und Wohnungsvermittlung UNI/ETH Zürich Sonneggstrasse 27 8006 Zürich : 044 632 20 37 : 044 261 84 13 zimmervermittlung@ethz.ch www.wohnen.ethz.ch Vermittlung nur für Studierende der Universität und ETH...](#)

[www.housingforstudents.ch](#)

여기서 '취리히'로 놓고 보자마자 내가 한 생각.
'생각보다 많네, 일일이 어떻게 다 컨택해...'
지금 생각하면 얼탱이가 없다 ㅋㅋㅋㅋㅋㅋ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컨택한들
저 중에 내 한 몸 뉘일곳은 어디도 없거든 ㅋㅋㅋㅋ

그리고 두번째 생각은, 월세가 진짜 너무 비싸서
저렴한 곳만 컨택해야지 하고 600프랑(월78만원)
이하만 컨택하자고 내 기준을 정해버림 ㅋㅋㅋㅋ
(학생숙소는 대부분 500~800프랑 사이고
원화로는 월 65만원~105만원 정도이다)

아니 그냥 구해도 못구하는데 budget이라뇨 ㅋㅋㅋ
지금 생각하면 다 얼탱터지는 생각들.

아무튼 정말 수없이 많은 쥐메일을 보냈다.

호기롭게 시작한 취리히 숙소 구하기가
no more room 글자를 볼 때마다 실망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대체 학생을 왜 오라는거야 이 놈의 학교는
집을 구해주지도 않을거면서 극대노하다가
혹시 나만 계속 fail인가 싶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러면서 8월부터는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budget을 700프랑으로 올렸는데도
안 구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링크 내 사이트들 중에서 나머지들은 전부
그 자체로 학생숙소이고, 아래의 두 사이트는
숙소의 리스트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체크해보아야 함.

wohnen사이트는 UZH와 ETH 학생만 접근가능하다.
미리 메일을 보내서 로그인데이터를 받은 후 접속 가능.
3개월간 접근가능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난 3개월동안 내내 못구해서 한 번 연장도 함...^^
난 여기서 집(플랫)을 한번 구했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뒤에 나온다)
www.wohnen.ethz.ch



[Startseite](#)

www.wohnen.ethz.ch

Woko(보코라고 읽나봄) 사이트는 아마
취리히에 오는 유학생이라면 아침에 눈뜨자마자
매일같이 바로 들어와보는 사이트가 될 것이다.
난 이 사이트가 제일 맘에 들었지만 가장 불가능한
선택지를 주는 곳이기도 했다. 왜?
난 Woko의 규정에 맞지가 않거든 애초에...

[New tenant | WOKO - Student Housing Cooperative](#)

[New tenant Choose the region, where you are looking for a room or create new listing. Winterthur und Wädenswil Zürich create new listing](#)

www.woko.ch

Woko는 최대 27세까지라는 Age limit이 있다.
나는 현재 글로벌 나이로 30세인데요...
근데 Age limit이 없는 숙소들도 가끔 올라온다.
10개중에 2개정도? 그걸 보려고 자주 체크해봤음.

27세 이하도 집구하기 힘든 마당에
나이까지 걸리니 서러워서 죽는줄 알았음.
Woko만 그러면 말을 안 하지.

학생숙소 리스트 보면 알겠지만 28세로 제한둔 곳
정말 많다. 너무너무 빽셈미다...

나처럼 30대는 스스로 유학은... 생각 잘 해보세요.

차라리 이민을 오세요 그냥 ㅠㅠ

나이들어서 공부한다고 오지게 차별받음 ㅠㅠ

나중에는 심지어, 역시 사람의 인생에서는

특정 task를 해야하는 나이가 정해져있나...

(예를 들어서 공부는 10~20대에 이런식) 까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음. 너무 피말려서.

중간에 운좋게 스카이프 인터뷰까지 본

학생숙소도 있었지만, 결국은 available한

방이 나오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추리히 숙소를 구하는 사이트들은 많다.

나는 아파트나 원룸이 아니라 flat을 구하려고 한거라서

구글에 zurich flat 등을 대부분 검색했다.

대표적으로 wgzimmer나 flatfox 등. 이외에도 다수.

하지만 이 사이트들의 문제는, 스위스에 있지 않는한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다.

왜냐면, scammer가 판을 치기 때문에.

<https://www.wgzimmer.ch/en/wgzimmer.html>

[wgzimmer.ch - Welcome](#)

Are you looking for a room in a shared flat? Or do you have a free room in your flat to share? In that case you are exactly in the right place!

www.wgzimmer.ch

<https://flatfox.ch/en/>



[Post Free Rental Listings | Flatfox](#)

[Free rental, sublet and flatshare listings. With our Flatfox app you can manage contact requests, applications and market your listings on social media.](#)

[flatfox.ch](#)

나 또한 wgzimmer에서 스캐머를 만났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보내라고 함.

wgzimmer사이트에 보면 스캐머로 신고된

사람인지 아닌지 메일로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을

지경이니 뭐 ㅋㅋㅋㅋㅋ 얼마나 많은지는 알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스캐머가 꼭 아니어도, 내가

애초에 뭘 믿고 한국에서 스위스로 송금을 하겠나.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가 돈도 안 보냈는데

내가 스위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며

렌트를 홀딩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생각은 애초에 접어버렸다.

결국 가야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을 너무 못 구해서 마음이 급하던 차에,
블로그 이웃분중에 ZHdK 취리히 예술대학교로
학사유학을 가시는 분이 계셔서 나의 제안으로
일단 같이 임시로 룩을 에어비앤비를 구했다.

취리히 에어비앤비.... 당연한거지만 무진장 비싸다.
조금 근교로 빠지면 괜찮은데 우리는
집을 보러 다녀야해서 취리히 내부로만 알아봤으므로.
그래도 두 명이라 더치페이로 훨씬!!! 나아졌다.

집구하기 힘들던 차에 마음들곳이 생겨서
많이 안심되었고... 그 힘들을 같이 공유했음.

에어비앤비를 처음에는 8/26~9/10으로 구했는데,
문제는 입국 후 14일내에 해야하는 Residence permit.
에어비앤비로 permit이 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안될 것 같았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예약을 8/26~9/30으로 늘렸다.
어차피 9월까지도 못 구할거 같았거든 ㅠㅠ

그리고 어차피 어느 숙소를 계약해도 대부분
기간이 9월1일부터라 당장 가서는
에어비앤비에서 룩긴 해야 했다.

이 때만 해도 집은 가서 구해야겠다...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아무 기대가 없었음.

그러던 중에 wohnen 사이트에서 3명이
쉐어하고 있는 아파트에 총 7명이 인터뷰를
봤었는데 내가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ETH박사생 1명, 직장인 1명 그리고 나.
집 위치도 학교랑 2km 정도 거리로 가까웠고,
all included에 690프랑이었다.

정말 괜찮은 조건인거 같아서 OK를 하고
지불은 직접 취리히에 도착해서 하기로 했다.

단, 하나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은...
나는 학생숙소를 원했음.
단순한 플랫쉐어말고, 기숙사같이
학생들이 좀 많은 곳을 가고 싶었다.
여기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단 3명뿐인지 몰랐음.

나는 독립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와글와글 각사같은거에 로망이 좀 있나봄 ㅋㅋㅋ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많을게 뻔한데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좀 자주 마주칠 일이 있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더 학생숙소를 원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housing in zurich 같은 그룹들이 있다.
여기에도 오퍼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나는 학생숙소를 원해서인지 생각보다
잘 안보게 되더라.

나의 여정은 인천-헬싱키-취리히였는데
헬싱키 공항에서 경유 도중에 진짜 갑자기
학생숙소 합격 메일을 받게 되었다.

또잉?

문제는 내가 지원한 룸은 standard인데
해당 룸이 마감되려서 large로 배정이 되버렸다.

아하하.... large는 초비쌌다.
이름에 걸맞게 이 곳의 학생룸중에서 제일 큼.
나 이렇게 큰거 필요없는데요...

근데 스카이프 인터뷰도 잘 연결 안해주는 마당에
합격이라니 어쨌든 고민 시작.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다음 포스팅에 내 숙소 소개하면서 같이 쓸 예정.

직장인 스위스 석사 유학 ::: 출국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zip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9 17:09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74527705>

출국 전 준비 리스트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국가로 떠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쭉 모아보았다. 좋다기보다는 강 꼭 하시길 ㅋㅋㅋ

#계좌정리/모바일OTP

어떤 계좌에서 주로 출금/결제할 건지 정리를 좀 해두고

OTP는 모바일으로 바꿔두는걸 추천!

OTP기기 찾아다니는 것도 짱나고 고장날수도 있자낭

막 제대로 딱딱 할 필요는 없는게 어차피

현지가면 현지 계좌 만들어서 사용하는게 최고라서

그냥 국내에서는 정신없지만 않게 정리해두면 된다.

나는 국내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다 몰아버림.

왜냐면 나는 신한은행 탑스등급 프리미어니깐★

라고해봤자 뭐가 좋은건지 아직 1도 모르겠음.

외화예금 충전이나 글로벌멀티카드 충전,

외화현찰 매수 이런거 할 때 스위스 프랑 환전우대
50%인데 이게 프리미어 등급이어서 그런건지
원래 그런건지 잘 몰겠고... 달러 우대에 비하면
매우 낮아서 딱히 좋은 거 모르겠고 ㅋㅋㅋㅋㅋ

#외국환은행지정등록

유학생 해외송금시 필수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함. 그래야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음.
신한은행 쓸(SOL) 모바일로 그냥 등록할 수 있었던듯.

#장기체류보험

▼아래의 포스팅 참고▼

여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플랜보험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실속 103,800원 표준 144,570원 보험확인 고급 175,470원

체류목적을 선택해 주세요 여행/관광 주제원(사무직) 유학/여학연수

해당 국가나 학교에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이 요구 조건에 종족하는지 확인함

직색/혹색경보 국가로 여행 시, 가입 불가함 여행제한/금지구역 확인

① 가입 시 필수 확인 사항

장기체류플랜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의 보장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직업이 포함된 업무출장, 휴업, 워킹홀리데이, 우편(WWOOF) 등이 목적인 경우는 가입과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음단계 >

출국전 CHECKLIST!

- 비행기표
- 보험 가입
- 입학허가서, 비자 등 각국서류 (필요한 경우)
- 출국나라에 맞는 전자기기 확인 (110V 등)
- 살비약, 비상약
- 의류/신발류
- 세면도구/화장품
- 신용(체크)카드, 외화

더 자세한 내용에 궁금하다면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생 보험(해외장기체류보험)

내가 그 많은 스쿠버다이빙 서핑 스노우보드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한번도 가입하지 않았던여...

[blog.naver.com](#)

#원화결제차단등록(DCC)

카드사별로 들어가서 원화결제차단등록을

해두어야 외국에서 결제시에 원화로 결제될 위험을 막아둘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해당 현지의 통화로 결제하는게 가장 이득임. 스위스에서는 원화결제시 이중으로 환전까지 되고 환전수수료도 추가 있으므로 당연히 원화결제차단등록을 해두는게 이득.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시에는 어차피 1. CHF 2. KRW 이런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주기는 하지만, 모든 곳이 그런것도 아니고, 캐셔의 실수로 KRW 결제 될수도 있으니 DCC는 필수.

#당장가서쓸돈환전

초반에 정착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당장 카드도 못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현금은 가지고 가는게 당연히 좋다. 한국의 카드시스템은 그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옴(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현지에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유럽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바로 그날 계좌완성!이 아니기 때문에(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무리 곧바로 개설한다고 쳐도 최소 1주일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그 1주일간 쓸돈은 마련해둘것.

내 생각에는 넉넉히 2주정도 쓸 돈은 있는게 좋은 것 같다. 나는 환전은 1,000프랑을 해갔다.

#각종약들및생필품

특히 약들은 국내에서 사가는게 훨씬 이득...

▼아래의 포스팅 참고▼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생 상비약 저렴하게 구입하기

유학국가도 다 사람사는 곳이니까, 스위스 가도 있을 약 다 있다는거 알지만 일단 먹던 약 먹던게 ...

[blog.naver.com](#)

생필품도 은근히 작은 것들인데 필수템인 것들

우리나라에서 다이소나 길거리에서 1~2천원하면

사는것들도 은근히 가서 사면 찾기 어렵거나

최소 2~3배 이상 비쌀때가 많으므로

그냥 국내에서 맘 편히 싹 사갑시당ㅋ

#추가수하물및포터서비스신청

이건 당연하게 필요하다면 미리 해야한다.

공항에서 하면 항상 더 비싼 것이 바로 추가수하물.

나는 핀에어사이트에서 추가수하물을 1개 했고

75유로를 추가 결제했다.

▼포터서비스 포스팅은 아래 참조▼

have a time fee of 27.-CHF per started nail hours.

The cost are payable after a service is provided on spot in cash.

If you agree with the service condition above, please reconfirm and we will arrange the service for you.

Kind regards

Fethi M'hedhbi

Disposition CGS

Rama Gezim / M'hedhbi Fethi / De Asis Allen / Hutter

취리히 공항 포터서비스 짐 많을 때 / 유학생 강추

유학 또는 이민을 가는 경우공항에 가져갈 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나 같은 경우는 짐을 투머치로 ...

blog.naver.com

#휴대폰정지또는요금제변경

휴대폰은 정지시켜 놓고 갈수도 있고

요금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건 본인의 선택.

나는 KT알뜰폰이었는데

휴대폰 장기정지시 매월 3,800원 부과,

최소 요금제로 변경시 매월 3,190원 부과여서

그냥 최소 요금제로 변경하고 회선을 살렸다.

그리고 070번호로 착신을 돌려놓음.

착신 서비스는 1,650원이다.

(타통신사 요금은 모르므로 고객센터 전화 ㄱ ㄱ)

070번호로 착신을 돌려놓은 이유는 말툭 때문.

<https://www.isic.co.kr/home/local-benefits.jsp>



국제학생증 ISIC

[국제학생증 ISIC 학생할인정보·항공권·교통패스·보험·다국적투어](http://www.isic.co.kr)

www.isic.co.kr

그럼 말톡어플로 국내에서 쓰던 내 번호로 들어오는
문자나 통화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생증 사이트에 말톡 60분 무료 주어지는게
있어서 가입을 해놓고 왔는데,
이 이후에 계속 사용하려면 한달에 2천원인 듯.

웹발신 문자는 수신이 안된다고 되 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웹발신 카드결제 문자 잘만 수신된다.
인증문자도 수신이 안 된다고 되어있던데,
아직 뭔가 인증 해본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음.

친구들이 그냥 내 원래 쓰던 번호로 전화해도
나는 말톡 어플로 받으면 되니까 그것도 좋다.

#아이핀신청

말톡으로 인증문자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고
아이핀을 미리 신청했다. 아이핀 발급은 무료임.

온라인 가입 등 인증할 필요가 있을 때

아이핀으로 인증하면 됨ㅋ

나는 나이스아이핀에서 진행했고, 어플도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all set해두었다.

NICE아이핀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맵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14-33) NICE평가정보(주) 대표 신희부 | 사업자등록번호 116-81-15020 통신판매업신고 제 2007-05725호 | 고객센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3층 NICE평가정보(주) 고객센터 Tel: 1600-1522 | E-mail: niceipin_privacy@nice.co.kr Copyright ©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
www.niceipin.co.kr

#스케일링

1년에 1회 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 비용 지원해주는

그걸 놓치고 갈 수 없지 ㅋㅋㅋㅋㅋㅋㅋ

출국 전날에 깔끔히 스케일링을 했다.

#숙소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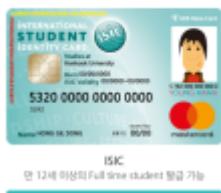
학생숙소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가서 최소 며칠간 묵을 곳은 예약 필수.

#국제학생증

▼아래의 포스팅 참고▼

국제학생증·국제교사증·국제청소년증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국제학생증](#)

[유학을 간다 = 국제학생이 된다! 난 인튜이션 슈튜던트라구 그로 국제학생증 발급...](#)

[blog.naver.com](#)

이 외에도 더 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이만 마무리하고 더 기억나면 추가하겠음 :)

+++ 추가

#각종서류들(영문)

비자 신청시 사용했던 서류들, 재정증빙 여러장,
보험증서(영문) 여러장, 학교 합격증명서 여러장
여권사본 여러장 등을 나는 열심히 쟁여서 갔고
다 쟁여오길 정말 잘했다.
중요서류라 이건 백팩에 메고왔고, 좀 무겁긴 해도
일부러 첫 1~2주간은 계속 이고지고 다녔다.
뭐 신청할 때마다 진짜 계속 필요함... 특히 초기 정착시.

여기서 copy shop 찾아서 일일이 인쇄하고 하려면
아직 학생증도 안나온 상태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일.
미리 하고 오는게 100만배 수월하다.

취리히 공항 포터서비스 짐 많을 때 / 유학생 강추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9 01:38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74079748>

유학 또는 이민을 가는 경우

공항에 가져갈 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나 같은 경우는 짐을 투머치로 싸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내 몸무게의 두배가까이 짊어지고 갔다ㅋㅋㅋ
그리고 후회는 커녕 더 가져올 걸 생각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민가방 2개 + 28인치 캐리어 1개 +
스포츠백 1개 + 백팩 1개해서 총 80kg가 넘었고
일단 짐을 고는건 고사하고
카트에 싣는 것부터가 무리데스...

인천공항을 갈 때는 가족들이 배웅나오고
같이 옮겨주고 카트 끌어주고 하니까
괜찮다지만 유학국가에 도착해서는?

그래서 공항 포터서비스를 신청했다.
포터서비스 = 공항내 짐날라주는분 고용
[x Formular A Arrival - CGS Customer Ground Service Ltd.](#)

www.cgs-ltd.com

취리히 공항 포터서비스 신청 사이트.

스위스의 미친 물가 대비해서는
저렴하길래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품을 작성하면된다.
금액도 해당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음.
최소 이틀전인가? 신청해야되는걸로 기억함.

나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갈 예정이었으므로
신청시에 출발지를 배기지클레임,
도착지를 드롭오프존(택시승강장)으로 했다.

총 가방 3개까지는 25프랑으로 고정이므로
난 이민가방2개랑 캐리어1개 옮겨달라고함.
(가방 무게는 상관없음)

그럼 이런식으로 메일로 회신이 온다.

Good day,

You are welcom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quest.

We gladly confirm the booking of this portage service 26.08.2020. Our staff is going to wait at 18:20 o'clock after the plains arrival next to the specific baggage belt with a name tag and assist you to the Taxi.

The service will cost CHF 25.- for 1-3 pieces, CHF 5.00 for each additional piece with a service time of maximum 30 minutes. If a service takes notable longer than 30min, we have a time fee of 27.-CHF per started half hours.

The cost are payable after a service is provided on spot in cash.

If you agree with the service condition above, please reconfirm and we will arrange the service for you.

Kind regards

Fethi M'hedhbi

Disposition CGS

Rama Gezim / M'hedhbi Fethi / De Asis Allen / Hutter
Cyrill / Kabashi Nazmi / Weiss Patrick / Keller Jonathan
Terminal & Newspaper Services

CGS Customer Ground Servic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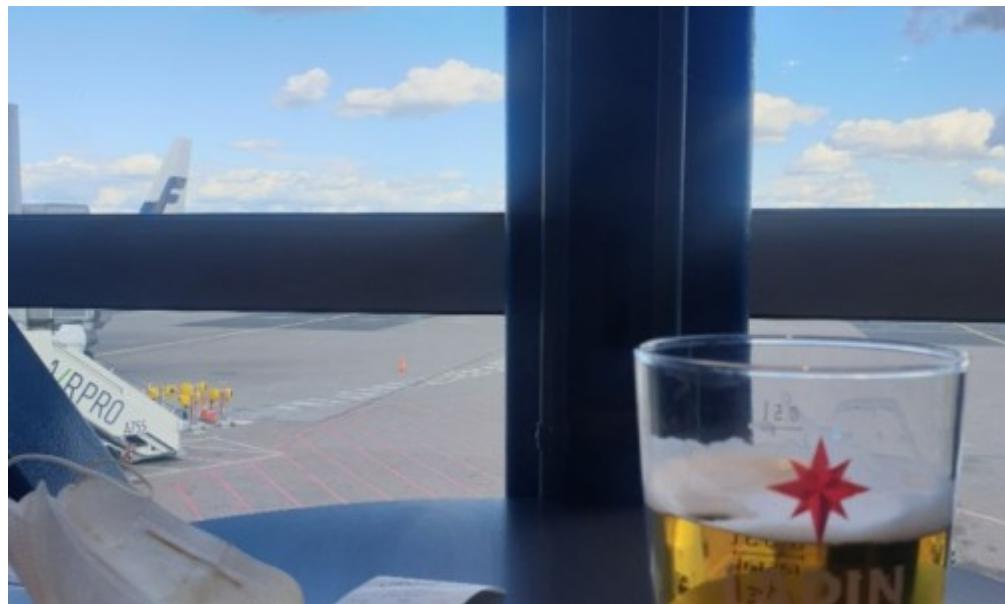
Operation Center 3 / P.O. Box 37

CH - 8058 Zurich-Airport

3개 이상부터는 가방 1개당 5프랑이고
만약 포터를 30분초과해서 고용하면
초과한 만큼 추가요금 내야됨.

배기지를 레임부터 택시승강장은 정상적으로
왔을 때 절대 30분 초과할 수 없는 구조인데
나는 미싱러기지 있어서 문제발생으로ㅠㅠ
약간 초과요금이 나오긴 했다.

(직전 포스팅 참고)



스위스 첫날부터 난리남

2020년 8월 26일 내가 떠들어대던 스위스 온날수많은 난리가 남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일단 우리...
m.blog.naver.com

취리히 공항이 많이 큰 편은 아니어서 충분히
본인이 카트에 올릴 수만 있다면 별 상관없다.
나는 각 25kg짜리 가방들을 레일에서 꺼내서
카트에 혼자 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ㅋㅋ
만족스러웠던 포터서비스였다.

포터들은 당연히 공항이 빠삭하므로
이런저런거 다 물어봐도 되서 편하긴 했다.

내가 유심살거라고 하니
유심사는 곳까지 다 데려다줌ㅎㅎㅎ

우버를 탈거라 우버탑승장으로 가주세요하면
체크인2 밖으로 같이 가준다.
우버기사님이 짐 싣어주고 내려주고
하시기 때문에 숙소가서만 조금 고생하면 됨.

택시비가 진심 넘사벽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학교의 다른 픽업서비스가격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비교해볼 것!

심신 안정 도모법 끝.

전 대단하지 않고 취약해요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5 09:24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70162030>

최근의 유학결정으로 인해서

대단하다고 얘기해주는 주변 사람들, 블로그 이웃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대단해서가 아니고
역으로 제 자신이 매우 취약하고 보잘것 없어서입니다.

제 자신이 현실에서 온전히 충만했다면 살아온
모습대로 쭉 살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전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기 때문이겠죠.
취약한 상태였어요.

지금 불안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저를 보면서 힘내세요. 저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해요.
저 지금 너무 불안이 뻔쳐서(스위스 D-1)
제 불안을 잠재우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 불안이 그 당시에는 힘든데
지나고보면 저의 원동력이긴 했더라구요.

직장인 유학생의 영어공부법(광고아님, 내돈내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4 13:06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9317285>

직장인 = 영어가 숙명같은 사람

유학생 = 영어 못하면 힘든 사람

두가지 모두에 포함되는 나는

(직장인 7년차, 곧 스위스 유학생)

영어 잘 못해서 개 큰일남.

이제 난 죽었따ㅋ

게다가 난 게을러서 영어를 [공부]로 하는게 싫어...

나의 장점은 외국생활을 한 적은 1도 없지만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쑥스러움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외국인 전남친과 94% 이상 영어로 대화했는데

쑥스러워하면 이상하니까... + 5%의 중국어 +1%의 한국어)

그것과 별개로 그냥 실력이 좀 별로다.

아이엘츠? 이런것들 다 필요없다.

그건 내가 영어 1도 못하는데 가겠다고 설치는

붕딱은 아닙니다 /// 정도를 보여주는 수준이었다구...

가서 수업들어야 된다규ㅠㅠㅠㅠㅠ

몇 번 인터뷰 겪으면서 느낀건데

스위스 사람들 영어 그냥 그렇더라... 이건 큰일임.

왜냐면 그나마 영어로라도 의사소통을 해야하는데요

둘중의 하나라도 굉장히 잘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ㅋㅋㅋㅋㅋㅋㅋ
둘다 그저 그러면 서로 혀소리하는거oㅈ?oㅇㅈ

▼내가 생각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 예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어 헤잌ㅋㅋㅋ 런 어웨잌ㅋㅋㅋㅋㅋㅋㅋ
논리력 + 적확성 + 판단력 오짐



존나분하네 ㅋㅋㅋㅋ 유학생인데 여기 어떤 프랑스새기가 비꼬면서 한국인 비웃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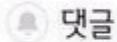


환멸에극혐

13:53 · 207

25

ㅅㅂ한국인들은 도대체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핑키표정 지으면서 지친구들이랑 빠개는거야
근데내가 아직 영어는 잘못해서 논리적으로 말못해ㅠ
그래서ㅋㅋㅋ걔가 약간 탈모잇단말이야?ㅠ
그래서 유어마인드 디스커스팅 쏘 유어 헤어 런 어웨이
비커즈 유어헤어 헤이트 유어해드 ㅋㅋㅋㅋㅅㅂ
낫띵 스테이 유어헤드 이븐 브레인
이랬는데 십새기가 썩씩거리면서 갔는데 낼 어떡하지 ㅋㅋ
ㅋ낼 또 얼굴봐야하



댓글



댓글 전체보기

에에에에웨이러미닛

13:56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유어 헤어 헤이트 유어 헤어래 시바 조나오거뉴

댓글쓰기

댓글 25

URL



나는 생각을 하고나서 말하는게 아니고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막 돌리는 타입이다보니

중간에 보카가 막히면 말도 막혀버림.

어휘를 아는데 말로 안 나와요... 가 아니라

어휘를 진짜로 몰라 가지고 말로 안 나와요.

그 와중에 눈치는 100단이어 가지고

영어랑 중국어 둘다 리스닝만 오지게 잘함...

그게 또 100% 알아 듣는게 아니고
한 84% 알아듣고 나머지 16% 때려맞춤ㅋ

중국어 학원 다닐 때 중국어 쌤이 하루는
현대차 공장설비랑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고 질문에 척척 대답했더니
학생들 앞에서 내가 정말 리스닝 잘한다고 칭찬하심...
아니... 눈치로 다 알아들은거예요...

영어는 레벨테스트만 봤다하면 최고점수를 받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다 알아듣는척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의 스피킹과 리스닝은 약간 괴리를 보여서
다 잘 알아듣고 대답은 거지같이 하는 행보를 보임.

그래서 걱정된 나머지 내가 떠벌떠벌 할 수 있는
영어공부법을 찾기 시작....
주변인에게 물어보고 전화영어를 시작함.

내가 이 포스팅을 따로 떼서 작성하는 이유는,
난 이 업체랑 1도 관련이 없고 내 블로그는 홍보블로그도 아니고
광고비나 그와 비스무리를 받은 것도 진심 1도 없지만(좀 줘라줘)
이 내용이 일상글에 있기 때문에 검색으로 유입이 어려움...
그래서 검색으로 유입들어올 수 있게 따로 포스팅 합니다.
좋은 전화영어라 진심 추천하고 싶거든영

내 생애 최초로 [내돈내산] 전화영어를 시도.
짐잉글리쉬(JimEnglish)라는 곳.

<https://www.jimenglish.co.kr/>



240,000원
한 선생님입니다.



www.jimenglish.co.kr

30분 수업, 1시간 수업 / 매일반 또는 주말반 뿐이고
다른 전화영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
수업이나 격일반은 아예 없다. 빽센 전화영어인데
난 이게 좋아서 선택. 가격도 저렴함.
홈페이지에 가격 다 나와있으므로 참고.

30분간 레벨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놀랐던건,
레벨테스트를 요청하고 첫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Jim이라는 분이 대표님이신거 같은데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도 하고, 이 분이랑만 30분을 통화한듯.
나에게 가장 맞는 선생님을 찾아주시고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셨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세히 알려주셨다.

내가 지금 유학을 가야한다고 얘기했다고 치면 어느
전공인지 어느 국가인지 물어보시고 최대한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는 선생님을 찾아주시려고 엄청 애쓰셨다.

와우. 전화영어 상담하는 매 고객마다 이렇게 한다면
장난 아닐텐데???... 진심 열정 짤으심ㅋㅋㅋㅋ

나도 모든 일을 저렇게 해야할텐데 느끼게 해주신 분.

전화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알게됨ㅋㅋㅋ



LEVEL TEST REPORT

STUDENT'S NAME		DATE	July 7, 2020
LEVEL	Advance	TEACHER	
BOOK RECOMMENDATION	Free Talking	TIME	10:40~11:10 PM
REASON/S FOR STUDYING ENGLISH	For studying abroad and travelling.		

ASSESSMENT

COMPREHENSION

Remarks

She can easily understand complicated sentences. She is attentive and able to respond well to questions.

SPEAKING

Remarks

She can express her thought with confidence and without buckles.

FLUENCY

Remarks

She's able to express her thoughts simultaneously and clearly...

VOCABULARY

Remarks

She has a wide range of vocabulary. However, she needs to expand her vocabulary more, from the easy ones she knows to more difficult ones...

GRAMMAR

Remarks

She's able to deliver a clear idea with her sentences. The words in the sentences are in order and she's able to follow the rules in grammar well. However, there is still some space for improvement..



레벨테스트를 보고나서 이렇게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역시 난 보카가 부족해서 말문이 막히는 타입이구나.

나는 레벨테스트 봤던 선생님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한번 바꾸었다. 나는 다정다감하거나 막
 잘했다고 칭찬하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임. 좀 블랙유머도 하고 Giggle거리고
 비판어조도 잘하는 그런 좀 생활에서 자주 볼법한
 사람이 죄음ㅋㅋㅋ 내 전화영어 쌤은 Aldin쌤이고
 나랑 동갑이고 남자쌤이신데 발음이나 유창성 넘사.

나는 내가 틀린표현으로 말을 하거나
 더 나은 표현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속 코렉션 해주시라고 요청을 미리 했두었다.

매일 내가 데일리 리포트 들어가서 주요표현이나
 코렉션 받은 것들 살펴볼 수 있어서 좋다.

월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 23:20~00:20 Aldin  Daily Report	4 * 23:20~00:20 Aldin  Daily Report	5 * 23:20~00:20 Aldin  Daily Report	6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7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8
9	10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1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2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3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4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5
16	17 <i>Temporary National Holiday</i>	18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19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20 * 23:20~23:50 Aldin  Daily Report	21 <i>Ninoy Aquino Day</i>	22

전화영어 내돈내산 인증 필수! 진심으로 내가
 내 카드로 할인 1도 없이 전체금액 결제했음!...

| 나의 강의실

[학습 스케줄](#)[레벨테스트 결과](#)[쿠폰/포인트 내역](#)[결제내역](#)[수강연기신청](#)[출석확인](#)

- 쿠폰/포인트를 사용한 신청중 미결제 건은 취소해 주시면 쿠폰/포인트를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주문번호 /신청일	구분 /내역	결제금액	결제일 /시작일
L0007443 2020.08.02	[1:1 영어] 주중 30분 수업 20회	105,000원	신용카드 서버
L0006684 2020.07.08	[1:1 영어] 주중 60분 수업 20회	200,000원	신용카드 서버

난 평일 매일반 1시간짜리 수업을 한달 진행했고,
하다보니 꽤나 괜찮아서 8월에도 계속 해왔다.
8월은 유학준비 때문에 정신없을까봐 30분 수업으로
변경해서 8월 20일까지 했고, 출국전까지 쉬는 중이다.
스위스 가서도 특별한 변동 없는 이상
도착 후에 시간만 조정해서 그냥 계속 하기로 했다.

+++ 대박 사건 있었음 +++

짐잉글리쉬에서 매달 장학금 게임이라고
한달치 공짜 수강 주는거 있는데ㅋㅋㅋㅋ
www.jimenglish.co.kr
나 1등 됨.... 대박 사건....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신나게요

이번 달 로또 당첨번호는 2, 6, 13, 17, 27, 43이고 그 곱한 값은 3,078,972입니다.

그러므로

jimenglishjim

1등은 imyourbest(3,000,000) 님이 하셨고,

2등은 kmj3894(4,733,400) 님이 하셨고,

3등은 hahahoho23(6,082,560) 님이 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리고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n

imyourbest

우왕 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겠습니다!!! :)

나 이 때 너무 신났음ㅋㅋㅋㅋ 아 진짜 쌘뻑ㅋ개신나

오후 2:36

난 쌘뻑이 있어ㅋ



말썽쟁이 네오

慊뻑이 뭐야ㅋㅋ

오후 2:36



엄지척 제이지

慊뻑이 o 뭐야ㅋ

오후 2:38

慊뻑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관심있는 분 있다면 짐잉글리쉬 전화영어

수강신청 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 imyourbest 기입!

적으시는 분 하루 수업 공짜로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사람들의 반응? 말말말...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3 13:13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8428290>

주변인들의 반응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생각보다

"나 유학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다양했고 재밌었다.

왜냐면 나같은 경우는 정말...

토종 한국인... 내가 여러번 얘기했듯이
한국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물흐르듯 취업하여
대기업에 무난하게 다니던 7년차 대리...

그래서인지 다들 윙? 스러웠나봄 ㅋ

- 친구들의 경우 -

TOP1 가장 많은 반응

"너 가면 언제와...? ㅠㅠ 얼마나 있엉?"

"왜 벌써 갈 날짜가 다가와?"

진짜 벌써 갈때 되가네 ㅜㅜ 진짜
빠르다

오전 10:11



마이크를 든 라이언

그니까

왜케 빠르나

오전 10:12

TOP2 두번째 반응

"스위스 많이 비싸지? (걱정)"

"가족들 반응은? 강아지는? (걱정)"

TOP3 세번째 반응

"도와줄거 없어?" "너 이거 혹시 필요하나?"

"마스크 스위스로 보내줄게"

인맥과 친구의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경험이었다.

친구들은 진심[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해주는구나.

내가 이거 줄까? 이거 보내줄게,

준비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는 친구,

각잡고 카레만들기 미역국만들기 가르쳐주는 친구,

날짜 다가올 수록 자기가 더 신경쓰여서

걱정하는 친구 등등 ㅋㅋㅋㅋㅋㅋ

- 직장사람들의 경우 -

(동료아님. 난 그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아.)

TOP1 가장 많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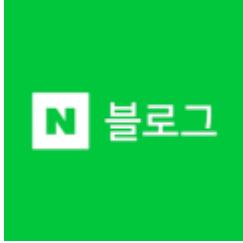
"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난 왜인지 모르겠는게 이게 자꾸
왜 그런 결정을 했어?로 들림ㅋㅋㅋㅋ
내가 회사 싫어서 꼬인걸 수 있지만,
경험에서 축적된 것이기도 하다ㅋㅋㅋ

두번째 반응

"회사는 어쩌고?" "퇴사해?"

▼ 관련포스팅 ▼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회사는 어쩌고?

유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크리티컬한 이슈였던 oh 회 to the 사 oh보시다시피...

blog.naver.com

TOP3 세번째 반응

"가서 중국 부자 만나서 전용기 보내줘"

개인적으로 회사사람들의 반응은 뭐랄까 모른게
항상 [돈]이라는 주제를 깔고 말하는 기분이었다.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건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더 벌려고 스펙업을
하려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차있는게 언제나 돈돈돈이어서
어떤 말을 해도 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인듯하다.

기분나쁘다기보다는 뭔가 혼자... 속으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성향이 이렇게 굳어졌다는 걸
알고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뭔가 이런 감정을 겪을 때마다
가서 재밌게 지내야지! 했던 마음도

다시 현실화되는 그 기분 뭔가 그게 싫었어

아, 그리고 논외로,

"나도 가고 싶다"하는 반응도 많았다.

음... 가세요!

- 직장친구들의 경우 -

직장에도 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주는

내가 기댈수 있는 친한 사람들 몇은 있었기 때문에.

예를들면 HJ, SB, SH, JY... 보고있나?ㅋㅋㅋ

특히 다들 언니나 오빠들인데 내가 워낙 덤벙이라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니 오빠들이

되버린듯하다...ㅠ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OP1 가장 많은 반응

"뭐 필요해? 이거이거 줄게"

"OO(나의 애칭) 이거 필요해?"

"이거 유학생들한테 좋대"

TOP2 두번째 반응

"너 가면 누구랑 놀아"

+ 회사욕 첨가

TOP3 세번째 반응

"너는 역시(짱짱하는 손모양)"

수많은 친구들이

필요한 제품들도 알려주고...

스위스 다녀온 사람 연결도 시켜주고...

나 필요할까봐 맨날 내 자리로 갖다주고...

직접 찾은 링크/정보 열심히 공유해주고...

그게 작든 크든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그들에게 진짜로 고맙다.

난 성격이 둥글하지 않고 짜증도 좀 잘 내는데다가
두루두루 사귀는거 잘 못하고 홀로의 시간을
즐기는 타입... 혼자 생각도 많고 수틀리면 바로 땅.
이런 ugly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꽤 친구들 잘 사귄거 같아 ㅋㅋㅋㅋ

심지어 8월중에는 내가 준비하느라 멘탈 터지는 중이라
만나기 어렵다고 만남을 거절했더니
보겠다고 집근처까지 찾아온 나의 동기들...
(회사에서 집까지 지하철 19정거장...!)

너무너무 고맙다 ㅠㅠ

물론 좀 이상한 반응들도 있었다.
비난하는 말을 한다는게 아니라 ㅋㅋ
뭐랄까... 굳이 안해도 되는말을
하는사람이 너무*100 많았음.

그런거 알음? 수년간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돌려서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깎아내리고는 싶고. 이런 류의 말? ㅋㅋㅋ
아무래도 같은 성인니까 무조건 나쁜 말은 안하지만
행간을 알 것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은 그런 말들 ㅋ

이건 내가 싫어서 깎아내린다기보다는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이어서라는거 난 알고 있어 ㅋ
아 물론 나라고 해서 자존감 높은건 아님.
그러니 이들의 말을 나도 기억하고 있지 ㅋㅋㅋㅋ

실제 질문과 답변을 적어보자면..

Q : "미국이 낫지 않아?" 또는 "왜 미국안가고?"

A : 우리 회사 연봉 낮아서 돈 못 모아서 미국 못가^^!

(넌 그 상황 속에 계속 있을거니???라고 알아들어라ㅋ)

Q : "가서 꼭 잘하구 연봉 1억씩 받으면서 취업해"

A : ㅋㅋ꼭 다들 자기가 못하는거 나한테 강요하더라구^^

(하면 대답이 ㅋㅋㅋ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걸 보면

내가 꽤 괜찮은 결정을 한거같다.

원래 뭔가 할때 적이 많다는건

내가 그만큼 뭔가 잘했다는거지?

여태 살아오면서 보면 매번 그렇던데.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21 12:56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6751925>

우연하게 옛날 포스팅들을 둘러보다가

2013년도 1월 포스팅을 보고 충격받았다.

보자마자 딱 든 생각.

와 진짜 인생이라는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

<CFA level1 합격수기 포스팅 ? 발췌>

포스팅일자 : 2013년 1월

Multiple Choice

Q#	Topic	Max Pts	<=50%	51%-70%	> 70%
-	Alternative Investments	8	-	-	*
-	Corporate Finance	20	-	-	*
-	Derivatives	12	-	-	*
-	Economics	24	-	-	*
-	Equity Investments	24	-	-	*
-	Ethical & Professional Standards	36	-	*	-
-	Financial Reporting & Analysis	48	-	-	*
-	Fixed Income Investments	28	-	-	*
-	Portfolio Management	12	-	*	-
-	Quantitative Methods	28	-	-	*

2012 CFA lv1 시험후기/합격수기

나 같은 애가 이런거 써도 되남? 저는 공부 중에 힘들면 수기 찾아보면서 위안 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blog.naver.com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은 2013년 12월.

CFA level1을 취득한 그 해 말에 증권사에 입사했다.

합격수기 포스팅 내에 내가 이런 글을 적었었다.

FRA 8월 동안 들었어요 그래도 FRA는 유일하게 동강들으면서 노트정리 시작했다는!
근데 ㅋㅋㅋㅋㅋㅋ 양이 너무 많고, 노트정리가 하도 느린탓에...

Fixed Income강의 다 들어갈 때 FRA 노트정리가 끝났다는 (이게뭐냐? —:::)
아... 정말 CFA 공부의 꽃이죠 FRA...

근데 시험 보면서 멘붕이 많이 왔네요 헷갈리는 거 진짜 시험 때 무지 많습니다...
풀다가 울뻔했어요—

아 참! 그리고 저는 Income Tax 공부를 포기했답니다

아예 안 읽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쓰다보니 포기한거 정말 많군요)

특히 저 노란 부분. 개충격ㅋ

내가 Income Tax(소득세) 공부를 포기했었단다.

심지어 아예 읽지도 않았대... ㅋㅋㅋ

이것만 봐도 내가 세무쪽 파트는

정말 1도 몰랐다는 걸 잘 알수 있는데... ㅋㅋㅋ

응?!?!

내가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해왔는지

아는사람이면 진심 깜놀할 일임 ㅋㅋㅋㅋㅋㅋㅋ

나 재무부서내 세무팀(Tax)인데요...

이사배근연기 소득세 상세히 알고요

주구장창 하던거입니다 ㅋㅋㅋ Income Tax(소득세)

메인담당자만 3년을 했어 심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저 자격증을 공부할 때 머리가 뽀사지도록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울면서
어려워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그 부분.
그 부분을 콕 집어 담당업무를 했다니.

우리회사는 세무사 사무실 끼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질의응대/신고/납부까지 풀세트로 다 했는데요.

ㅋㅋㅋ 와 진짜 나 읽다가 순간 멈칫...ㅋㅋㅋ
내/가/그/때/그/랬/다/고.....?
근데 자격증내에 저 많은 파트중에서
유독 내가 포기했던 이 부분 업무를 했다고...?
이걸 해서 돈을 벌었다고...? 와하핳 ㅋㅋㅋ

내가 저 공부할 당시(2013년)에
재무부서, 세무담당자(2015년)가 될거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이 충격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다짐.

혹시 내가 유학가서 너무너무 공부가 어렵더라도,
길을 구불구불 많이 돌아가게 되더라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좌절하지는 말자.
인생에서 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떤 형태로
보상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다.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구나.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 장땡이다.
그게 내 인생에서 끝은 아니니까.

힘들면 그냥 놔. 놓자.

그 시점에 무언가가 안 되어도 상관없어.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스펙[학부전공편]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8 14:56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3855581>



**University of
Zurich^{UZH}**

학부전공과의 연관성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내 학부전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

헉 정말 멋있으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관심있는 분야긴 한데 문외한이라 ~~ 원래 전공이

전공은 꽤 여러번 적긴 했지만 정리해보자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서 원전공으로

통계학을 전공했다. 부전공은 경영학이다.

내가 갈 취리히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은

MSc in Computer Science 내에 있는

Data science major이다.

Master of Science UZH in Computer Science

For the maste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you can choose a major study program from the following five fields of study:

→ Data science

학부전공이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합격에 영향을

줬냐고 물어본다면... 음, 반반이다.

통계학을 요구하는 학부전공 리스트에 넣어놓은

학교들이 많은데도 왜 반반이냐구?

전공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여태 배워온 과목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학교도 잘 알기 때문에

Course description을 요구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데이터사이언스 학부전공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선수과목이수가 안된 경우라면

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석사 합격 당연히 불가능.

그렇다보니,

오히려 전공요건은 스펙트럼이 넓은 케이스들도 많다.

(경영/경제/물리학 등을 포함시키는 곳도 꽤 봄)

보통 3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수학과목 이수, 통계과목 이수, 컴공과목 이수이다.

Strict하게 각 분야당 최소 몇 학점 이수 - 라고

명시해놓는 곳도 있고, 적당히 감안 해주는 곳도 있다.

의외로 실력이 탄탄한 분들이 오셔서 답변드리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학부 전공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었다. 박사 어드미션과 마찬가지로, 본인 전공에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회귀분석 같은 도구를 배우지 않으면** 경영학과 출신이면 Data Scientist 대신 Data Analyst를 위해서 목표 재설정하고, 코딩치던 개발자면 Data Engineering 하라는 대답을 듣기도 했다.

-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가면 크게 다를까?

별 다를 바 없다.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필자에게 보내주는 숙제들을 보면, 수학과 통계를 이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검색해서 찾아낸 내용들인데

솔직히 무서웡ㅠㅠ 이 분 말하는거는.....

나도 통계학 전공했지만 7년간 상관도 없는 일하면서

다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난단 말이다.....

아마 이 분의 말은 명문대 합격용인가보다 :)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수학전공이면 컴공, 통계 따로 이수

통계전공이면 수학, 컴공 따로 이수

컴공전공이면 수학, 통계 따로 이수.

학점이 된다면 경영과목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결국 이것은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이니까.

경영/경제 전공이라면 대학다니면서 수학과목 이수,

통계과목 이수, 컴공과목 이수를 따로 하면 된다.

수학/통계쪽이 없으면 합격을 하더라도

배워나가기가 꽈꽝 벽차므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수학적으로 훈련된 상태에서 통계학 지식과 결합하고, 그걸 이른바 "빅데이터"에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언급했으니 그냥 용량만 많은 데이터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연히 수학을 배워야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이해하고,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완전 다른 계열 전공자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

2가지가 있다. 상담세션에서 말씀드림 :)

결국 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하이브리드형

인재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어떤 특정 전공을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좋아할 리 없다. 다채로운 당신을 더 좋아할 것이다.

대신에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갈라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채로움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수학점/증명서일 수 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 사회생활 7년이

내 전공과 정말 1도 연관은 없지만

그게 쓸모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회를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할뻔했다.

물론 그 7년간 통계학을 진짜 한톨도 빠짐없이

다 까먹어서 가서 맨땅 헤딩할거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좀 울면서 하지뭐 ㅋㅋㅋㅋㅋ

가서 공부하면서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는,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비용 현실... feat. 미국 대학원(석사) 학비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7 22:03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3256326>

유학비용에 관하여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 예산짜기에 대한 글이 아님.
예산을 짠다는건 최소한 이미 유학에 대해
결심이 들어선 이후고... ㅋㅋㅋㅋㅋㅋ

그 이전에, 솔직히 말해보자면,

인생에서 [유학]이라는걸 생각하려면...
공부/해외생활 등등 다 떠나서,
돈은 어떻게?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니려나.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성적장학금 받으면 되니깐ㅋ"
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돈 진심 너무 크리티컬하다.
(난 1도 능력자에 해당 안되기도 하고)

돈 없으니까 뭐 유학 따위는 생각도 안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없는데 시도해보는 경우는 나처럼....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사람들일 것임.

아무리 내가 큰 꿈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런 꿈은 접는게 빠를수도 있겠지.

돈이 가장 중요한 이유

Q. 유학, 그 돈의 무게에 대해서.

유학은 현실이거든요.

Q. 유학, 그 돈의 무게에 대해서.

121 · 89% 직장인 일자 **유학을 할 수 있다/없다를 판가름 짓는게 돈**

이 분 말씀에 백퍼 공감한다
누군가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유학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저 사람 거렁뱅이는 아니구나. 싶잖아.

특히 유학준비하면서
미국유학생들 관련 글을 볼 때마다
우와 부자다... or 부모가 부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

내가 제대로된 준비를 시작하면서
돈 문제는 더더욱 피부로 와닿았다.

이건 그냥 찐이다.
물론 진심 힘들게 미국 석사 유학간 사람도 있음.
한... 10명중 1명?
미국 학부/석사 유학생이 가난 코스프레 하면
그거는 그거는 음 그 사람이 솔까 기만자인 것...

박사면 모를까 석사는 양 돈내고 다닌 사람이
태반이라는 말이 더 맞다.
이게 미국 대학이 돈 버는 방법이니까.

~~미국 넘흐 비싸요 미국유학생분들~~
~~제발 친하게 지내요 제가 잘 할게요.~~

만약 그 대학원생이 20대 초중반이라면,
부모가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보낸다는건...
(너무 부자여서 1억이 1만원같은 사람 빼면)
솔직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 = 자식이 매우 잘 나감.
을 바라게 되 있다고 본다.
내가 부모여도 난 그럴듯? 속으로는...

아무튼 그런 기대와 후원을 많이 받고 가는
미국 대학원생들과 다르게...
~~나는 온갖 기대를 한몸에 받아도 되니까~~
~~제발 두둑한 통장잔고를 주고 떠나고 싶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밝혔지만 나는
7년간 꾸역꾸역 해온 사회생활로 근근히
근로소득을 모아 유학을 떠난다.

무족권 내돈내산ㅠㅠ

어디선가 툭 떨어지는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투자조차 마이너스의 손인 나에게
그런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유학예산 감당이 되니까
유학간다고 개인파산을 할 지경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버... 낙낙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미국과 영국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단 미국의 경우는 특정 케이스들 아니면
석사는 그냥 다 돈 내고 다녀야 하는데

학비만 일단 1년에 평균 3만달러씩 든다고 한다.

2019/20 Academic year

*U.S. News 2020 Best Engineering Schools 기준

Institution	Out of State (Non-Resident) Tuition
Stanford University	\$54,015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49,508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8,568
Purdue University	\$29,132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34,330
University of Texas-Austin	\$18,942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26,544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34,064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38,466

출처 : 리더스유학

미국 영국 모두 장학금 기회도 당연히 있다.

항상 그 기회가 나에게만 안 올뿐이며,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격이니깐...

거기다가 생활비 무시할 수 없다 ㅜㅜ

생활비까지 합치면 연 1억 가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것 같음.

영국도 내가 mastersportal에서

주구장창 학교 돌려가면서 찾아볼 때 봤을 때

미국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을 뿐,

그래도 평균 원화로 연간 3천만원정도 했다.

그럼 미국이랑 영국만 허벌 비싸네
다른곳으로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학가고 싶은 국가들 중에서는
안 비싼 곳 의외로 별로 없다요 ㅠㅠ
특히 어느 국가 물가가 괜찮다! 해도
당신이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마이 비싸... :)

~~그리고 유학을 생각하는 이상 석사 이상부터는~~
~~동남아같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현저히 낮은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솔직히 잘 없잖아여~~

★ 유학비용과 관련 각종 댓글들...

내가 보려고 언젠가 캡쳐해놨었다.
이 때 아마 돈 때문에 멘탈 터질때였나봄 ㅋ

호주에와서 3년정도 대학생활하면서 느낀건,
1) 돈이없으면 시도조차 안하는게 맞다. (저도
호주 학생비자에서 허용하는 시간동안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지만, 정말
생활비 벌기도 빠듯합니다)
2) 영어가 유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전공과목이던 교양과목이던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던 모든건 영어가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본인이 해당 전공과목에 지식이 아무리 빠삭해도
결국 영어로 표현을 제대로못하면 F받는게
부지기수입니다)
3) 어느정도의 외로움엔 익숙해져야한다 (호주
시드니만 가도 한국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사람들이랑 호주에서 어울릴바엔 그냥
호주유학을 안오는게 낫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죠 뭐하러 비싼돈내고 호주에서
그리겠습니까. 물론 어느정도 한국인과의 교류는
필요하다 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수준으로는 말이죠)

나는 비교적 학비 싼 주립 다녔는데도 1년에 학비만
4천 정도였어. 동생이랑 같이 다녔는데 아빠 말로는
우리가 1년에 2억 넘게 썼다 함. 돈없이 유학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끝맺음하긴 어려움.

그래서 나는 취업하고 4년 정도 일하고 모은 돈 500 0만원 들고서 프랑스에 2년 좀 안되게 있다 왔어. 집에서 해줄 여력은 없어서.. 내가 벌어서 갔고 미국이랑 영국은 5000만 원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탈리아랑 프랑스 고민하다가 학비가 좀 더 싸고 정부 보조금 나오는 프랑스 선택함. 나는 전문 사립학교 단기과정 있었어서 학비는 더 비싸고 유학 기간은 짧았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처럼 사춘기부터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던 친구들은 많이 알아보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별건 없지만 내 인생이 꽤 달라졌어 처음 프랑스 나갈 때 내가 결국엔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은 두고두고 잊지 못해.

돈이 없다면 맨 위의 글처럼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는게 더 맞는 것 같다.
본인의 멘탈을 위해서 그게 좋음.

아니면 진짜 확고하게
유학 가서 이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플랜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가야한다.
유학을 가야만 하는 플랜이라면.

그럼 나는? 돈도 없고 플랜도 없다.
막가파임. 스트레스에 취약한 자,
나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오.
본인이 돈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스위스(취리히)로 가는데,
여기는 공립학교들 학비가 많이 저렴하다.
주로 1년에 200만원 정도.
다만 이게 전혀 다행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미친 생활비를 끗끗이 자랑하기 때문에
유학 비용 준비는 너무 중요했다.

학비가 싸서 다행이야! 가 아니라
학비까지 있었으면 여긴 진심 못간다.
이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듬.

+)
+) 현재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한지 3년차가 된
시점이라 대략적인 지출이 전부 파악된 상태임!
이에 따라 본 포스팅의 결론을 업데이트합니다.
(2023.01.09)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1년 총 비용(등록금 포함) ≤ 미국 한 학기 등록금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생 상비약 저렴하게 구입하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6 12:5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2057373>



**University of
Zurich^{UZH}**

유학생 상비약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국가도 다 사람사는 곳이니까,
스위스 가도 있을 약 다 있다는거 알지만
일단 먹던 약 먹던게 좋기도 하고...
아파서 다 짜증나는 마당에
영어로 내 증상 설명하고 약 받아오는
상상을 하니 너무너무 싫어서
약을 우루루 구입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상비약은
바로바로 이것이다.



왜 뭐 왜 뭐

중요한거 맞잖아

그리고 빨리 나아(우기기)

특히 멘탈회복에 효과 만점! ㅋㅋ

멘탈이 아프면 위의 약을 드십시오.

맥주가 땡기는 날씨라 상비약 늘어놓고

일단 맥주한캔 땄다 ㅋㅋㅋㅋㅋ

제가 구입한 상비약들은 영상에서! ▼

해외 나가서 다친 경력(?)도 많고

거의 변비를 달고 있는 탓에

관련 경험을 떠올려보면서 구입했다.

어디서 사야 저렴한지,
어떻게 33%나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궁금하면 영상 봐두세염!

유학러, 이민러에게 강추합니다.

그리고 꼭 장기로 해외에 가시는거 아니더라도
요정도 약은 집에 상비해두면 좋겠다 싶은 분들
전부 여기 가십시오.
초저렴 보증합니다 ㅋㅋㅋㅋㅋ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비자 발급 완료!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5 10:48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1225640>



**University of
Zurich^{UZH}**

유학생 비자 발급 완료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 비자 신청 및 비자 서류 준비/인터뷰 포스팅 ▼



[스위스 석사 유학 VISA interview 비자면접, 빠...꾸 먹을뻔...?](#)

[University of Zurich\(UZH\)에서 합격발표한 날짜는 5월 14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

[blog.naver.com](#)

7월 8일 - 비자 신청 및 비자 인터뷰

8월 12일 - 비자 발급 완료

스위스 유학생 Type-D 비자 발급은

이렇게 딱 5주 소요되었다.(개인차 있음)

★ 여기서 갑분 많이 받았던 질문 추가 ★

재정증빙서류 제출시, 스위스에 존재하는

외국은행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까?

(예: 씨티은행)

답은 아니오.

저는 신한은행 제출했어요.

아무 문제없이 비자 발급되었습니다.

발급은 문자나 이메일 통보 따위 없다. 무조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발급 되기까지 일주일에 한번씩은

스위스 대사관에 전화한듯하다ㅋㅋㅋ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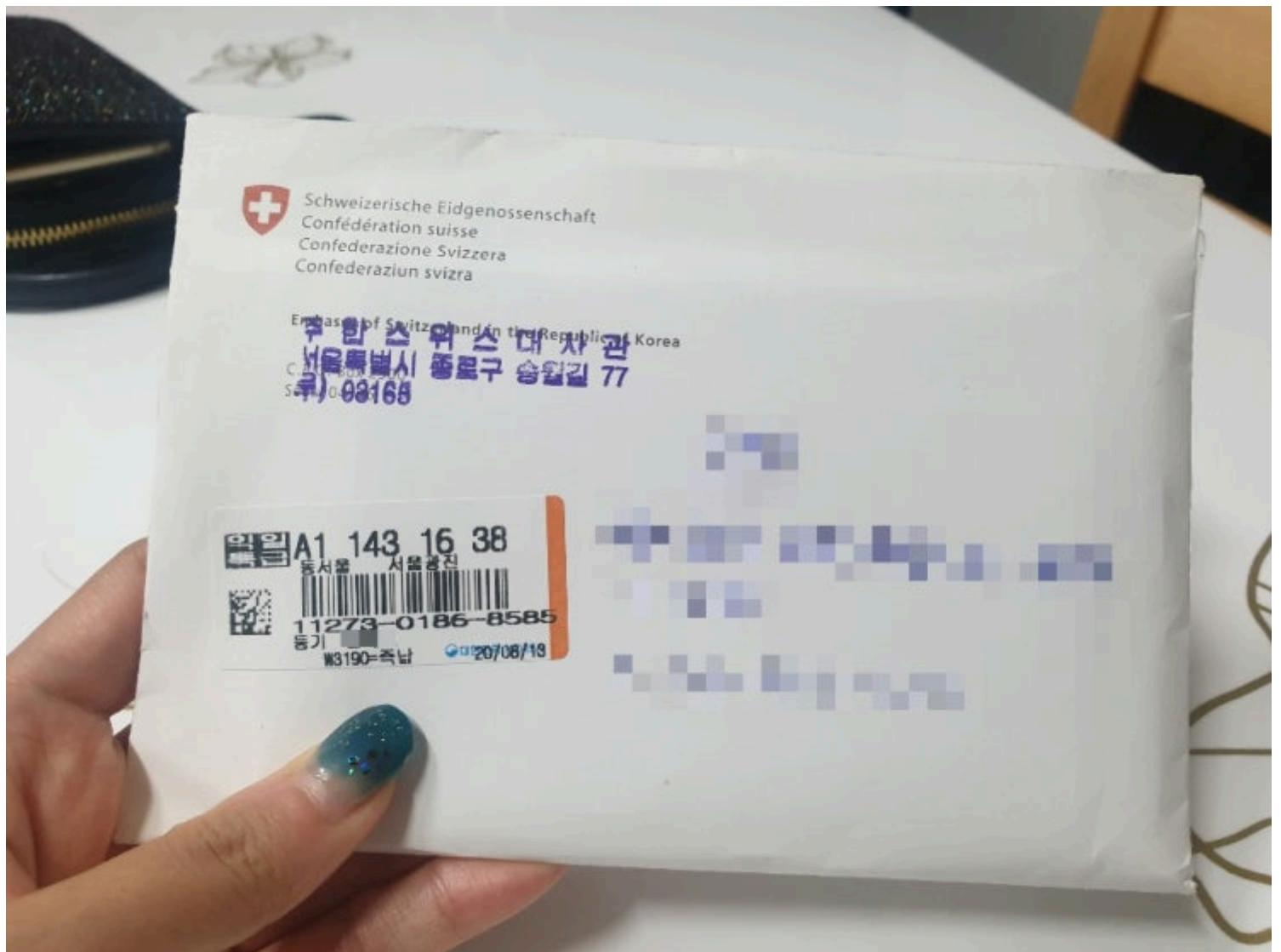
그 다음날(8/13)오전 스위스 대사관을 방문했다.

준비물은 여권과 현금 5천원(등기발송비용).

여권실물을 대사관에 제출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하게 된다.

라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8/14) 아침에 받은거 실화?

아침에 한참 자고 있는데 등기가 와서 놀랐고,

그게 스위스 대사관이어서 더 놀랐다.

뭐 잘못되어서 이렇게 빨리 보냈나?

싶어서 허둥지둥 봉투를 열어봤는데,

KO
VISAS

Visa issued by the Embassy is an **entry visa** for your entry to Switzerland.
Please register at the immigration office of your residence within 14 days of arrival and apply for residence permit card for your stay in Switzerland.

Wish you all the best in Switzerland!



Wish you all the best in Switzerland!

를 보고 안도의 한숨ㅋㅋㅋㅋㅋ

누군가가 나에게 Visa Authorization은
학교한테 문의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뭐여?!?!

그래서 학교에게 바로 질문함.
Authorization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 있던 중에 학교가

메일 내에 이런 말을 적어서 ㅠㅠ 불안해졌다.

IMPORTANT: if you do not receive your visa in time, you will not be able to enter Switzerland on August 26.

혼자 뭔 문제는 없겠지 아닐거야 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알고보니.... 학교가 내 메일 제대로 안 읽고
비자 신청이 7월 8일이 아니라
입학 지원을 7월 8일에 했다고 생각함.
그래서 저렇게 협박(?) 문구를 같이 넣은것.
아니 저기요..... —

incoming@int.uzh.ch

나에게 ▾

文 A 언어 감지 ▾ > 한국어 ▾ 메일 번역

Dear ...

My apologies, I misread the date in your earlier and

내 메일 잘 좀 읽어줫

취리히 대학교가 이민국에 연락해서
내 비자 상태를 문의했고 그곳에서
승인완료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었다.

나는 내가 신청한 Visa가 있는데...

학교가 진행하는 Visa Authorization는 또 뭔지
모르겠어서 스위스대사관에 전화함.
"학교가 내 Visa 지네가 받겠다는데
난 내가 받고 싶은데 어케야함 ㅠㅠ"

대사관에서는 학교에서 한건 Visa Authorization이라
본인은 알아서 비자 수령진행하려 대사관 오시면 된다함.
뭐랴??? 여전히 잘 이해안감???
나의 이해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어떻게 다른지 개궁금... 구글링.
스위스 대사관에 관련 정보가 있었다.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해서 ㅈㅅ 완전 쓸애고 핑프였음.

[Authorized Visa](#)

www.eda.admin.ch

Visa for which an authorization has been given directly in Switzerland

If your employer/school/family member has applied for your permit in Switzerland and it has been granted, you must still apply for an entry visa with the competent Swiss representation abroad.

학교가 내 스위스 체류를 직접 신청하고 허가받는 게
Visa Authorization인 것 아항아항
글구 내가 신청해서 받은 비자는 Entry Visa 인 것.

입국 후 14일 내에 이민국사무소에 가서
Residence permit을 받으라고 되어있었다.
그럼 Authorization이 있으면 Residence permit도
안해도 되는건가? 또 다른 의문 생김 ㅋㅋㅋㅋ
Residence는거주관련 내용이니 해야겠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제가 유학 도와드릴게요! [유학 상담소]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4 16:19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60601671>

안녕하세요 반말로 포스팅하다가
존댓말 하려니까 이상한 초코빵입니다.

블로그에 지금까지 저의 유학 준비과정을
차근히 올려왔는데요 :D
당연히 다 못다한 이야기도 한트럭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는
전부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인이면서 홀로 유럽 석사 준비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여기 속한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ㅋㅋㅋㅋㅋ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유럽 유학이요, 영국제외하고 유학원 찾기 어려워요...
게다가 유학원비용 오지게 비쌈 ——
그리고 네이버에는 정보 뭐 진짜 없고ㅠㅠ
구글은 뭐 하나 검색할때마다 광고밭입니다...ㅇ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

저도 해봤으니까요!!!

저랑 이야기해여!!!

(참고) 초코빵이 석사 유학 합격한 학교들

UiT The arctic university (Norway)

Padua university (Italy)

KU Leuven (Belgium)

NOVA IMS (Portugal)

Eindhoven university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Netherlands)

University of Zurich (Switzerland)

<상담시 특히 심신안정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유학 관련]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 집중

1. 유학 가고 싶어요, 멘탈관리! ★★★★★
2. 직장인인데... 시간 없어요ㅠㅠ ★★★★★
3. 30대인데 저도 유학가능? ★★★★★
4. 회사 휴직?퇴사? 가능한 옵션? ★★★★★
4. 국가/학교/학과 결정하기! ★★★★★
5. 저 무려! 비전공자! 인데요...데이터사이언스
해볼까요? 유학갈수 있어요?★☆☆☆☆
6. CV? Motivation Letter? 지원서류
복잡하다ㅠㅠ 잘 쓴거 맞나? ★★★★★
7. 비자/숙소/항공권/학생증 준비 포인트!
8. 진짜 이런 짜잘 질문해도 되요? 다 받아드림

[당신의 현재와 미래]

6. 저 뭐하고 살아요 플랜 좀 같이 짜주세요...
7. 증권사 입사, 재무부 업무, 취업 이야기
8. 영어, 중국어 공부 이야기
9. 돈, 재테크 이야기
10. 초코빵 멋있어요 초코빵이랑 얘기할래요(ㅈㅅ)

▼ 상담신청은 여기 ▼

제가 서사 유학 갈 예해요!

여행날짜: 2024년 10월 1일
여행기간: 10일
여행지: 미국 뉴욕
여행 형태: 개인 여행

여행 목표: 학술 여행
여행 일정: 10일
여행 예산: 500만 원

여행 주제: 미국 대학원 학술 여행

여행 일정: 10일
여행 예산: 500만 원

여행 주제: 미국 대학원 학술 여행

유럽 석사 유학 같이해요!

질문지가 다소 깁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중요한 질문들이니, 차분히 답변해주세요^^ 수많은 경험으로 퀄리티 있는 상담을 보장합니다! A session(전체 유학플랜) 상담시간 : 40분 상담금액 : 80,000원 B session(질문 1~2가지) 상담시간 : 20분 상담금액 : 50,000원

docs.google.com

[상담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

- 특정 학교/국가의 지원요건 및 프로세스

이건 저도 100%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마술사가 아니예요 ㅎ ㅎ ㅎ

게다가 같은 학교여도 계속 변동이 있다보니

월하시면 같이 차근히 보면서 도와드릴게요 :)

물론 당연히 제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니예요.
개개인마다 다 질문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니까
제가 100% 소화할 수 있다고 장담도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제 흔들리는 멘탈이라도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내가 지금 뭐 해야 하는지
단계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사람이 정말 컸어요.

진짜 3개월 고민할거를 이틀안에 할 수 있는데...
그 속타는 시간을 보낸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잘아는 누군가가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날텐데...
그 마음에 상담오픈소를 찾아본거예요!

딱딱한 컨설팅이 아니라
친구같은, 누나같은, 언니같은 상담 원하시는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다니는 학교는
UZH(취리히 대학교)이며,
ETH(취리히 연방공대)와 지리적으로는 붙어있으나
서로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최근 ETH 상담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적습니다 :)
ETH를 상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ETH를 다닌다고 오해하시고 교내의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상담들이 들어와서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더라고요 :)
참고하시고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생 항공권 저렴한 가격과 수하물!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12 16:56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58626335>



**University of
Zurich^{UZH}**

유학생 항공권/수하물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생이라고 해서 항공권 별수 있나?

스카이스캐너가서 이리저리 돌려보자~

하면 안된다...ㅋㅋㅋㅋㅋㅋ

다 방법이 있어요 우린 가난한 학생이니깐요

나의 경우에는 취리히대학교 석사과정이므로

스위스 항공권 구입기이고,
스위스는 직항이 없다는 점 일단 참고.

유학생은 편도? 왕복?

인천-취리히 구간을
편도로 끊을지 왕복으로 끊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편도로 결정했다.

일단 왕복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편도 곱하기 2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렴한게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귀국편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알수가 없을뿐더러, 방학이 시작된다고 해도 내가
한국에 오는 일정을 지금 픽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맘편히 깔끔하게 편도로 결정.

가서 1년정도 지내다보면 어느정도 와꾸도 나올테니
왕복항공권을 끊을 기회가 오겠지.

항공권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나?

국제학생증 한국대표부는 키세스(KISES)라는 곳이다.
난 키세스(KISES) 카톡 담당자분에게
항공권 예약과 관련해서 진짜 모든걸 물어봤다.

수하물 규정과 항공사별로 몰랐던 특이사항
(코로나 음성판정지를 제출해야하는 항공사 등)도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수수료, 필요서류 등도 계속 인지시켜주신다.

AirTest

[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s5hb2c.cyberbooking.co.kr

항공권을 국제학생증 사이트에서 끊어야 하는 이유는
티켓가격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로 수하물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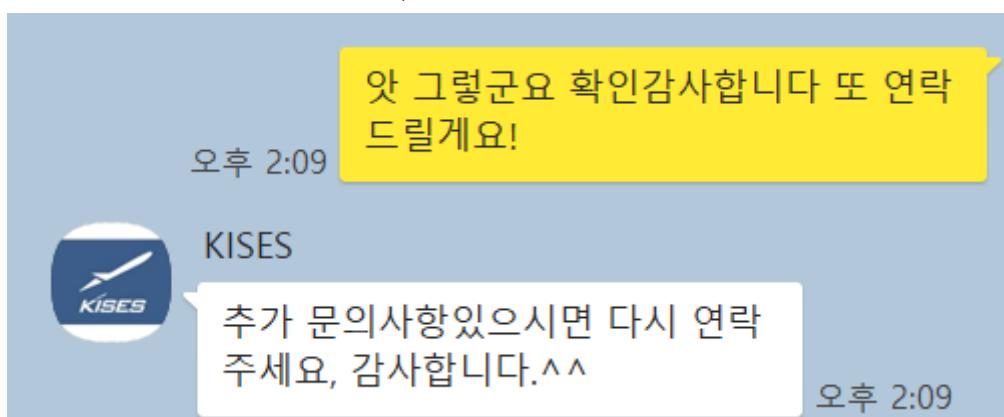
스카이스캐너 돌려보면 저렴한 티켓들은 은근 나온다.
하지만 수하물은 학생요금일 경우와 천지차이이다.

우린 유학을 가야하는 사람이므로
짐을 바리바리 싸간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ㅋ
혹여 바리바리 싸지 않더라도
빡빡한 규정보다 넉넉한 규정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위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냥 구입진행가능한데,
궁금한것들이 생겨서 나는 그냥
KISES 카톡담당자분과 카톡으로 진행했다.

담당자분이랑 직접 하길 잘했다.
아주 깔끔한 진행뿐만 아니라...
좌석 문의, 기내식 문의, 결제카드 문의 등
별별 문의를 다 적극 응대해주셨다 ㅠㅠ ㅋㅋ

항상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셔서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다고여!!! :-)



꼭 연락해서 자잘한 문의 다 하고나서

구입진행합시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저보다 어려서 아주 부러운
만 25세 이하이시라면 학생요금이 아닌
더 저렴한 '유스요금'도 가능하니 이걸로 고고!
(학생요금은 만 34세까지 가능함)

내가 구입한 유학생 스위스 항공권은

8월 26일 오전10시 인천(ICN)출발 헬싱키 경유
8월 26일 오후 6시 취리히(ZRH)도착하는
핀에어(Finnair) 편도 항공권을 끊었다.

원래 핀에어 이코노미 클래스는 23kg 위탁수하물 1개
+ 8kg 기내수하물 1개 + 작은물품 1개가능한데,
이코노미 클래스의 학생요금으로 끊게 되면
23kg 위탁수하물을 무려 2개 가져갈 수있게 된다
(기내수하물과 작은물품은 동일)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수하물 규정과 똑같음.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보통 편도가 90만원정도
한다는걸 감안했을때 얼마나 개이득인지 알 수 있다.

내 항공권 가격은 49만원이다ㅋㅋㅋㅋㅋ

• 총액요금 (38)

총액요금	요금조건	규정	경유	기간	운임	좌석
483,400원	유스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493,400원	학생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591,500원	성인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638,000원	성인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649,100원	성인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660,600원	성인	경유	1년	미확정	가능	

• 스케줄

출발	도착	경유	좌석	공통
1여정 08/26(수)	인천 - 취리히			
AY 042편	10:20 18:20	1회 9석	-	
AY 042편	10:20 09:45*	1회 9석	-	

일회성이나구?

아니ㅋ 가서도 계속 학생요금으로 구입 가능하다

하하하ㅋ 학생신분으로 유럽여행 많이 다녀야지!

스위스 갈 때 경유지는 어디로?

맨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스위스는 직항이 없고

전부 경유를 해야하는데, 많이 경유하는 곳이

독일(루프트한자) 중동(에티하드, 카타르항공)

터키(터키항공), 프랑스(에어프랑스), 네덜란드(KLM)

폴란드(LOT), 핀란드(핀에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그들은

비싸서 검색필터에 걸린 적이 없는 애들이라

아예 논외로 하겠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경유지를 선택해도
사실 무방할 것이고 그냥 저렴할 걸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코로나가 있잖아요

※ 현재 2020년 7월, 8월 기준

스위스 입국 - 코로나 관련 ※

저는 여행으로 스위스 가는 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스위스 유학 학생비자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From 20 July 2020: EU and smaller European countries and some third countries:

Algeria (will again be listed as high-risk country from 8 August. Travelers will be subject to entry restrictions)

Andorra

Australia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Georgia

Ireland

Japan

Morocco

Monaco

New Zealand

Rwanda

Romania

San Marino

South Korea

Thailand

Tunisia

Uruguay

Vatican / Holy See

위의 공지 때문에 나는 굉장히 헛갈렸기 때문에 쓰는 글.

한국은 7월 20일부터 Normal Entry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다.

+ 또한 입국시 자가격리도 되지 않는다.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Normal Entry란,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처럼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고, 무조건 비자를 득한 후에 입국해야한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미리 질문을 했었고,
취리히 대학교의 답변 첨부한다▼

While nationals from South Korea may enter Switzerland visa-free as tourists for under 90 days, this does not apply to you: Because you are coming to Zurich to study (>90 days), and you cannot collect your Swiss visa while already in Switzerland, this route will not work. Also, you are not allowed to begin studying on a tourist visa, meaning you will not be able to matriculate at UZH without a valid study permit, which, in turn, means that you may not be able to matriculate in time.

Technically, you do have the option of travelling to Switzerland on a tourist visa and making an appointment in a nearby country to collect your visa from an embassy there. However, while this is of course up to you, I do not recommend this for the following reasons: a. You will only be able to make an appointment at the embassy of your choice once your authorization is ready to be picked up, meaning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in time for matriculation (consider that you must have collected your visa and returned to Switzerland by September 7). b. Given the uncertainty of the situation, I would be extremely cautious in planning cross-border travel at the moment.

<스위스 입국시 경유하지 말기를 추천하는 곳들>

1. 중동 -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를 들고가야한다고
키세스 측에서 답변 받았음. 공식적인 내용을
내가 찾아본것은 아니므로 혹시 아니더라도
중동 코로나 현재 장난 아니다... ㅠㅠ 웬만하면 자제요

2. 독일 - 아래의 스위스 대사관 공지 참고

Traveling to Switzerland

From 20 July 2020,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moved from the list of high-risk countries. Normal entry requirements apply to any persons entering Switzerlan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not permitted to travel to Switzerland via another high-risk country.

Transit in Europe

Germany did not remo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list of high-risk countries. Unless you have a compelling and urgent reason to travel accepted by the German authorities, you might not be able to travel to Switzerland via Germany. Please contact the competent German Embassy [↗](#) for further information.

France and the Netherlands do not apply the same rules. You might also consider flying via Paris or Amsterdam in order to reach Switzerland.

Please find the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normal requirements for entering Switzerland.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normal requirements for entering Switzerland ↗](#)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sult the webpage of the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SEM ↗](#)

요약하자면 독일 경유하지 마라는 의미.

프랑스나 네덜란드 경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봤을 때

프랑스보다는 네덜란드가 훨씬 더 나은 옵션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사관과 통화도 했고,

독일 경유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의 경우에는 핀에어 49만원짜리 티켓말고도
터키항공 무려 43만원 짜리 티켓도 있었다.
하지만 터키 코로나 상태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질문한 결과
헬싱키를 경유하는 핀에어로 최종 결정을 하게되었다.

현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high risk countries로
분류하지 않는 국가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이다.
코로나 관련해서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고 있고
공지사항이 언제 올라 올지 모르니
스위스 대사관 홈페이지는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것이 좋다.

[Entry restrictions for high-risk countries](#)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SEM The Federal Council Department: FDJP Homepage SEM: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Entry restrictions for high-risk countries Languages DE FR IT EN Service navigation Homepage Site map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SEM Search Topics A-Z Topics A-Z Close Keywords...](#)

www.sem.admin.ch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국제학생증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07 17:41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54100743>



**University of
Zurich^{UZH}**

국제학생증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을 간다 = 국제학생이 된다!

난 인튜네셔널 슈튜던트라구

그러므로 국제학생증 발급은 필수다 :)

아 물론 국내대학생들도 모두 발급가능!

"여행의 필수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학생증이란?

세계 어디서든 내가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항공권, 열차티켓, 버스티켓, 숙소 할인,
환전 우대, 현지 박물관 및 유적지 등
관광 명소 무료입장 및 할인,
일반 업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제학생증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다들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은
어디가 얼만큼 할인되느냐! 일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신분증]이라는 단어이다.

즉, 내가 어딜 가서 진짜 여권 훌랑잃어버렸을 때나
여권을 두고왔을 때 이 국제학생증으로
내 신분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내가 나를 증명할 그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
봉착할 수도 있잖아?
(물론 여권이 정말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제외.)
특히 관공업무 같은 업무 처리 시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찌 보면 나의 든든한 지원군 같은 것이
단돈 17,000원에 생기는 셈이다.

꼭 발급해야겠지용

현재 국제학생증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ISIC이고 ISEC이다.

혜택도 너무 다양하고 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찾아보기도 귀찮은거 안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유럽갈거면 ISIC하시고
미국갈거면 ISEC하세요.
그래도 고민된다?
두개 다 발급받아가세요.

나는 이전에 동유럽 여행갈 때 ISIC 국제학생증을
아주 쓸쓸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ISIC 홈페이지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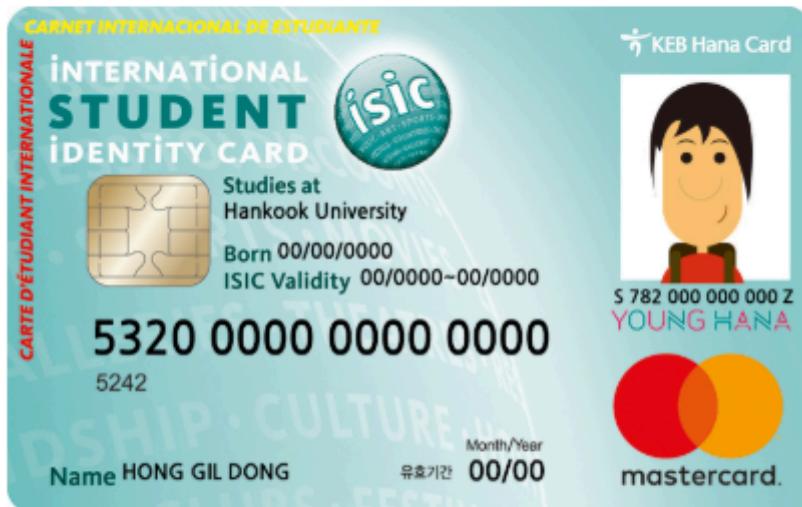
국제학생증 ISIC

국제학생증 ISIC 학생할인정보·항공권·교통패스·보험·다국적투어

www.isic.co.kr

아래의 ISIC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아주 손쉽게 발급신청이 완료된다.

국제학생증·국제교사증·국제청소년증



ISIC

만 12세 이상의 Full time student 발급 가능

ISIC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ISIC카톡채팅 적극 활용필수!

Q. 제가 다니는 대학이 조회가 안되용 ㅠㅠ

나의 경우에는

University of Zurich 취리히대학교가
대학리스트에서 조회가 안되어서 쭈굴거리다가

ISIC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문의를 했는데
바로 학교등록을 완료해주셔서 깜놀했다.
와우내....

Q. 제출할 증빙서류 문의가 있어요.

그리고 증빙서류 부분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일처리 + 극강의 친절함
감동의 쓰나미를 선사받았다.

나는 ---비자는 아직 발급진행중이고
등록금 납부영수증이 없음--- 상태에서
어떤 서류 제출가능한지를 문의 했었다.



ISIC

학교 포털사이트에서 고객님께서 학교에 등록되었다는 화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전 10:01

오 네 일단 최대한 찾아서 캡쳐해서 한번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내드려보겠습니다

오전 10:03



ISIC

네, 포털 캡처 보내주실 때에는 학교명(로고)/성함/등록상태/PC 우측 하단 오늘 날짜 같이 나오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n

오전 10:07

application fee.pdf



유효기간: ~2023.07.31

용량: 53.81KB

저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합격증빙.pdf



유효기간: ~2023.07.31

용량: 19.03KB

저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캡쳐 또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내드리는데,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중에 가

와 정말로

학생 입장에서 최대한 처리 해주려는 자세가

200% 만족스러웠음 따봉

Q. 국제학생증 유효기간 어떻게 설정해요?

국제학생증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고 신청시점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나는 국제학생증 한국대표부 키세스(KISES)를 통해

8월 출발 항공권을 끊었기 때문에

2020.08부터 2021.08으로 설정!

Q. 학생증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이라는건 없고 그냥 다시 1년 신규발급하면 된다.

오전 11:06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ㅠㅠ 유효
기간을 제가 만약에 지금 항공권을
끊고 싶으면 지금부터로 해야하나요?

ISIC

국제학생증이 필요한 항공권이면
탑승일에 유효한 국제학생증 소지
하시면 됩니다.^^\p

오전 11:08

오전 11:10

아 네p 확인감사합니다! 후에 연장을
할 수 있는것이죠?

ISIC

연장도 신규발급 개념이랑 같아서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신규발급 받
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p

오전 11:10

나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겸용 국제학생증을 발급했고,
ISIC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확인받은 후
바로 하나은행으로 가서
국제학생증 신청서를 창구직원분에게 보여주었다.

하나은행 창구직원분도 노련하게
신규계좌개설 및 체크카드겸용 국제학생증 발급을
잘 도와주셔서 정상 발급되었다 :)

하나카드 VIVA G PLATINUM
하나카드 비바G 플래티넘으로 발급됨.

〈하나 비바G플래티넘 체크카드 주요혜택〉
해외이용시 1.5% 캐쉬백(최대 10만원)
해외ATM인출시 수수료 1.0%

나의 경우에는 ATM인출 300달러 이상이면
글로벌멀티체크카드 쓸 생각이고,
해외결제는 우리카드 위비온플러스(캐쉬백3%, 5만원까지) 또는
신한카드 체인지업(결제수수료 없음)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ATM인출 300달러 미만일 때 이 카드를 쓸 듯?
유학생 카드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쓸 예정.

ISIC 카톡 담당자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저거말고도 난 정말 질문이 많았는데
진짜 친절하게 다 잘 받아주시고 응대해주신다!

작은 질문이어도 꼭 문의하시길.

▼ISIC 국제학생증의 혜택리스트는 다음을 참고▼



국제학생증 ISIC

[국제학생증 ISIC 학생할인정보·항공권·교통패스·보험·다국적투어](#)

www.isic.co.kr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유학캘린더 만들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06 14:59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52932545>

유학캘린더(스케줄)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준비를 하면서 뭘 언제 해야하는지,
내가 뭘 했는지 안했는지가 혣갈릴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나의 유학캘린더.

캘린더를 작성하자!고 작정하고 만든건 아닌데
만들다보니까 체계화가 되고 길어졌다.

만들고 나서보면 제일 잘 한 일 같다!

[유학캘린더 구성]

A	B	C	D
날짜	계획	실행	주요정보
2019.04~2019.09	혹시 몰라서 CV를 미리 손톱만큼씩 써둠	진행	
2019.11.08	Apply 시작	진행	노르웨이 대학들 포탈은 10/15부터 열림
2019.11.12	휴가 쓰고 대학교 학위/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장/성적표 신청 Courses description 쓰려고 강의계획서 정리	완료 완료	발급수수료 5천원
2019.11.16	Courses description 작성	완료	
2019.11.17	도큐먼트 전부 pdf로 전환. UiO지원, NMBU지원	완료	
2019.11.19	오후반차. UiT지원	완료	Norway 타대학들 DS전공 유무 체크
2019.11.20	UiO, NMBU 서류 재정리/재지원. 지원시기 캘린더에 적어놓기.	완료	

내 유학 캘린더의 최초 시작...

캘린더는 최대한 중요한 정보는 다 담으면서도

꼭 해야하는 일(To do!)을 중점으로 작성한다.

결국은 나 뭐해야 되더라 나 뭐하지 하면서

계속 들춰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캘린더이기 때문이다.

유학이 단지 내 의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댓츠노노... 많은 수작업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겁먹을건 없고.

팔로팔로미 ㅋㅋㅋㅋㅋ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언어로 적는다. 내가 척하면 착하고 알아보는

바로 그 나만의 자주쓰는 언어있잖아?

신나면 와우! 이런거 하나씩 써주고

멘붕이면 멘붕써주고. 그래야 나중에

연관되어서 준비할 때 이거 더 빡시게 해야겠다

이거는 버려야겠다 이런 감이 퍼뜩온다.

예쁘게 쓸 생각 NoNo 누가 본다고? 내가 본다.

두번째로는,

진행상태를 필수로 적는다.

완료, 진행 뿐만 아니라 어떤거든 가능하다

나는 확인, 거절을 같이 사용해서 나중에 딱 보고

아 이건 확인 내가 했었군. 이건 거절했으니

안 봐도 되겠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수많은 쥬메일과... 학교 웹사이트와...

구글창들을 보고 있노라면 레알 정신없게 됨ㅋ

마지막으로,

주요정보를 꼭 적을것. [나에게] 크리티컬한 정보다.

내가 적어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날짜정보도 적고,

생각보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리스트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주요정보에다가 내가 고민하는 이유를 꼭꼭

적어두었는데, 차후의 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 이런 식으로 ▼

A	B	C	D	E	F
2020.02.29	Motivation letter 작성 완료, Padova, Ku leuven 지원	완료	각 30유로, 75유로 지원비		
2020.03.02	Nova IMS 지원	완료	지원비 51유로		
2020.03.18	Padova University 1차 패스했다고 연락받음.	진행			
2020.03.20	Padova University 최종합격했다고 연락 받음.	진행	근데 결정을 4/16까지하라.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자 4만명대, 사망자 4천명대....		
2020.03.23	국비유학생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받음! 와우!	확인			
2020.03.23	Oslo University 결과발표가 3/27에서 4/21로 미뤄졌다고 메일받음	확인			
2020.03.26	Introduction to Programming using Python Certificate Available	완료	update CV, Resume		
2020.03.28	CV 수정/Motivation Letter 수정	완료			
2020.03.28	Nova IMS 최종합격 연락받음.	진행	결정은 4/2까지로 매우 빨리 즐거워 2050유로 내래		
2020.03.30	Tilburg(Eindhoven) 지원	완료			
2020.03.31	Radboud 지원	완료			
2020.03.31	UIT결과발표 4월말로 미뤄졌다고 메일옴.	확인			
2020.04.01	NMBU결과발표. 불합격.	확인	합격률보소... 432대10 미쳤다 ㅜㅜ 불안감 시작		
2020.04.02	다시 대학정보 재탐색 University of Zurich, University of Tübingen 지원	완료			
2020.04.03	Leiden university 지원	완료			
2020.04.06	Tübingen temporarily excluded / Tilburg 평가단계 들어감	확인			
2020.04.07	Radboud 평가단계 들어감	확인			
2020.04.08	Nova IMS 결정하라고 메일옴	거절			
2020.04.17	Radboud 불합격	확인			
2020.04.22	Oslo 불합격...	면봉			
2020.04.29	KU leuven 합격	확인			

이때는 한창 지원-합불합을 겪던 과도기였네 ㅋㅋ

하지만 이때가 제일 잘 적어야 하는 시기이다.

다른것보다도 합격 불합격이 일단 유학에서

젤 중요한 결정 맞잖앙 o՞՞? o՞՞ ՞

학교를 결정하고부터는 조금 수월해진다.

고민은 많이 없어지고 [챙겨야 하는 일정]들만 생겨서

날짜+내용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20.05.14	UZH 합격
2020.05.15	Tilburg 합격(Conditional이고 Pre-master를 하라고 함)
2020.05.24	UZH로 결정. 많은 사람들의 의견...(세진쌤, Sammy, 친구들 등) 숙소 알아보기 시작!
2020.05.26	국비유학 지원
2020.05.30	숙소 haus in der 탈락... ㅜㅜ 숙소 알아보기 힘들다 가격도 빽센데 28세 제한도 넘나 힘들어
2020.05.31	국비유학 서류 완료
2020.06.02	국비유학 서류 총장직인 학교 국제처 안된다고 함 —— 어이털려... 행정실장님께 직접 부탁드림!!!
2020.06.04	proflia 숙소 interview (skype) 숙소 찾기 진짜 힘들다. 6월말 되어야 알듯
2020.06.06	항공권 찾아봄 - 프랑크푸르트 입국 - 차후 변경?
2020.06.21	VISA 필요서류 체크
2020.06.26	국비유학 서류 광탈...
2020.06.27	한국사2급취득.하지만 의미없다...
2020.06.29	회사에 통보(부서장-인사부/팀장)
2020.07.03	우체국 국제택배 배송 알아보기... 노답
2020.07.04	비자 서류 준비
2020.07.08	비자 인터뷰(스위스 대사관)
2020.07.23	인사부 휴직 결정. 합격증 제출. 7/31까지 출근. 그 이후 쭉 휴가(18일간) 8/27 휴직시작일
2020.07.27	청원 휴직 결정남.
2020.07.28	유학생 보험 가입(MG손해보험)
2020.07.31	출근 마지막날 국제학생증 ISIC 신청 완료

ㅋㅋ내 감정이 적극 반영된 유학캘린더ㅋㅋㅋㅋㅋ

이 글은 내 유학캘린더대로 그대로 일정을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케줄을 작성하는게 얼마나
실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내 유학캘린더는 여전히 업데이트중!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국비유학생 신청

유학준비 힘들어

2020/08/03 20:1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50183768>

국비유학생 신청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국비유학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건 우연이었다.

취리히 대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200만원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해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으나,
스위스의 미친 생활비를 커버할 뭔가가 없을까...
계속 고민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switzerland scholarship을 검색해오다가
우연히 국비유학제도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장학금처럼 등록금만 커버되고 끝이면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부터 확인해봤는데,
국비유학장학금이 등록금 커버되고 끝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

[국비유학 지원 자격]

국비유학 응시자격과 선발조건을 보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유학 공식 포털, 한국유학 및 대학\(어학당\)정보, 출입국 절차안내, 유학생 생활 및 취업정보, 유학상담](#)

www.studyinkorea.go.kr

읽어보고나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만 지원가능하다는
의미인줄 알고 포기해야 하나 했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반전형은 제한이 없다고 해서
나도 지원가능!

나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이라

유사성이 있는 빅데이터 분야로 지원을 했다.

일반 전형	지역 연구 (13명)	시국교과	시국과 관련된 전 분야	4명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제외) ·오세아니아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전분야		
기초 학문 연구 (12명)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4명	일본, 미국, 러시아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제외, 일본 이공계 제외)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4명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4명		
혁신 성장 동력 연구 (15명)	지능화인프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연구 전 분야	5명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제외, 일본 이공계 제외)	
	스마트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연구 전 분야	2명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연구 전 분야	3명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철단소재, 혁신신약 및 K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연구 전 분야	5명		
일반전형 소개				40명	

스위스의 경우 무려 3만5천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원화로 4,300만원정도) 되면 좋겠다되며 좋겠ㄷ....

국가	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일반전형 전형	꿈나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네덜란드	29,545	36,932	2년~3년
노르웨이	30,197	37,746	3년
덴마크	33,523	41,904	3년
독일	27,400	34,250	3년
러시아	30,863	38,579	3년
루마니아	23,976	29,970	3년
벨기에	28,804	36,005	3년
불가리아	24,401	30,501	3년
스웨덴	29,689	37,112	3년
스위스	35,374	44,217	3년

▼ 기본 응시자격 큰 틀은 다음과 같다 ▼

세부적인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첨부된 파일 참조.

학부 성적 백분위가 80% 이상이어야 함.

학교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 받아야 함.

토플 또는 아이엘츠 같은 영어 성적 있어야 함.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다른건 괜찮은데 나는 한국사가 없었어서

국비유학 응시하려고 한국사를 봤다.

▼ 한국사 공부 및 시험 후기글 ▼

15. 광해군

- ❶ 임진왜란에 세자로 책봉이 되어 직접 전쟁에 참여함
- ❷ 전란 복구
- ❸ 대동법 시행
 - ① 땅납(방해할 방, 드릴 날)의 폐단으로 등장
 - ②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림(순차적으로 시행 지역을 늘려나가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됨)
 - ③ 특산품 대신 쌀, 동전, 배 등으로 받아서 국가에서 특산품을 샀음
 - ④ 짐을 가진 사람이 아닌 땅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
 - ⑤ 땅을 가진 자들의 반발로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 ⑥ 결과 : 특산물을 사다 주는 공인 등장, 동전의 유통, 상업의 발전

❶ 중립 외교

- :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청나라(여진족이 후금에서 청으로 이름을 바꿨음)가 명나라를 공격함
 → 명나라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음
 → 그때 광해군이 원군은 보냈으나 상황을 봐서 청나라에 항복하라고 명함
 → 이것을 이유로 인조반정으로 망위에서 물러나게 됨

 PAGODA 카고다신총
도의 점수보장판, 신촌 파고다

열기

직장인의 한국사 공부 및 시험후기 (2급/75점)

아니... 백만년만에 포스팅을 하는 듯. 할말은 많은데 진짜 너무 바쁘다ㅠㅠ 아무튼 집 이사가 6/22였는...

blog.naver.com

[국비유학 서류]

난 역시나 미루기의 끝판왕이라서
 제출 기한이 6월 3일까지였는데
 꾸역꾸역 버티다가 5월 30일에 준비를 시작했다.
 애초에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5월 30일에 시작...
 나처럼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

5월 30일에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원서접수를 했다.
 하면 이렇게 원서와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접수번호 -----		202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원서						
주 소		(전화) (H.P)					 사진제작 대학총장 직인날인	
성명	한글	-----		생년월일	-----			
	한자	-----		e-mail	-----			
구분	지원별	일반(√)	공나래()	기술기능()	분야	연구	혁신성장동력연구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	지능화인프라	
외국어	시행시험명1	IELTS	시행시험명2		한국사	시행회차	제47회 회	
	시행일	20191012	시행일			합격등급	급	
	성적	7.0	성적		학부 성적	91	대학원 성적	
		유학 대상국가		유학 대상기관				
제 1 희망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				취득

대외활동 기술서, 국외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를
후루룩 적었다. 나름대로 대학원들에 원서 접수하면서
써온 경험들이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적었음.

대외활동 기술서는 솔직히 내가 관련 경험이 없어서
쓸말이 없다보니 쥐어 짜내서 썼음ㅋㅋㅋㅋㅋ
경험이 없으니까 배우러 가죠 —— 나원참
있으면 내가 취업하지 왜 유학가
갑자기 왜 화나지 나 또 ㅋㅋㅋ 성격나온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기존에
유학원서 접수할 때 썼던게 있어서 편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추천서였다...

⑥ 추천서 【서식 2】

- 추천인은 'II.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 또는 'II.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
- 학교장 직인란은 **'II.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 날인**
- 추천서는 **공고일 이후** 날인 받은 것만 인정하며, 추천서(별지)는 2쪽 이내 작성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추천서 미제출

이전에 서류준비 포스팅에도 적었었지만

나는 추천서가 필요한 대학은

지원도 안했을 정도로 추천서 받기 귀찮아했다 ㅋㅋ

*** 뭔가 빠진 것 같은가? 맞음○○

바로 추천서이다...

Letter of recommendation

학교다닐 당시에는 잘 지낸 교수님들이 있어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찾아뵙질 않아서

난 추천서 받기가 좀 꺼려지고 귀찮았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추천서가 리스트에 있는 학교는 지원 제외^^

근데 사실... 이러면 안된다 ㅋㅋㅋㅋㅋ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추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대(ETH)나

로잔공대(EPFL), 독일 뮌헨공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등 유명한 학교들은

모두 추천서를 요구하며 한개가 아니라

2개 땐 3개까지 요구하느 하고 듣도 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추천서 받아야하네...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6월 1일)이 되어

건국대 국제처에 전화를 걸었다.

(건대 졸업생임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국제처 :

"추천서 총장 직인 지원기한

5월 29일까지였어요.

공지사항에 올렸고 기간도 길었는데 왜

그때 안 보시고 이렇게 늦게 연락하셔서

해달라고 하시는거예요?"

나 :

"제가 졸업생이라서 공지사항에

올라오는지도 몰랐고, 계속

공지사항 보고 있지도 않죠.

중요한건 아직 6월 3일까지 국비유학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는데

왜 안된다는거예요?

학교에서 정한 기한이 무슨 법도 아니고

학생을 도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죠"

아휴, 어차피 국제처 직원이 뭘 알겠나 싶어서

이건 이 말단직원을 붙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걸

다년간의 사회생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말하고 일단 알겠다고 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직 추천서 적지도 않은 상태)

누가보면 내가 국비유학 지원기간 넘었는데

해달라고 하는 진상인줄 알겠네.

내가 어디 불법에 쓰는것도 아니고——

건대 행정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총장 직인 받는거 며칠 걸려. 그래서 그런거야"

그리고 나는... 이 다음날인 6월 2일.

바로 총장직인 2개를 아무 문제없이

스트레이트로 15분만에 받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국대 국제처 보고있나?

방법은,

내가 졸업한 학과가 속한 행정실의 실장님께
연락드려서 그분과 직접 면담후 직인을 받았다.
(학과사무실 아니다. 행정실이다. 주의할 것.
과사에는 이런 얘기해봤자 의미없음!!!)

실장님께서 방문하라고 말씀해주신 덕에
바로 반차휴가 쓰고 건대로 고고!

된다는걸 알고 부랴부랴 추천서를 적어서
그나마라도 학부시절에 나를 조금 예뻐하셨다(라고
믿고싶은) 교수님에게 전화 드렸으나, 안식년이셔서
미국에 계시다고 하여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5월 1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입니다 제가 졸업 후 1번밖에 찾아뵙지



월 1일

게 잘지내고 있다니 고맙구나 국비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대견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일

교수님 회신 감사드립니다. 총장직인을 국제처에서
해줄수없다고 하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 1일

아쉽게 되었네 하지만 내년도 있으니 차근히
준비해보거라 우리 보는것은 내년에 보자 올해말까지



1일

네~ 교수님 답변주셔서 힘이납니다!!! 2021년에
뵐게요 메일 또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꼭 건강



6월 1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메일 드립니다.
학과사무실에 요청을 하러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 2일

에게 시차로 인해 이제서야 보낸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Professor of

원래 추천서라는 것은 내가 전부 적고
교수님께는 싸인만 받는 것이 정석이다 ㅋㅋㅋ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별 문제 없이 추천서 완료.
추천서 쓰는 학교도 지원할 걸 구랬남....ㅠㅠ

행정실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내 지원서류들을 봐주시더니
명함도 주시고 잘 다녀오길 기원해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장직인도 행정실 방문한지
15분 만에 받았음 ㅋㅋㅋㅋㅋ

(당연히 직인 관련한 공문 다 작성하고 올리고
정상적인 절차 다 밟았음)

실장님 역시 대단해! 라기보다는,
내가 일하면서 여태까지 느낀 거는
항상 굳이 크리티컬하지 않은 규제나 규정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다.
실장님도 그렇고 사회생활 십여년 해보면
뭔 말인지 알게 된다... 라떼충이 된 초코빵.

예를 들면 지금 기한이 내일이다.
낼 모례하면 어때? 세상이 무너지니?
내가 밑에 직원한테 정말 자주 얘기하던 것도
"당장 누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면 급한 상황
아니니까 급박해 하지 않아도 돼"
난 진심 이렇게 생각하거든...

항상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되는 방법이 있음.
어떡해 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 무의미하다고 생각...

실장님의 멘트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박사까지해서 다 할때까지 한국돌아오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출은 전부 출력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원본서류 중에서 반환을 원하는 서류가 있으면

(나의 경우에는 IELTS 시험 성적 원본)

제출시에 '원본서류입니다. 반환요청드립니다.'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 보내면 된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서류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이후에 더 쓸말이 없기 때문이다...

서류부터 광탈했거든여... ㅠㅠ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총장직인을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학교합격한 상태에서 지원한거라

더 확률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합격 후 지원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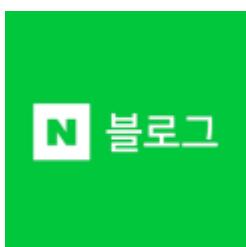
아니면 스위스 지원자라 그래?

지원금이 너무 높아서? 엉엉 ㅠㅠ

구래 알았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할게...

내돈내산 아닌게 없네...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회사는 어쩌고?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28 16:02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44253867>

그럼 언제 퇴사해?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크리티컬한 이슈였던

oh 회 to the 사 oh

보시다시피 내 블로그의 모토가 [직장인 일지]일 정도로

재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직장생활 속에서

그나마 직장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 속에서

삶의 흥미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직장인 1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온

그냥 엄청나게 평범 무난한 사람 1이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돈을 주는 곳을 벗어나

내가 해보고 싶었던 뭔가를 한다는게

나에게는 큰 결정이었다ㅠㅠ

유학 까짓거 요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블로거는

정징이인가 뭐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겠지만

(실제로 징징이기도 함)

난 흙흙흙수저이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면 안되었다.
그냥 현실적으로 떠날수가 없다 힝

내가 여태까지 포스팅 해온 돈모으기 시리즈는
나 혼자만의 상황만 적은거라
주변 경제상황(가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돈 잘 모아서
이제 유학가네, 게다가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울거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으니깐 ㅋ

흙수저는 많은 날을 광광우럭따...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할테니
암튼 이런 내적갈등도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는 어쩌고?"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즉,
"회사는 그만두는거?"
라는 질문과 동일하겠지.

'유학을 꼭 가야겠어! 난 무슨 일이있어도
돈을 모아 유학을 가고 말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 말해서 딱히 없었다.

[기회되면 한번 유학이란 것도 가보면 좋을듯]
하는 미세먼지같은 희미한 희망사항 정도를 보유했으나

이걸 [유학가도 되겠다.]로 변경하는데
회사가 생각치않게 꽤나 도움이 되었다.

우선, 회사에서 알게된 어떤 분이
스페인 유학을 다녀왔고 다시 복귀했다고 했다.
응?? 그런게 가능해??

그 후, 동기의 우연한 도움으로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청원휴직이 가능하다]는
사규를 찾아서 보게되었다.

회사를 퇴사하고 유학가도 되겠지만
정규직으로 복귀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들 대비가 짱짱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지 아닐지 모르더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그 생각자체가
내 흔들리는 멘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사규라고 생각함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현재 있는 부서에서
난 5년정도 있었는데 이 업무에 너무 질림.
너무 질려서 오랫동안 나가고 싶었했고
상급자에게 여러번 발령을 요청했으나
인력부족의 이유로 발령이 너무 안 나...

그래서 난 내 스스로 유럽으로 발령나기로 결정했다.
= 유학 가야겠다.

하지만 청원휴직이 내 뜻대로 될지 절대 알 수 없음.

회사가 계속 직원들의 유학을 도와온 상태면

예시들이 많아서 나도 맘놓았을텐데.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사규조차도 몰랐다. 나처럼.

내가 오히려 설명하고 다님 ㅋㅋㅋ

8월 중하순에 떠나려고 계획중이기 때문에

최소 1.5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 휴직결정도 나고

새로운 사람도 구하겠지 싶어서,

상급자에게 이야기한 시점은 6월 말이었다.

상급자는 좋은 분이시기도하고,

개 말 안듣는 나를 오래 봐오신 분이라 ㅠㅠㅋ

내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위에(임원) 잘 전달해주겠다고 하셨다.

그 후 7월 초에 인사부와 면담을 했다.

인사부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이전에 없었다고 했다.

응? 무슨 말이예요? 저도 아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보니... 이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1년 과정이었고 주로 MBA과정이었다.

나처럼 본격적인 2년짜리 대학원코스를

MBA가 아닌 정식전공으로 가겠다는 직원이

처음이거나 극히 드문 케이스였던 것... 띠요옹

게다가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하려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이

내 업무와의 연관성은 일단 1도 없는데다가,

아니 최소한 내가 속한 금융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였다.

금융공학 이런거 했으면 아주 당당했을텐데 ㅋ

그래서 갑자기 맘이 대박 쫄림 ㅋ

정 안되면 퇴사각이다...

퇴사하면 된다 퇴사하면 되지 퇴사하면 돼

하면서 나를 다독(?)였다.

혹시라도 결정 안났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 뇌 속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돌림 ㅋㅋㅋㅋ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회사에서의 결정도 굼벵이 속도로 이루어졌다.

면담하고 최소 3주 이상 걸림.

혼자 속으로는

~~아니 자비로 가는거고 어차피 회사가 돈 드는것도 없는데~~

~~(무급이니까) 이 결정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요청한 거고

허락은 사용자쪽에서 하는거니까 조용히....^^

현재는 자비유학으로 인한 청원휴직으로

결재가 잘 올라갔고 대학 합격증을 제출해놓았다.

출근은 이번주 금요일 7월 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남은 휴가 17일을 다 소진하고

8월 27일부터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상반기에 휴가를 15일을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더니~~

~~시작시점에 휴가가 34개였음. 개꿀이었네?~~

지난 7년간 회사를 안간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

출근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라는 말 자체가 개설렘 ㅋ

결론적으로 회사 소속 및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석사 유학 합격ㅋㅋㅋㅋㅋ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27 01:16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42638151>

합격했다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합격은 진즉했으나 그때의 신난 기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쓰는 뒷북포스팅.

나중에 내가 읽을 때 재밌고 웃기라고 ㅋㅋㅋㅋ

University of Zurich(UZH)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udy Options and Choice of Studies](#)

[Data Science \(Major 90\) Degree program: Master of Science UZH in Informatics \(RVO16\) General description](#)

[Master's programs provide an advanced academic education and allow students to complete independent](#)

[academic and project-based work. 120 ECTS credits must be completed, consisting of a major stud...](#)

[www.degrees.uzh.ch](#)

▼취리히 대학교 석사 지원 서류 준비 포스팅▼

to upload the following documents relevant for your chosen study programs:

- **Signed declaration of consent**
- **Current photo, in color, aspect ratio 3:4, image size at least 400x533 pixel**

For the [UZH Card](#). Please make sure that the aspect ratio is correct, and edit the photo if necessary. Your head should be photographed in a frontal pose against a neutral background providing good contrast, and it should take up about 80% of the photo.

- **Copy of official identification (passport or ID, no residence permit)**
Please scan the front and back of your ID.

- **CV**

- **Upper secondary school-leaving certificate**

Please scan all pages of the document. If you have studied at a Swiss university before, also scan the sticker with the Student ID Number.

- **Transcript of records, university diploma and diploma supplement**

If you have not yet completed your studies you will need to provide an official interim transcript of records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your studies (requirements still to be met and your probable date of completion).

직장인의 스위스 유학 ::: 서류 준비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서류준비이다. 서류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귀...](#)

[blog.naver.com](#)

취리히 대학교 석사 지원기한은 4월 30일까지였고

합격발표는 5월 14일에 나왔다. 옴청 빠름

이 정도 속도면 성격 급한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거 같은데ㅋㅋㅋㅋㅋ

★ noreply

Not tracked

받은편지함 [UZH Admission] Entscheid vorhanden / **Decision available** - studentser...

5월 14일

두근두근 Decision available 메일

지원 응시료는 100CHF(스위스 프郎)으로 개비싸다.

지원한 14개의 대학교 중에서 응시료를 받는 곳은

총 5군데였는데, 그 중 거의 두번째로 비쌈ㅋ

~ 합격발표 확인썰 ~

취리히 대학교에서 결과발표 메일이 온 걸 완전
바로 봤었는데 문제는 내가 그때 술진창 취해 있어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비번 계속 틀리고
클릭도 자꾸 이상하게 하고
들어가도 뭐가 어딨는지도 몰겠고 ㅋ
봐도 뭔 소린지 이해도 안가고해서 ㅋㅎ
포기하구 집와서 그냥 쓰러져 잣다 ㅋ
결과를 머르겠어... 개궁금해하면서 잠듬

아침에 인나서 헐레벌떡 회사가느라 또 못봄 ㅋ아 ㅋ

그리고 회사에서 친구들이랑 카톡(길이 김 주의)

나 어제 알파 얘기할때

술에 좀 취해있어가지고

그후로 헛소리할까봐 말을 인함

오전 9:25



기분좋은 제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전 9:25



애교뿜뿜 어피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쩐지 ㅋ

말이 극히 없더라 ㅋ

너 원래 취하면 오타도 더 안나고

말 더 잘하자나 ㅋ

오전 9:27

나를 잘 아는 친구들ㅋㅋㅋㅋㅋㅋ

취하면 오타1도 없이 맞춤법 완벽해지는 병에 걸림

근데 그 와중에 ㅋㅋㅋ

스위스 대학중 하나가 결과발표를 했는데
내가 취해가지고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겠는거야 봐도

오전 9:35

그래서 혼자 집가서 컴타로 봐야지
햇는데 집와서 너무 졸려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잠들고

아침에도 계속 궁금한데 준비하느라
못보고

오전 9:36

애교뿜뿜 어피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계속 궁금하겠네 ㅋ

오전 9:41

기분좋은 제이지

지금은 봤음? ㅋ

오전 9:41

아니 ㅋ 모바일로 그래서 어케 해서
볼라햇는데

모바일은 잘 안봐져 ㅜㅜ 결국 다시
집가서 봐야함

오전 9:46

애교뿜뿜 어피치

내가 해줄수 있으면 해서 캡쳐해주고싶네

ㅋ

오전 9:46

술취해서 놔정지온 친구를 도와주려는 친구들



기분좋은 제이지

아 회사에서는 못보는거야?

오전 9:47



애교뿜뿜 어피치

링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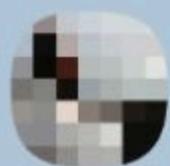
오전 9:47



기분좋은 제이지

인터넷은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오전 9:48



애교뿜뿜 어피치

쟤네 전산은

다 막았자나

카톡도 안되자나 ㅋ

오전 9:48

웅 제한적으로만 돼 회사에서
뚫어놓은것만

회사에서 뚫어놓은것 = 쓰잘데기 없는것

오전 9:48

우리회사 보안 철저 = 직원에게만 보안 철저....
그래서 컴퓨터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진다...^^
오로지 업무화면만 봐야해ㅋ 핵노잼
그 외에는 전부 폰으로 한다ㅋ 그래서 스마트폰 천재됨

내가 어제 취해서 비번도 다섯번틀려서
뭐 어쩌고 바꾼거같음

오전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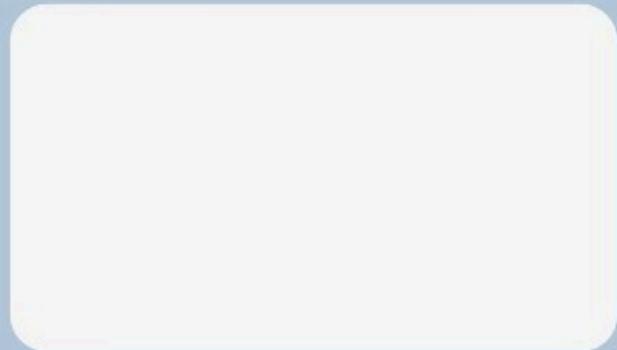
기분 좋은 제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궁금하긴
했나보다

오전 9:50



애교뿜뿜 어피치



오전 9:50



기분 좋은 제이지

결과 보기 참 힘드넬ㅋㅋㅋ

오전 9:51

맞아 나도 저렇게 에러낫는데 몬말인지
몰라서 계속 틀리고 결국 바꿈

근데 왜 에러나지

바꾼거는 제대로될肯데

오전 9:51



기분 좋은 제이지

왜 에러나는거지

오전 9:52



애교뿜뿜 어피치

ㅋㅋㅋㅋㅋ 띄어쓰기 들어갔나?

오전 9:52

T어쩌고가 아이디고

오전 9:52



애교뿜뿜 어피치

아이디가 잘못된거 아녀?

오전 9:53

취해서 비번 다섯번 틀리고 바꾼거 같은데
꿈에서 바꿨나 헷갈리는 중ㅋㅋㅋㅋㅋ
그 와중에 열심히 들어가서 결과 봐주려는 친구의 노력



친구가 그대로 캡쳐해줬지만 1도 모르는 독일어 등장
ㅋㅋㅋㅋㅋ 전혀 알수없었네ㅋ



기분좋은 제이지

전혀 모르겠네 ㅋㅋㅋㅋ

외계어다

오전 9:56

Zugelassen이다

오전 9:56

Zugalessen아니고

오전 9:57



애교뿜뿜 어피치

오

허용됨

오전 9:57



기분좋은 제이지

오 합격한거임?

오전 9:57

뭐가 허용됨?

오전 9:57



애교뿜뿜 어피치

저 단어 뜻이

오전 9:57



기분좋은 제이지

뜻이

오전 9:57



애교뿜뿜 어피치

허용됨

오전 9:57



기분좋은 제이지

허용됨

파파고 돌려서 허용됨허용됨 거리는 자들ㅋㅋㅋㅋ

애교뿜뿜 어피치

영어로 진행할꺼면

통시서도 영어로좀 주지

오전 10:00

기분좋은 제이지

그러게 갑자기 왜 독일어...

오전 10:00

취했는데 저렇게 하니 알아들을리가 없음

오전 10:01

기분좋은 제이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결국 합격이야
아니야

저 피디에프를 열어봐야되는건가

오전 10:01

애교뿜뿜 어피치

파일 받아서 보내?

오전 10:02

아 짜증나 회사서 한번 혹시몰라서
해봤는데 옛 ○안되네

오전 10:03

웅 근데 파일왜이리 많어

저중에 합격을 알만한게 뭐임?

오전 10:04

기분좋은 제이지

그니까 ㅋㅋ 도통 모르겠네

오전 10:04

주라쌩어쩌고인가

일단 4월이라고 적힌거는 아닐듯

오전 10:04

아니 ㅋ 30분째 결과발표를 3명이서 보고 있는데

왜 아직도 결과를 몰르냐구여 ㅋㅋㅋㅋㅋㅋ



기분좋은 제이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 대학에서 좋은
출발을 하고 학업에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합격 아님?

오전 10:11

그런거같다

그러려면 늦어도 2020년 9월 7일까지는
입학처 책상으로 직접 가십시오.

오전 10:11



기분좋은 제이지

되게 돌려 말하네ㅋㅋㅋ

합격! 이렇게 해달라고

오전 10:11

책상으로 가야되니깐ㅋ

오전 10:11

파파고 없이는 안되는 희한한 결과발표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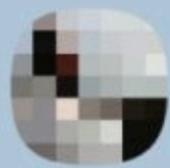
기분 좋은 제이지

대한민국에서 온 [REDACTED], 1989년 9월
12일 생년월일,

2020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다

이거 개 빵터짐

오전 10:11



애교뿜뿜 어피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전 10: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 운다

오전 10:12



기분 좋은 제이지

묘비 글인줄

오전 10:12

그 와중에 묘비글 선사한 파파고 ㅋㅋㅋㅋㅋ

가을학기에 입학하다 ㅋㅋㅋㅋㅋ

여기 잠들다 1989- 2020

이렇게 끝난거 같은 느낌이라구



애교뿜뿜 어피치

난 쫄려가지고

막상 보질 못했네 ㅋ

ㅋㅋㅋㅋ

엉 마지막 ㅋ

ㅋㅋㅋㅋ

오전 10:14

오전 10:14

너가 왜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다 같이 쫄렸던 결과 발표를 힘겹게 확인했는데

 기분 좋은 제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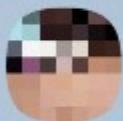
헐 ㅋㅋㅋㅋ 영어로 변환되는거였따니

오전 10:33

 애교뿜뿜 어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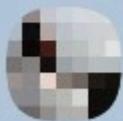
ㅋㅋ집가서는

오전 10:33

 기분 좋은 제이지

친절하게 되어있는데 힘들게 읽었네 ㅋㅋ

오전 10:33

 애교뿜뿜 어피치

영어로바바 ㅋㅋㅋㅋ

오전 10: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픽디에프능 어차피 영어로 바꿔도

오전 10:35

 애교뿜뿜 어피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전 10:36

독일어로 와있는거 아냐?

오전 10:36

 애교뿜뿜 어피치

그러겟네 ㅋ

오전 10:36

 기분 좋은 제이지

아 그렇네 ㅋㅋ

오전 10:36

저놈의 학교

오전 10:36

나중에 다시 보니까 페이지 언어를
영어로 설정할 수 있었닼ㅋㅋㅋㅋㅋㅋ 아놔임

결과 발표도 이렇게ㅋㅋ 제대로 못보는데
과연 가서 공부나 제대로 할런지 걱정된다고

1얼간이 때문에 다른 두 친구가 합심해서
겨우 결과 발표 확인완료ㅋㅋ

▼ UZH지원포탈 ▼

비번 까먹어서 헤매고 결국 다시 받고 난리친 바로 그곳

The screenshot shows the UZH Application Details page for the MSc UZH Informatics (RVO16) program. The page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 Degree Program: MSc UZH Informatics (RVO16)
- Major: 90 Data Science
- Minor: 30 Data Science
- Semester Duration: 2020-08-01 to 2021-01-31
- Regular Deadline: Apr 30, 2020

첨부된 서류 읽어보니
We are pleased to offer you 읽고 우왕ㅋ
I regret to inform you 아니어서 다행이다



University of Zurich
Admissions Office
Rämistrasse 71
CH-8006 Zurich
Phone +41 44 634 22 36
Fax +41 44 634 49 01
Contact: t.uzh.ch/admission
www.uzh.ch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Niels Zürrer
Head of the Admissions Office

Zurich, 13 May 2020

Admission to a Master'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Zurich

Dear Yonsei,

We are pleased to offer you admission to the following Master'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Zurich:

Begin of Study:	Fall Semester 2020
Faculty:	Faculty of Business, Economics and Informatics
Degree Program:	MSc UZH Informatics (RVO16)
Major 90:	Data Science
Minor 30:	Data Science
Begin of Lecture Period:	14 September 2020

합격에는 따로 조건부 합격 이런 말은 안 적혀 있었으나

다른 문서까지 전부 잘 읽어보면 조건부 합격이다.

아무래도 내 학부전공이 통계학이기 때문에

컴터쪽 부족한 지식이 많아서

학기 중에 그 부분을 들으라고 적혀있었다.

Supplement to Admission

Name: 

Degree program: Master of Science UZH in Informatics (RVO16)

Begin of studies: Fall Semester 2020

Additional Requirements		
Major 90 Data Science		ECTS Credits
Informatik I (V+Ü) (Informatics I) 03SMAINF1166 English exam possible, please contact the lecturer at the start of the semester.		6.00
Informatics II (V+Ü) (Informatik II) 03SMAINF1169		6.00
Foundations of Computing I (L+E) (Formale Grundlagen der Informatik I) 03SMAINF1170		6.00
Database Systems (L+E) (Datenbanksysteme) 03SMBINF2160		6.00
Numerical Methods in Informatics (L+E) 03SMBINF4232		6.00
Data Visualization Concepts (L+E) 03SMBINF4234		3.00
Data Visualization and Analysis (L+E) 03SMBINF4245		3.00
Total ECTS Credits		36.00

내가 추가로 들어야하는 36학점 리스트.

꼭 진짜 열시미 듣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는 안했다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유학 :: Motivation Letter, 첨부파일?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25 19:12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41530270>



**University of
Zurich^{UZH}**

Motivation Letter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Motivation Letter를 지칭하는
알맞은 한국어가 뭐가 있지?
그냥 직역해서 '지원동기서' 글쎄, 이런 말 잘 안쓰니까
내용을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는 자소서가 맞는듯 ○○

 Motivation Letter for leiden university.docx	2020-04-03 오후 8:52
 Motivation Letter for Radboud university.docx	2020-03-30 오후 8:03
 Motivation Letter for UZH.pdf	2020-05-31 오후 6:47
 Motivation Letter(KU LEUVEN).docx	2020-02-29 오후 10:...
 Motivation Letter(Padova).docx	2020-02-29 오후 11:...
 Motivation Letter.docx	2020-04-02 오후 9:30
 Motivation Letter.pdf	2020-04-02 오후 9:30

학교별로 다양하게 작성한 ML들 중 몇가지

학교마다 특정 Motivation Letter 양식을

요구한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가지 포맷을 정해두고 돌려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작성했다.

의외로 나는 CV에 비해서 Motivation Letter가

더 쓰기 수월해서 딱히 뭔가 참고하거나

첨삭을 받거나 하지 않았고 항상 쓰고 바로 제출했다.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게 최선임!

당신이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이유가

있을것 아님? 항상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걸 그냥 주절주절 쓰면 됨.

(CV 작성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EDUCATION

주황글씨 - 기관명
검정글씨(볼드) - 한줄이력
검정글씨 - 상세내용
매우로즈에 이기고자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유학 :: CV 작성법, 포맷, 주의할점

유학 준비 서류 중, CV (Curriculum Vitae) 준비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 참고내가 ...

blog.naver.com

일단 자소서면 가장 두드러지게 필요한건

1. [왜] 이 학교에서 이 전공을?

2. 미래에 [뭘] 할거? [어떤] 사람 될거?

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박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뭣도 모르는 학부졸업생의 석사지원이니까...

굳이 내 자신에 대해서 줄줄 나열하고

수상경력이다 뭐다 나 뭐 잘한다 할바에는

(물론 난 수상경력이나 뭐 잘하는 것 1도 없음)

오히려 명확하게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이걸 할건데! 너네 학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그럴거지?

하고 당당하게 쓰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임에 주의)

그다지 길게 쓸말은 없어서 앞뒤인사 포함해서
총 1.5페이지 정도 작성했다.
원래 1페이지로 하고 싶었는데 쓰다보니 늘어남.
이거보다 길게 쓰면 너무 읽는 사람에게 고문아닌가...

직접 작성한 Motivation Letter 포맷과 구체적인 내용

(첫인사)

1. 성장/지원배경
2. 관심사
3. 거기로 유학가기로 결정한 이유
4. 달성 목표와 나아갈 방향

(끝맺음)

첫인사 Preface

학교이름만 계속 바꿔가면서

아래의 첫인사 문구를 그대로 썼다.

Dear Sir/Madam

Thank you for taking time to read my letter. I am writing this letter hoping to express my interest. I am keen to take the data science master's degree course at (학교명) for the following reasons.

성장/지원배경 Background

대학에서 어떤걸 배우고 무엇을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취업하고 일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왜 지금 유학가려고 하는지. 를 적었다.

관심사 Interest

아무래도 당연히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이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해서 관심사를 적었다.
전혀 거창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생긴 몇가지
사건들을 얘기한 것이 전부이다.

~로 유학가기로 결정한 이유

The reason why I decided studying
abroad in (Country name)
이 분야 잘 모르고 관련없는 업무로 직장생활 7년해서
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적음.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의지는 강함을 어필.
유럽을 결정한 이유, 가서 뭘하려는지 짤막하게 적음.

달성 목표와 나아갈 방향

The goal I aim to achieve and
the direction that I will develop to
여기는 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얘기니까
소설이 매우매우 필요하며
내용의 대부분이 허구로 채워졌다ㅋㅋㅋㅋ

일단 내가 어떤 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졸업 후, 5년 후, 10년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를 앞의 세 파트에 비해 상세히 적었다.
역시 소설이 더 적기 쉽네. 팩트보다ㅋㅋㅋ

여기서 중요포인트.
국가별로 다르게 내용을 적었음.
네이버에 국가별로 대략적인 국가정보를 검색해보고
(특히 경제/교육상황) 그에 맞춰 바꿨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해당 국가를 칭찬하며 추켜 세워주기.

취리히 대학교 기준으로 말하자면... 스위스는
천연자원 부족하고 인구 적지만 뛰어난 인적자원으로
8만달러가 넘는 매우 높은 GNP를 가졌어. 세계 2위.
스위스 사람들의 근면성이 특히 기술과 무역분야에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해.
스위스의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으로
초고도화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경제기반과
통계수치들을 봤을 때 스위스는 한국의 룰모델로 적합해.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국가의 강건한 정신을 배우고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싶어.

라고 적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스위스로
유학가기로 결정한 이유에 넣을까 싶었는데
내가 이런 이유로 결정한 거는 좀 너무 아니어서
찾아보니 이렇더라? 여기서 배워서
이런 목표를 세울게! 느낌으로 적었다.

끝인사 Closing remarks

아래의 내용으로 전부 통일했다.

It would be grateful if you consider me as a promising student. I will look forward to your positive response.
Your sincerely
초코빵 from South Korea

CV와 다르게 개인적인 정보가 별로 없으니
Motivation Letter는 합격한 내용 그대로
파일을 첨부해두려고 한다.

다른데가서 본인이 썼다고 말할 정도로
무능력자는 없겠지? 그르지마
이전에 투자자산운용사 요약파일을 지가 요약했다고
울린사람이 있다고 제보받은 적이 있어서 의심증 생겼음.

내가 이 Motivation Letter를 이용하여
합격한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UiT The arctic university (Norway)

Padua university (Italy)

KU Leuven (Belgium)

NOVA IMS (Portugal)

Eindhoven university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Netherlands)

University of Zurich (Switzerland)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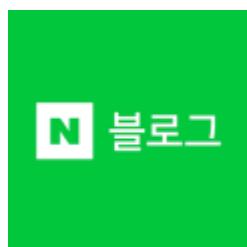
Motivation Letter.docx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스위스 석사 유학 VISA interview 비자면접, 빠...꾸 먹을뻔...?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19 19:22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35429827>

비자 인터뷰

VISA interview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University of Zurich(UZH)에서 합격발표한 날짜는
5월 14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유학가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시작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고민하다가 일단
숙소부터 겁나 알아보기 시작했다.
(원래 코앞에 닥쳐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타입)

퇴근-숙소알아보기-출근 생활을 반복...ㅋㅋㅋ
했지만 여전히 못구했다는거ㅋ하ㅋ 수투레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보름정도 후에 우연히
UZH 홈페이지를 다시 읽어보다가
비자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발견했다.
띠용...?! 아 맞다ㅋ
비자 신청해야하는데ㅋㅋㅋㅋ

그래도 아직 6월초니까ㅋ괜찮아 하면서

스위스 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 15일까지 비자발급업무를 안한단다.
2차 띠용...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보니
6월 15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가장 빠른 인터뷰 날짜는 7월 8일이라고 했다.
비자 신청에 인터뷰도 필요해요!?
전 몰랐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비자 신청해본 곳이라고는 중국뿐이라...ㅎㅎ

비자 발급까지 6주~8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3주, 4주 정도만에 나왔다는 글들도 있다.
나는 8주 넘게 걸리면 ㅋㅋㅋㅋㅋㅋㅋㅋ
9월 7일까지 UZH 도착해야 입학 처리되는데요...
모든게 숲으로 돌아갈판^^...ㅋㅋㅋㅋㅋ

빠르게 빠르게 심사해 주세요 저 급함ㅋ

또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가
7월 초부터 비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자 신청 준비 서류>

[Which documents should I submit with a national visa application?](#)

www.eda.admin.ch

일단 학생비자는 *Type-D* 비자이다.
위의 링크에서 *Student Visa*를 클릭하면
나오는 PDF대로 준비하면 됨

그리고 해당 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3세트로
각각 구비해서 가져가면 된다.

Please submit above documents in 3 sets.

	<u>Set 1</u>	<u>Set 2</u>	<u>Set 3</u>
1	Visa application	Visa application	Visa application
2	Passport copy	Passport copy	passport-size photograph
3	passport-size photograph	passport-size photograph	
4	Registration confirmation	Registration confirmation	
5	Payment confirmation	Payment confirmation	
6	Diplomas and school transcript certificates	Diplomas and school transcript certificates	
7	CV	CV	
8	Letter of motivation	Letter of motivation	
9	Written commitment	Written commitment	
10	Proof of sufficient financial means	Proof of sufficient financial means	
11	If minor, documents from no. 11	If minor, documents from no. 11	

- Visa application 비자신청서

위의 링크에 1빠로 적혀져 있다.(English-German)

읽으면서 적어가면 됨! 어차피 잘못 적어도 대사관에서

뭐라뭐라 알려주겠지 ㅋ 싶어서 그냥 했다.

난 증명사진을 안에 그림파일로 넣고 출력했다.

총 3부 출력해서 자필싸인 ㄱ ㄱ

- Passport copy 여권 사본 2부

- Passport sized photo 여권사진 3개

- Registration confirmation 입학허가서 2부

- Payment confirmation 등록금 납부영수증 2부

등록금은 학교가서 내는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냈기 때문에 뭘 제출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원서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별말 없었다.

- Diplomas and school transcript certificates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원본1부, 사본1부

- CV 이력서 2부

- Motivation Letter 지원동기서 2부

학교제출시 썼던 Motivation Letter를 조금 수정했다.

아무래도 스위스 학생비자 신청이니까

'왜 스위스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둬야할 거 같아서

스위스 짱짱맨 나 짱짱맨 그래서 가서 공부하면 짱짱맨

식으로 고쳤음 ㅋㅋㅋㅋㅋㅋㅋ

적절한 양은 모르겠으나 내껀 총 1.5페이지 분량이다.

- Written commitment 서약서 2부

학업 마친 후에 스위스에서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사관에 올라온 공식샘플은 없고

그냥 직접 작성해야 한다.

내가 작성한 샘플파일은 하단에 첨부했다.

- Proof of sufficient financial means 재정증빙 2부

오전 10시 인터뷰였기 때문에 회사는 휴가를 냈다.

복장은 그냥 회사 가는것처럼 입었다.

오피스룩 원피스에 샌들.

버스타고 가는데 갑자기 다시 집 방향으로 돌아가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버스 잘못탄걸 인지함 ㅠ

호다닥 내려서 얼른 제대로된걸로 갈아탔따 ㅠㅠ

일찍 나왔길 망정이지... 지각할뻔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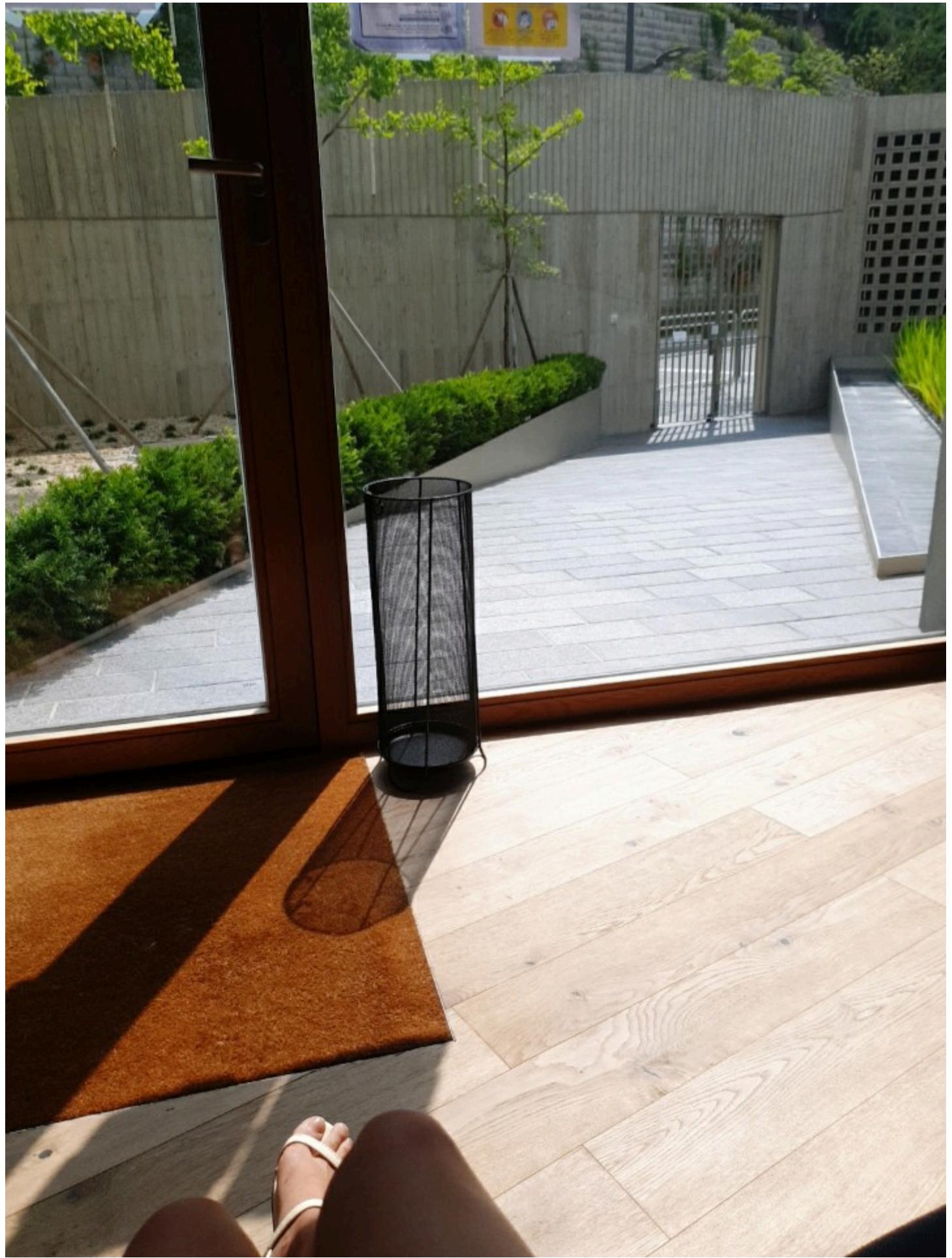


벨 누르고 들어가는데

잘사는 친구집 놀러가는 낙남ㅋ



들어와 앉아서 기다리며 바깥을 보는데
햇살이 앞다투어 들어왔다.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안은 시원 ㅋㅋㅋ
내 앞에 4명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



근데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음...

버스를 오래타서인지 화장실이 급했다 ㅠㅠ

내 앞앞 사람이 직원하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새치기하고

"화장실 어디예요?" 물었지만

"이 안에 화장실 없어요" 하고

무뚝뚝한 답변만 돌아왔다 ㅠㅠ 형

화장실은 지하철에서 다녀오세요 다들

방광쪼이며 최대한 빨리 내 차례가 되길 바랬음 ㅋㅋ

서류 내라길래 얼른 서류 냈고,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아놔ㅋㅋㅋㅋㅋㅋ

제출한 여권사진이 너무 상체가 많이 나왔고

배경이 어둡다면서 ㅠㅠ 까임...

그래도 요 밖에 나가서 사진관 가셔서

찍어서 다시 주시면 되세요~ 하셔서

다행히 인터뷰 끝나자마자 튀어나가서 찍어왔다 ㅋㅋ

<스위스 대사관 근처 사진관>



[네이버 지도](#)

[명사진관](#)

[naver.me](#)

여권사진 20,000원





스위스 대사관에서 도보로 7분거리





간식있어야 손을 주는 똑똑한 준영이(초코푸들)
정장마이도 빌려주셔서 깔끔하게 찍어주셨다!

비자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은 이렇다.

- 할 수 있는 언어가 뭐있는지?

나는 영어와 중국어라고 했다. 독일어는 1도
못하는데 가서 배우고 싶다고 대답함.

- 스위스 기본적 있는지?

없다. 여행으로도 없음.
이번이 처음이고 엄청 설렌다고 대답함.

- 왜 스위스를 선택했는지?

솔직하게 대답했음. 여러국가의 대학들을 지원했고
여러군데 합격을 했지만 스위스가 교육인프라가 좋고
등록금도 리저너블해서 결정했다고.

- 가족 구성원?

이건 왜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ㅎ ㅎ 암튼 대답.

- 영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유학갔다온 적은 없고 한국에서만 쭉 공부했어요
사실... 전남친이 외국인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빵터지심ㅋㅋㅋㅋㅋ

- 어쩐지 잘하시네요

하하 감사합니다. 하고 끝.

이렇게 또한 다사다난했던 비자신청도 마무리.
지금은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다.

* Written Commitment 샘플 첨부

첨부파일

Written Commitment sample.docx

[파일 다운로드](#)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유학 :: CV 작성법, 포맷, 주의할점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18 16:52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34553247>

유학 서류 준비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 준비 서류 중,

CV (Curriculum Vitae) 준비에 대해서.

to upload the following documents relevant for your chosen study programs:

- **Signed declaration of consent**
- **Current photo, in color, aspect ratio 3:4, image size at least 400x533 pixel**
For the [UZH Card](#). Please make sure that the aspect ratio is correct, and edit the photo if necessary. Your head should be photographed in a frontal pose against a neutral background providing good contrast, and it should take up about 80% of the photo.
- **Copy of official identification (passport or ID, no residence permit)**
Please scan the front and back of your ID.
- **CV**
- **Upper secondary school-leaving certificate**
Please scan all pages of the document. If you have studied at a Swiss university before, also scan the sticker with the Student ID Number.
- **Transcript of records, university diploma and diploma supplement**
If you have not yet completed your studies you will need to provide an official interim transcript of records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your studies (requirements still to be met and your probable date of completion).

직장인의 스위스 유학 ::: 서류 준비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서류준비이다. 서류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귀...](#)

[blog.naver.com](#)

▲ 이전 포스팅 참고

내가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준비한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CV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쓰기 엄청 싫어하고 질척거릴걸 알아서
무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반복수정을
거치면서 엄청 천천히 써뒀기 때문이다.

CV는 [이력서]라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의무교육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
극도로 평범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번 쯤은 써본 바로 그런 것이다.

나도 이 지루한 인생의 단계를 전부 수행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력서를 몇 번 써본적이 있다.
다만 이직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가장 최근 이력서가
7년전이라는 맹점이 있긴 했지만ㅠㅠㅎㅎㅎ

취업 당시 이력서를 들춰보기 위해서
이전에 써둔 이력서제출현황 포스팅도 뒤져보고
(비공개 포스팅임) 잡코리아에서 휴면된 아이디도
다시 찾아내고 그랬다.
내가 2013년 취업당시에 회사를 총 17군데나
지원했더군... 그때 작성했던 이력서를 참고했다.

왜 내 자신이 해온 발자취를 적는데 이렇게
주어짜내는게 힘든가 싶지만ㅋ
난 내가 재밌어하는거 위주로 해와서 그런지

딱히 CV라는 곳에 멋들어지게 적을게 없더라고...
내가 진심 뿌듯해하는 경험은 1년간 스쿠버다이빙을
20회이상 했다. 2018년에 해외여행을 11번했다.
뭐 이런건데요... ㅋ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되도안하는
성취(?)에 대해 늘어놓는다는게 너무 오그라들어서
쓰지 못하고 주저하는 시간이 길었다.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성취한 것 없는데.
CV에는 열심히 살아온 척 오지네 ㅋ
좀 이런느낌? 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생각은 생각이고 제출은 해야하니까.
또 우리의 구글신을 뒤져서 참고할만한
포맷을 찾아내서 작성했다.

〈작성법〉



심플해보여서 오렌지랑 검정만 사용했다.

최상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적었고

섹션은 4파트로 나누었다.

개인정보 섹션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딱맞춘 A4 1페이지를 만들었다.

1. Education

어느 학교 무슨 전공 등 적고 졸업학점,

전액장학 받은 경험 등을 적었다.

단기어학연수 다녀온 것도 적었다.

2. Work Experience

나는 한 회사에서 총 3개의 부서를 거쳐봤으므로
각각 적었다. 무슨 업무를 수행했고, 두드러지게
성취한 업무는 무엇이 있었나 정도(없지만 주어짜서)

3. Extra Curricular

적고는 싶은데 위 두 섹션 어디에도 포함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적었다. 나는 외부강의 수료, 스터디그룹 리더,
수학/영어 개인과외 5년경력 등을 적음.
더 적을 수 있겠지만 일단 1페이지를 넘기기 싫었고
(누가 나에게 1페이지 이상 CV주고 읽어보라하면
나도 안 읽을테니까 남도 똑같을거라고 생각함)
일단 내가 지원하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 최대한
그나마 관련있는것만 적기로 했다.

4. Skills & Interests

IT Skills / Languages / Interests로 나누어 적었고
여긴 그다지 개인적인 내용은 없어서 캡쳐 첨부.

SKILLS & INTERESTS

IT Skills	Microsoft Word, Excel, PowerPoint, R programming, SAS, SQL, Python
Languages	Korean(Native), English (Advanced), Chinese(Intermediate-high)
Interests	Dancing Performances, Blog, Scuba Diving, Snowboarding, Surfing, SUP, Ukulele, Travel
	Blog URL : http://blog.naver.com/imyourbest (3,000 followers)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SQL같은것도
꼴에 수업 몇번 들었다고 같이 적었다.
Interests를 적을 때가 제일 신났다 ㅋㅋㅋㅋ
블로그도 당당히 한줄 차지했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주우욱 잘 써내려간 것 같지만
실상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력서 쓰는것 자체도 싫어죽는데
영어로 써야하니까 더 싫어가지구...

그/런/데 정말 정말 정말 우연한 기회로,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일대일로 영문이력서를
컨설팅해준다는거 아님?!?!?!? 공짜자냐...
이런 좋은게 있다니 ㅋ 급행복했음
딱 CV 써놓고 이거 그냥 제출해도 되나... 긴가민가
하던 시기여서 '오!나를 위한거야!'하고 바로 신청.

완죤 력키걸이자나? 개이득



현재위치는 서울해외취업센터 1:1 영문이력서 컨설팅 안내 작성자 이재형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6,672 컨설팅 신청하기 이전글 ['19년 11월 5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발표 다음글 2019 부산 해외취업 아카데미 캠프 참가자 모집(11/27~12/11) 목록 보기

www.worldjob.or.kr

물론 이건 취업용 CV 첨삭이었지만
취업용이든 유학용이든 CV를 제대로 쓴건지 뭔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원했다.
두근거리면서 방문했다.

컨설턴트분이 처음에는 취업용CV가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 당황하셨지만 ㅋㅋㅋ

내용과 구성에 대해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그 길로 집에 와서 바로 수정하고 Complete!

다행히 내용자체에 대한 수정은 없었고,

두가지 큰것을 변경했다.

1) 정말 이력서 안 써본 티가 났던게...

가장 최근 내용이 더 상단에 와야하는데

나는 가장 최근내용이 맨 아래오는 시간 순서로 썼었다.

하핳핳 ㅋㅋㅋㅋㅋㅋㅋ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2) 한국어로 따지면 '~했음' '~였음' 이런 식으로

과거동사를 사용해서 시작했어야 하는데

(Researched, Analyzed, Achieved, Produced...)

나는 주어부터 시작하는 '문장'형태로 적었었다.

이건 뭐랄까. 자소서같은 느낌?

이력서는 컴팩트한게 좋아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짹 고쳤다.

이렇게 CV개초보의 혼란기를 여차여차 넘길 수 있었다.

혹시 포맷 쓰실분을 위해 CV 포맷 첨부한다.

첨부파일

CV format.docx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유학 :: Course description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12 16:11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8652330>

유학 서류 준비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 준비 서류 중

Course description 준비에 관해.

직장인의 스위스 유학 ::: 서류 준비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서류준비이다. 서류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귀...](#)

[blog.naver.com](#)

▲ 이전 포스팅 참고

나는 그냥 내가 번역을 했고

공증은 받지 않았다.

초록창에 검색했을 때 자꾸

공증 얘기가 나와서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출 및 합격에 아무런 문제 없었다.

물론 유럽학교들에 한해서 일수있음 주의.

<작성과정>

Course description을 만들 때는
일단 학교포털에서 출력해 놓은
원본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1. *Course name*(강의명)
2. *Code*(강의번호)
3. *Credits*(이수학점)
4. *Language*(강의언어)
5. *Teaching*(강의시간)
6. *Course content*(내용)
7. *Prescribed books*(교재)
8. *Examination*(시험)

8가지를 차례대로 표로 정리해서 넣었다.
포맷 또한 구글링 없이 그냥 내가 만든거라
적절한 양식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주절주절 적는것보다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래처럼 표 형태로 만들었다.

Course description(Translated)

Applicant :

* Credits : Based on Bachelor's college standard

** (E) : Lecture in English

Course name	Basic statistics	Code	0082
Credits	3	Language	Korean
Teaching	3 hours of lectures per week		
Course content	Lecture on basic theories and methods of statistics, including data organization and summary, diagrams, probability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estimation and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lecture aims to cultivate a quantitative approach and application in a variety of academic fields.		
Prescribed book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atistics by Sangik-Kim and 4 others		
Examination	Midterm and Final written examination		

Course name	Elementary statistics II	Code	3352
Credits	3	Language	Korean
Teaching	3 hours of lectures per week		
Course content	Learn basic theories and applications for inductive statistics as a continuation of basic statistics 1. In particular, by learning the techniques related to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in-depth, lecture cultivates the ability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the actual application problem. During the lecture, students will solve practice questions and learn analysis using computer packages.		
Prescribed book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tatistics by Sangik-Kim and 4 others		
Examination	Midterm and Final written examination		

Course name	Calculus	Code	3358
Credits	3	Language	Korean
Teaching	4 hours of lectures per week		
Course content	As a prerequisite to statistics major, the lecture aims to practice the basic concepts of limit of a sequence, Taylor series, matrix, infinitesimal calculus, and their applications.		
Prescribed books	Statistical Mathematics by Woosun-Lee, Giheon-Choi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하단에는

The original texts of the course description

are from next page. 문구를 넣어두고

원본(국문) 강의계획서를 PDF합치기로 뒤에 붙였다.

*

PDF합치기, 용량 줄이기, PDF확장자 변환

할 때 사용했던 사이트▼

[Free Online PDF Converter](#)

This free online converter allows to convert various file formats (doc, docx, xls, ppt, jpg, png...) to PDF right in your browser.

[topdf.com](#)

포맷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해 둔다.

의미는 딱히 없겠지만 내가 번역해둔 전체 코스도

볼 수 있다.(총 4페이지)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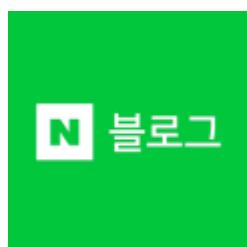
Course descriptions.xlsx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유학 ::: 서류 준비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10 08:39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6585275>

유학 서류 준비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서류준비이다.

서류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귀찮은 것들이

많아서 은근히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서류만 완료해도

준비의 90% 이상 끝난 셈이다.

지원만 팍팍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 석사를 지원하든

필수적인 서류는

1. 학부 졸업증명서(원본/영문판)
2. 학부 성적표(원본/영문판)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영문판)
4. 고등학교 성적표(원본/영문판)
5. 여권
6. 영어성적

추가적으로

CV, Motivation Letter, 재정증명서,

Course description을 요구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역시나 항상 그래왔듯이

입만 살아있는 프로허세라이기 때문에

이 기본들도 어려워서 오래걸렸다 ㅋㅋㅋㅋ

발등에 불떨어져야 하는 타입의 절정을 보임ㅋ

Master's Program – Applicants with Foreign Qualification

Fact Sheet: Documents to Submit

When filling out the online application form, under the section “documents to submit” you'll be asked to upload the following documents relevant for your chosen study programs:

- **Signed declaration of consent**
- **Current photo, in color, aspect ratio 3:4, image size at least 400x533 pixel**
For the [UZH Card](#). Please make sure that the aspect ratio is correct, and edit the photo if necessary. Your head should be photographed in a frontal pose against a neutral background providing good contrast, and it should take up about 80% of the photo.
- **Copy of official identification (passport or ID, no residence permit)**
Please scan the front and back of your ID.
- **CV**
- **Upper secondary school-leaving certificate**
Please scan all pages of the document. If you have studied at a Swiss university before, also scan the sticker with the Student ID Number.
- **Transcript of records, university diploma and diploma supplement**
If you have not yet completed your studies you will need to provide an official interim transcript of records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your studies (requirements still to be met and your probable date of completion).
- **Proof of sufficient skills i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Please note the list of recognized language certificates as well as the criteria for exemption from submitting [proof of language competence](#). This document can be submitted at a later date but must be available before the matriculation. We recommend to submit it as soon as possible.

Faculty of Science:

- **Course content: Brief overview of content of attended modules/courses**

The course content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transcript of records. The content of the modules/courses is usually available in the course catalogue of your university.

▲ 취리히 대학교 석사과정 필요서류목록.

나는 Motivation letter와 재정증명서류를
supplement로 제출했다.

*

일단 가장 먼저 확정지은 서류는 영어성적.

나는 2019년 10월에 아이엘츠(IELTS)를 봤다.

미국 대학원을 가려면 토플을 봐야하는 것 같은데

유럽 학교들은 아이엘츠를 99% 이상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아이엘츠 해도된다

Test Date	:	2019.10.12
Listening	:	8
Reading	:	7.5
Writing	:	6
Speaking	:	6.5
Overall	:	7

[아이엘츠\(IELTS\) 오버룰7.0, 내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것ㅠㅠ](#)

[아이엘츠 결과를 오늘 받아서 그동안 쓰고 싶던아이엘츠 후기를 쓰고 있다!공부하는 내내 어...](#)

[blog.naver.com](#)

Overall 7.0이면 웬만한 곳은 다 지원가능하다.

대부분이 6.0~6.5를 요구하고 7.0도 종종 있다.

근데 Overall도 중요하지만 Writing에 대한

최저요건이 있는 곳이 꽤 많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있으면 대부분 Writing 6.0이상을 요구했는데

나도 턱걸이로 들어가서 다행 ㅋ

Recognized Language Certificates for English

The University of Zurich recognizes the following language certificates for English that correspond to level C1 or higher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Certificate	Required Score or Designation
IELTS Academic	7
TOEFL* – Paperbased	600
TOEFL* – Computerbased	250
TOEFL* – Internetbased	100
Cambridge** Proficiency (CPE)	CPE
Cambridge** Advanced Certificate (CAE)	CAE

▲ 예시로 취리히 대학교는 아이엘츠 7을 요구했다.

*

이 때만 해도 유학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서
느릿느릿 하고 있다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지원기한이 12월1일까지라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2019년 11월에 졸업한 대학교도 들르고
고등학교에도 진심 100만년만에 들러서
졸업증명서와 성적표를 떼왔다.
나는 좀 운이 좋은 편이었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전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휴가 쓴날 설렁설렁 다녀왔다.
여기에 운다 써서 회사가 겁나 먼듯 ——
지하철 18정거장임.....
당연히 원본(국문)과 영문판을

둘다 받아야한다.

제출용이라고 영문버전만 받아오면 안됨.

서류만 덜렁 떼가기가 뭣해서 너무 오랜만에

고등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옛날 선생님들을 뵈었는데,

생각보다 변하신게 없어서 놀랐다 ㅋㅋㅋㅋ

그때는 합격전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어엿하게 6년이상

직장다니고 있는 모습이 대견해보이시는지

쌤들이 좋아하셔서 나도 기뻤다

덕분에 이 이후에도 스승의 날때 연락도 드리고

응원도 받고 있다 :) ㅋㅋㅋㅋㅋ



초롱초롱 투브

그래 어디서든 건강히 잘지내고
하고자하는일 잘되리라 기대한다.

오후 10:43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

오후 11:03



초롱초롱 투브

이따금 연락하고 좋은 소식 기대하마~~

오후 11:08

*

여권은 쉽다. 앞면 잘 보이게 스캔 ㅋㅋ

주의할 점은,

여권 만료기한 잘 보고 6개월이상 남지 않았으면

재발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지원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자발급이나 추후
다른 서류제출시 기준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정증명서도 껌이다ㅋㅋ 은행가서

재정증명서(Bank statement) 떼달라고 하면 됨.

혹시 돈 많아보이면 더 좋을까 싶어서

계좌 하나에 열라 몰아놓고 나서 요청했다.

난 우리 회사 계열사인 은행에서 뽑은거라

재정증명서 출력비용이 공짜였음 히히

아마 1장당 2천원 할거다.

국가를 여러군데를 지원해가지고

노르웨이 크로네로도 떼놓고 미국 달러로도 떼놓고

스위스 프랑으로도 떼놓고 했다.

학교마다 재정증명서류에 대한 통화를

정해놓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겠지만,

유럽국가는 대부분 유로로 하면 받아주는 것 같다.

Proof of Sufficient Financial Means

You need to prove that you have the financial means to cover the costs of studying and living in Switzerland. Suitable documents include your own bank statements and confirmation of your scholarship or a guarantee from a person resident in Switzerland.

- The Migration Office of the Canton of Zurich requires a confirmation from a Swiss-domiciled bank (foreign bank with a branch in Switzerland OR a Swiss bank with a branch in your home country) stating that you have access to the equivalent of CHF 21,000.- at the beginning of your studies. The account must be held in your own name and the currency must be Swiss francs, euros, or US dollars.

▲ 취리히 대학교의 경우에는 21,000프랑이상의

재정증빙을 요구한다(2,666만원정도)

어차피 이정도 없이 스위스 가겠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Course description은 강의설명서인데

그 우리 수강신청할 때 포탈에서 열어볼 수 있는

바로 그 강의설명서들이다.

이 또한 원본(국문)과 영문판이 둘다 있어야 한다.

내가 졸업한 학교의 경우에는 강의계획서가

국문뿐이고 영문버전이 지원되지 않았다.

꾸진 학교... 인건가 원래 다 그러나?ㅋ 암튼ㅋ

일단 국문으로 다 출력해놓고 나는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번역했다.

번역을 뭐 해본적이 없다보니ㅋㅋㅋ 그냥

알아만 들으면 되는거 아니야? 싶어서

나의 친구 너의 친구 파파고와 함께

합심하여 열심히 번역하였음.

모든 강의를 다 번역하지는 않았고,

지원요건에 맞는 강의들만 추려서 번역제출했다.

번역공증인가? 그건 받지않았다.

그냥 나의 번역 이꼬르== 제출용ㅋㅋㅋㅋㅋ

지원한 학교 중에서 강의계획서 때문에

문제 있다고 한 학교는 없었다!!!

포맷은 그대로 학교 강의계획서대로 했다.

내 번역본을 참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Course description 예시는 다음 포스팅에.

*

이제부터 진짜 서류 시작이다.

CV(Curriculum Vitae) - 이력서

Motivation letter - 자기소개서

두가지인데 가장 최근에 이력을 써본게 무려

7년전이라 처음엔 에휴... 막막...— 싶었으나

각잡고 쓰니 어찌어찌 되기는 했다.

CV는 포맷을 두고 써서 그래도 금방 썼고

ML은 줄줄 글줄로 쓰는거라 몇 번 퇴고를 했다.

CV는 안에 내용이 안 바뀌니까

계속 같은 서류로 지원했는데,

ML은 회사에 따라 자소서가 달라지듯이

학교와 국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바꿔가며 썼다.

다음 포스팅에 CV와 ML포맷 및 내용을

포스팅할 예정. 개인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그대로 업로드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고민많이 했기 때문에 ㅋㅋㅋㅋ

내용이 길어질 거라 다음으로 넘긴다.

다 제출서류가 비슷해도 학교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달라서(원본과 영문판을 1파일로
제출하라, 따로 제출하라, 고등학교+대학교
전부 합쳐서 1파일로 제출하라 등등)

나중에는 너무 헷갈려서
풀더 하나에 학교별로 정리해서 넣어두었다.

application documents

이름	수정한 날짜
Ku leuven	2020-02-29 오후 11:...
Leiden	2020-05-26 오후 5:27
NMBU	2020-02-13 오후 1:03
Nova IMS	2020-05-26 오후 5:27
oslomet	2020-02-13 오후 1:03
Padova	2020-02-29 오후 11:...
syllabus	2020-02-13 오후 1:03
Tilburg	2020-03-29 오후 9:33
UiO	2020-02-13 오후 1:03
UiT	2020-02-27 오후 11:...
최초원본	2020-06-01 오후 7:44
BachelorDegree(English).pdf	2019-11-17 오후 1:31
BachelorDegree.pdf	2019-11-20 오후 8:15
BachelorDiploma.pdf	2019-11-20 오후 11:...
BachelorTranscript(english).pdf	2019-11-17 오후 1:33
BachelorTranscript.pdf	2019-11-20 오후 8:15
Course descriptions.pdf	2019-11-19 오후 6:42
Course descriptions.xlsx	2019-11-19 오후 6:39
declaration of consent.pdf	2020-04-03 오후 6:47
English.jpg	2019-11-06 오후 9:30
financing.jpg	2019-11-17 오후 1:49
financing.pdf	2019-11-17 오후 1:50
HandlingFee paid.jpg	2020-04-01 오후 11:...
HighSchoolDiploma.pdf	2020-02-28 오전 9:04
IELTS.pdf	2019-11-20 오후 11:...

*** 뭔가 빠진 것 같은가? 맞음 ○○

바로 추천서이다...

Letter of recommendation

학교다닐 당시에는 잘 지낸 교수님들이 있어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찾아뵙질 않아서
난 추천서 받기가 좀 꺼려지고 귀찮았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추천서가 리스트에 있는 학교는 지원 제외^^

근데 사실... 이러면 안된다 ㅋㅋㅋㅋㅋ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추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대(ETH)나
로잔공대(EPFL), 독일 뮌헨공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등 유명한 학교들은
모두 추천서를 요구하며 한개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까지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
물론 저 학교들은 추천서 아니어도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written exam이 있거나
essay를 요구하기도 해서
나에겐 너무 힘든 곳이다 ㅋ

귀찮은 서류나 지원전형은 다 제외시키고
지원한 거라고 보면 된다 ㅋㅋㅋㅋㅋㅋ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석사 유학 :: 국가선택과 석사전공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06 23:05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3148112>

전공 선택과 국가 선택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내가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택하게 된 계기는...

딱히 없는 듯.

?

뭐가 있어야 하진 않잖아요ㅋ

그냥 요즘 핫하대요.

그게 끝이다..

난 회사에 불만은 없다.

나랑 업무가 그닥 맞지는 않았지만 뭐 다들

100% 맞는 업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를 괜찮게 해서 인정도 받고 있고

적응되가지고 쉽게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건 없었다.

난 재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딜가도 써먹을수도 있어서

딱히 물경력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업종특성상 제한적이긴 해도)

말이 잘 안나오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혼자 있고 싶어요..

실어증입니다.



회사자체도 급여 복지 부서사람들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었다.

그냥 내가 내 생활에 질려서 다른거 해보는거다.

내 주변 상황은 나에게 뭔가 압박을 하지 않았음...

오히려 유학준비가 나에게 압박을 가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고 ㅋ

그걸 다음포스팅에 써야겠군.



@panda_crush_sg

엄마가 나 버릇나빠질까봐 숨겨놨던 건물을 줄때가 됐는데 왜 안주지

2017년 07월 22일 · 9:26 오후

3,241 리트윗 463 마음에 들어요

그 [다른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그냥 여기저기서 데이터가 트렌드라고
몇년전부터 얘기하는걸 듣고만 있다가
매우매우 느릿느릿 행동에 옮겼다.

2017년쯤인가부터 조금씩
파이썬강의도 깔짝거리고 edX나 Udemy
같은 강의 사이트 들락거리면서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머신러닝 수업도 들었다.
좀만 어려워져도 못 따라 가는 내 뇌를 한탄하면서
항상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공부를 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에 남은건 1도 없다.
진심 하나도 몰라서 맨땅에 헤딩하려 가야함...

그나마 최근에 들은 데이터사이언스 입문과정이
머리속에 미립자라도 남아있길 바랄뿐이다.

말 그대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냥 한번 해볼까? 를 넘어선 적은 없다.

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배우면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대'

등의 아웃풋을 기대하는데,

나는 나를 잘 알지 ㅋ 졸업이나 하면 다행이예요.

제발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부탁

그럼 정말 일말의 연결고리도 없었나 하면.

그건 또 아니긴 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서울4년제 통계학과를 졸업해서

데이터나 수학과 완전 동떨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원하다보면 빠져리게 알게된다.

통계학과 전공으로는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지원을 위한

요건 충족자체가 안된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엔지니어링

이런쪽 기반 학점 또한 요구하거든.

그 말인 즉슨 이걸 모르면... 가서 수업따라가기도

사실 조금 힘들다는 의미도 있겠다.

하... 걱정이 태산이구만.

게다가 난 졸업한지 8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한 경력이 데이터사이언스와 1도 무관.

대학별로 홈페이지를 하도 많이 읽어서 기억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선호 학부전공을

당연히 데이터사이언스, 그다음이 컴퓨터사이언스,

수학과, 컴퓨터엔지니어링, 맨 끝찌가 통계학이거나

아예 통계학이 선호전공에 없는 학교도 많았다.

그래서... 난 비빌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동안 들었던 강의중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출을 했다.

학점 인정은 안되지만 뭐라도 했음당 하고 보여줄려고.

VERIFIED

CERTIFICATE of ACHIEVEMENT

This is to certify that



successfully completed and received a passing grade in

6.00.1x: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and Programming Using Python

a course of study offered by MITx, an online learning initiative of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 Eric L. Grimson

Bernard Gordon Professor of Medical Engineering
Chancellor for Academic Advancemen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John Guttag

Dugald C. Jackson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nd Electrical Engineer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Krishna Rajagopal

Dean for Digital Learn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VERIFIED CERTIFICATE
Issued March 26, 2020

VALID CERTIFICATE ID
af9973a01d01454aba2d2f359c9305e8

이런류. 쓸모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렇다고 아예 무관한 비전공자가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못하느냐면 그건 또 아니다.

전공명중에 business나 digital, society,
entrepreneurship, marketing 등이 섞이면
요건이 좀 완화되는 감이 있고,
(공부가 더 쉽다는거 절대 아님. 지원요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소속대학이 Business이거나 뭐 이런 비슷한 류면
확실하게 허들이 많이 낮아져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은 1년이나 1.5년짜리도 많은데
나는 무조건 2년이상 코스만 보았다.

정말 1도 모르고 가니까 2년 이상은 각잡고
공부해야 뭘 좀 알고 왔다 싶을것같았다.

나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혹은
컴퓨터사이언스 전공내 데이터사이언스 세부전공인
공학석사로 졸업을 하길 원했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없길 바랬어서
최대한 그런 학교들만 골랐다.

근데 솔직히 데이터사이언스 너무 챌없다.
핵노잼...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재밌어서 하는거임?
아 진짜 재미없고 하기 싫어
근데 유학가겠다고 해서 일단 가서 공부한다
나는 생각이랑 행동이 진짜 따로 노는듯ㅋㅋ

이렇게 전공은 나의 흥미와 무관하다는 결론.

국가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최초부터 나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시작했다.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솔직히 미국을 추천합니다. 다 미국가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너무 싼 미국과 영국을 뺐음.
유학가서 파산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겠다고 설치면 내 멘탈이 바사삭할것 같고.
별로 둘다 딱히 살아보고 싶지도 않고(정신승리)

유럽이 제일 끌려서 유럽국가들로 찾아봤고
그 중에서 서유럽, 북유럽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다.

국가 1개를 찍어서 지원한게 아니라,
여러 국가의 학교를 지원했다.
코로나 때문에 5월이나 되서야 대부분 다 발표가 났고,
그 후부터는 진심 골머리 싸매며 선택을 했다.

우선 1차적인 거름망

블로그 이웃분인데 유럽이민 전문가이시다.
고민하다가 쪽지 드렸는데 답변을 친절히 주셔서
감사했다. 이 분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므로 잘못된 정보를 주시진 않을 것임.
스위스와 독일로 좁혀졌다.

저는 스위스 혹은 독일 중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스위스도 현지 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구직비자가 존재합니다.

네덜란드도 있기는 한데...

그 후 취업해서 이어나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성공 사례가 많고, 스위스도 의외로 있습니다.

우선 학비가 스위스, 독일이 월등하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취리히라는 주요 도시를 고려하면 이쪽으로 더 기우네요.

2차적인 거듭망은 지인찬스.

독일에서 8년 거주(석사까지)한 지인이다.

3연타로 스위스 취리히를 강력 추천해서

독일 또한 제외시켜버렸고 스위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독일 잘 되어있죠

거긴 대학생 천국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과 어울려봤자 좋은 꼴은
못봐요

오후 1:00

석사졸업하고나서

오후 1:01

저라면 강 취리히 고입니다

오후 1:01

취리히 좋은 학교에요

오후 1:03

네네 제가 알아보눈게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ㅜㅠ 도저히 안되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오후 1:03

잘하셨어요

오후 1:03

특히 스위스 정보가 아예없어요

오후 1:03

스위스는 한국인들이 잘 안가죠

오후 1:03

워다고해도 호텔하고 음대만 있어요

오후 1:03

물가때문에

저라면 취리히에 한 표

오후 12:58

가서 저

오후 12:58

땅파먹고 살아야할까요

오후 12:59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난 인복이 많은것 같애 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인복크리티컬 터진게 또 있다

이 이후 포스팅에.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 해주세요! -

 블로그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직장인의 스위스 유학 준비 :: 학교 선택하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05 19:48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1893720>

학교 선택하기 :::

30대 직장인의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데이터사이언

스 석사 유학

영국을 제외한 유럽권은

실상 유학에 대한 정보자체가 거의 없다.

네이버에 뒤져봐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 볼수있는 정도의 피상적인 얘기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이 조금 있다고 해야하나?

거기는 유학생 자체가 많아서 그런것 같다.

독일은 확실히 유학생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음.

내가 처음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오랜시간이 걸려 마음은 좀 결정이 된거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시작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

준비기간내내 손품을 무지하게 팔은것 같다.

구글신이여...

내가 준비하면서 알쏭달쏭하고 힘든게 많았어서

꼭 블로그에 글로 남겨놔야지 했었는데
드디어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

유학원쪽 일을 하던 친구도 나에게
"유럽은 정보가 없어... 하는 유학원이 없을걸?
어떻게 준비했어?"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특히 내가 대학생이면 모르겠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려니까 너무 빡세서 ——:::
이래서 준비기간이 한없이 늘어났었다...

유학원에 전화란 전화는 다 돌려보았다.
돈을 내고서라도 대리로 좀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게다가 나 마지막으로 학교다닌게 8년전이예요...
어떻게 뭘 한지도 기억모답니다....
정말 작은 영세업체 유학원까지 다 전화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주로
"영국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영국 안 보세요?" 였다.

"네 학비가 예산초과여서 안봐요."

그래서 아무튼 덕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아서 했기에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싶다.

학교 홈페이지 꼼꼼히 읽기

학교 홈페이지는 정말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정보를 주는 곳이라
당연하게 자주 봐야한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또 읽고 또 읽어야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이트는 참... 다 잘 되어있는데

외국사이트는 왜 다 이지경인지
진짜 뭐 하나 찾아보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더 빡치고 지친다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좋은나라)

아무튼 무슨 학교 선택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자냐?

Mastersportal 위시리스트 만들기

이 사이트는 석사과정 모음집이다.
일단 어느학교에 내가 원하는게 있는지 알아야하니깐
나는 동유럽말고는 유럽을 기본적이 없어서
다 생소하거든요

<https://www.mastersportal.com/>

내가 원하는대로 찾아서 위시리스트에 넣을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서
위시리스트만 백만번 바꾼 것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Mastersportal homepage with a banner featuring a smiling woman and the text "EXPLORE ALL YOUR OPPORTUNITIES". Below the banner are search fields for "What do you want to study?" and "Where? (country, organisation)". To the right, a "Wishlist" sidebar is open, showing a list of saved programmes. The first programme listed is a "Data Science" M.Sc.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Oslo in Norway, offered full-time for 24 months with a Dec 2020 application deadline. The sidebar also includes a toggle for "Compare programmes" and a location filter set to Potsdam, Germany.

Programme	Location	Duration	Fee	Deadline
Data Science (M.Sc.)	Potsdam, Germany	24 months	0 EUR/full	Dec 2020
Data Science (M.Sc.)	University of Oslo, Oslo, Norway	24 months	0 EUR/full	Dec 2020

나 같은 경우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면 어디든 괜찮지만
우리나라보다 낫거나 비슷한 선진국쪽으로.

라는 1차적인 거름망이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선진국이라 깜짝
놀랐다는건 안 비밀. 우리나라 레알 좋은나라222)

2차적으로는 역시 등록금.
등록금이 연간2,000만원이 넘으면 제외했다.
(이것도 중간에 불합격 계속 뜨면서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변경되었다. 등록금 비싸도 그냥 갈까?하면서)
그리고 나는 장학금을 내가 못 받을거라고 가정하고
일부러 등록금 전체금액으로만 놓고 항상 찾아봤다.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맘편하지. 암.

3차적으로는 그냥 ㅋㅋㅋㅋ 말그대로 개취.
예를 들면 나는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가 안 끌려서
프랑스 학교들은 아예 찾아보질 않았다.
가본적도 없으면서 그냥 별로야.
외규장각 털어가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여러번 걸러도 검색결과가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홈페이지를 들어가 볼수 밖에 없긴하다.

학교 랭킹 참고하기

QS랭킹 사이트는 학교를 찾아보는 용도는 아니고
대충 찾아본 학교를 수치로 검증하는 용도로 썼다.



Home

[University Rankings](#) Compare top universities from around the world by subject, destination and more. See [more Events](#) In-person and online events that bring together universities, experts and more. Find an event for [your city](#) Find a course Narrow down your university search by answering a series of ...

www.topuniversities.com

주의할점은 QS랭킹이 절/대/로/ 답은 아니고

대략적인 랭킹만 참고해야 한다.

예를들어서 어떤 학교가 30위고 어떤학교가 50위인데

다른랭킹에서는 서로 바꿔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큰틀만 참고해야하고 세세하게

30위가 50위보다 무조건 좋아 이러면 안됨.

+++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글에

대학교이름+ranking으로도 검색해서

더 참고하긴 했다.

내가 최종결정까지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던

학교들을 보자면 이렇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University of Zurich

📍 Rämistrasse 71 Zürich,
Switzerland [View map](#)



Add to
shortlist



Compare

QS Global World Ranking ⓘ
#=69

Status ⓘ
Public

Research Output ⓘ
Very High

Total Students ⓘ
21,986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



Universiteit Leiden The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 Rapenburg 73 Leiden, Netherlands [View map](#)

Get in touch [View website](#) Watch video Add to shortlist Compare

QS Global World Ranking ⓘ
#=128

Status ⓘ
Public

Research Output ⓘ
Very High

Total Students ⓘ
31,702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교



Università di Padova

Via 8 Febbraio, 2 Padua,
Italy [View map](#)

[Get in touch](#)[View website](#)Watch
videoAdd to
shortlistDownload
Center

QS Global World Ranking ⓘ

#216

Status ⓘ

Public

Research Output ⓘ

Very High

Total Students

45,407

벨기에 루벤 대학교

KU Leuven

Oude Markt 13 Leuven,
Belgium [View map](#)

[Get in touch](#)[View website](#)Add to
shortlist

Compare

QS Global World Ranking ⓘ

#84

Status ⓘ

Public

Research Output ⓘ

Very High

Total Students ⓘ

46,615

국가가 다양하기도 하지 ㅋㅋㅋㅋ

다 최종합격한 학교들이다.

전부 명문학교들이지만 각각의 이유로 포기하였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 Leiden university는

학비가 너무 싸서 포기했다. 1년에 18,300유로.

그리고 내가 지원했던

Data Science: Statistical Science(MSc)커리큘럼이

통계학에 치중되어 있어서 마음에 좀 안 들었다.

(합격발표후에 커리큘럼을 읽어봤다는거 ㅋㅋㅋㅋ

원래 준비라는게 그렇지 뭐 대충 하면 된다 사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약간...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
하면서 좀 돈벌이를 하려는것 같은 느낌을
구글링을 하면서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제외.
대신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생활이 편할것 같아서 고민했었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교 Padova university는
정말 오래된 명문교이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있었던 학교이다.
학비는 1년에 2,600유로로 저렴하고, 물가도 나쁘지
않을것 같고 무엇보다 날씨가 좋을것 같아서 고민함.
난 날씨에 기분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근데 4월 당시 이탈리아가 코로나확진자 1위를 달리고
있을때 갑자기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 국가 뭔가 이상한데....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제외.

벨기에 루벤 대학교 KU Leuven는 벨기에 1위
대학교이며 학비도 1년에 1,750유로로 저렴하다.
커리큘럼이 정말 좋다고 들어서 누가 간다고 하면
추천해주고 싶다. 내가 지원했던
MSc Statistics & data science 는
통계학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제외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한 학교이긴 하다.
루벤 대학교는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1학기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고 연락받았다.
사실 벨기에 인종차별이 다른 국가보다도 심해서
포기한 것도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University of Zurich(UZH)
내가 최종선택한 학교이다.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 세계랭킹 6위)에 비하면
떨어지는게 사실이지만 스위스 명문학교이고
학비가 1년에 1698유로로 거의 없다시피 한다.
커리큘럼도 대략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취리히가 대도시기 때문에 벤두리 지역보다
나을것 같은것도 있었고.
고민한 이유는 역시나 물가... 물가... 물가!
생활하는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었다 ㅠㅠ

지금은 최종결정을 했으니 더 이상 고민은 안한다.

내가 사실 유학을 준비하고 정말 가고 싶게 만들었던
학교인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는 광탈했지만...
크게 아쉽지는 않다.
왜냐면 오슬로대학교는 아주 친절하시게도
경쟁률을 합격통보와 함께 발표해주셨는데
합격률이 2%였다.... 오타낸거 아님.
(438명 지원에 10명 합격)
내가 합격하면 로또였네 ㅋㅋㅋㅋㅋ

레딧, 헬로우톡 활용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학교자체의
분위기나... 그런거 있잖아요 왜...
그런거는 알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구글에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잘 안나옴.

그래서 항상 했던게
레딧커뮤니티에서 검색해서 질문한 사람있는지
답변있으면 참고 했고,
[reddit: the front page of the internet](#)
[Welcome to Reddit, the front page of the internet. Become a Redditor and join one of thousands of communities. × popular in: Everywhere 1 27.2k Kanō Jigoro, the legendary founder of Judo. Despite being a smaller man, he could toss large men with ease, but only after persistent studying and practice....](#)
[www.reddit.com](#)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어플중에서 헬로우톡이라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어플
다운받아서 대학교가 속한 지역으로 고정시켜놓고
해당 외국인들에게 그 대학교에 대해서 질문했다

자기가 그 학교 학생이다, 혹은 자기가 부교수다 라는
사람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쿨리티 있는
답변을 많이 받았어서 강추.

나만의 대학리스트 만들기

너무 대학마다 모집요강이 다양하고
특히 내가 지원하는 데이터사이언스가
요즘에 핫한 전공이라 그런지 왜인지 요건이
더 까다로운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학교들이 발표가
진짜 안 미뤄진 곳이 거의 없어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던건 사실이다.
저 언제 합격하나요 엉엉 ㅠㅠ

노르웨이 학교들이 지원시기가 빨라서
2019년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낙태함과 이게 맞는 길인지
내내 고민하느라고
준비를 했다 안했다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지원을 놓친 학교들도 있고 뭐 그렇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지금은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세트로 묶어서
'어차피 추운나라가면 우울증 걸릴거야'

하면서 지 혼자서 정신승리중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대학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 좀 한눈에.... 보고 싶었지만 리스트가 왜인지 모르게 점점 길어지기만 했다 ㅋㅋㅋ

The screenshot shows a Microsoft Excel spreadsheet with the following columns:

- A: Index
- B: Country
- C: University Name
- D: Application Fee (euro)
- E: Application Deadline
- F: Application Type
- G: Application Status
- H: Application Requirements
- I: Grade
- J: Result
- K: Note
- L: Recommendation
- M: Summary

Key data points from the table:

- Row 1: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Switzerland, 596.00, 2020-04-15, 지원완료, 76, 최상, 합격, PICK!!!, Reference 대문에 보기
- Row 2: Italy, University of Padova, 2,600.00, 2020-02-18, 지원완료, 234, -3/7 그리고 두번째도 있음 4/7~6/7, CV ML 필요, 좋, 합격, 모기, 이탈리아 인증차별...?/코스는 괜찮아
- Row 3: Belgium, UCLouvain, 1,750.00, 2020-03-01, 지원완료, 80, statistics/statistics & data science가 이름 바뀜, 중하, 합격, 모기, 전글이 통제학으로 적혀나온다는 단점/영 품: 포르투갈 좋은데 ๆ 유학으로는
- Row 4: Portugal, Nova IMS, 3,000.00, 2020-03-14, 지원완료, 411, 나라장 날씨가 좋아, 중, 합격, 모기, Reference 대문에 보기
- Row 5: Switzerland, ETH Zurich, 1,141.00, 2020-03-31, 지원완료, 6, 지원요건이 세상세상 까다로워..., 최상, 최상, Reference 대문에 보기
- Row 6: Switzerland,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596.00, 2020-04-15, 지원완료, 60, 최상, 최상, Reference 대문에 보기
- Row 7: Switzerland, University of Zurich, 849.00, 2020-04-30, 지원완료, 76, 최상, 합격, PICK!!!, 생활비 미친 그래도 학교 좋
- Row 8: Netherlands, Eindhoven University, 16,000.00, Feb for scholar / mid Apr, 지원완료, 102, pre-master/Tilburg랑 둘중 하나만 지원하면 됨, 상, 합격, 모기, entrepreneurship이 딱히 마음에 안들, pre-tilburg
- Row 9: Norway, University of Oslo, -, 2019-12-01, 지원완료, 129, 최상, -
- Row 10: Norway, NMBU, -, 2019-12-01, 지원완료, 795, 학비없으니까 지원..., 상, -
- Row 11: Norway, UiT, -, 2019-12-01, 지원완료, 189, Master of Science in Statistics, 중, 합격, 모기, Not qualified: 4x8 applicants, 10 se
- Row 12: Norway, OsloMet, -, 2019-12-01, 지원완료, 337, 학비없으니까 지원, 중하, -
- Row 13: Swede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13,350.00, Mid-October-Mid-January, 125, ML, RL장학금받으려면 필요!, 상, -
- Row 14: Finland, University of Helsinki, 15,000.00, 2020-11-01, 107, RL 필요, 상, -
- Row 15: Finland, Aalto University, 15,000.00, 2020-11-01, 134, 상, -
- Row 16: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18,300.00, 2020-04-01, 지원완료, 118, pre-master/Data Science/Statistical Science (MSc), 상, 100, 합격, 모기, statistics에 지중원/통계학 개비방/Tilburg
- Row 17: Sweden, Uppsala University, 13,118.00, from 16 October to 15 January, 106, Machine Learning and Statistics in Data Science, 상, -
- Row 18: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14,800.00, 2020-04-01, 지원완료, 371, pre-master/Data Science and Entrepreneurship (joint), 상, 합격, 모기, entrepreneurship이 딱히 마음에 안들/pre-m
- Row 19: Netherlands, University of Amsterdam, 16,875.00, 2020-04-01, 지원완료, 64, reference 있음, 상, -
- Row 20: Germany, University of Tübingen, 3,000.00, 2020-04-30, 지원완료, 169, Data Science in Busi and Econ/Python을 좋아함, 상, -
- Row 21: Netherlands, Radboud University, 12,645.00, 2020-04-01, 지원완료, 217, studienlink, 중, -
- Row 22: Germany, Mannheim University, 3,000.00, 2020-05-31, 지원완료, 324, 좋, -
- Row 23: Germany,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 2020-06-30, 55, essay, mathematics in data science뿐임, 상, -

등록금, 등록기한, 중요서류 등 크리티컬한 정보를 적고 참고적으로 랭킹과 나의 선호도를 넣었다.
대학리스트를 만든 것은 아주 잘 한일이었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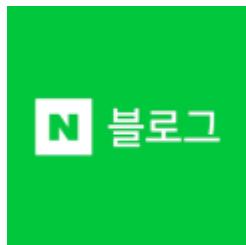
총 14개 학교를 아주 국가도 다양하게 지원했고
3월까지는 하나하나 힘들게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손에 익어서 4월부터는
Motivation letter도 겁나 몇분만에 휘리릭썼다.
지원서류에 대해서도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저거 다 지원하느라고 지원료도 한 50만원 썼네.

이 중 13개가 발표났고, 8개 합격 5개 불합격했다.
노르웨이 학교는 4개나 썼는데 3개가 광탈...
반면 네덜란드 학교는 4개 썼는데 3개 합격했다.

네덜란드가 좀 합격이 쉬운 것 같은데
학비가 좀 명성 대비 심하다. 노르웨이는 학비 없음.

근데 가장 어쨌든 유학이라는 결정 자체의
크리티컬한 요소는 뭐니뭐니해도
나의 마음가짐.... 멘탈이었다.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나의 결정과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멘탈덕에 준비가 맨날 꼬였는데
이렇게 정리해두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참고해주시길 바래서이다.

- 추가적인 질문은 유학상담소를 통해서 해주세요! -



[2021/22] 유학상담소는 계속해서 진행 중

하이하이요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알림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

blog.naver.com

다음 포스팅 예고 :::: 전공선택 & 국가선택

직장인 유학가기

유학준비 힘들어

2020/07/04 00:00

<http://blog.naver.com/imyourbest/222020479134>

We are pleased to offer you admission

나는 대기업 7년차 직장인이다.

2013년 25살에 취업을 해서 쭉 한 회사를 다녔는데

2020년 현재 32살이 되어 어느덧 7년차가 되었다.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한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학 왜 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딱히.. 머리 쥐어짜내서 만들어낸 이유 뿐인 것 같다.

(예전부터 유학이 가고 싶었습니다 등등)

솔직하게 그것보다는 내 현재 상황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한번 시도해보기

괜찮을것 같아서 가본다 정도가 더 맞겠다.

구구절절하게 말하자면...

일단은 대학졸업전에 취업flex해버려서

그때 당시에는 추가적인 공부 자체를 생각을 안했고,

회사다니면서 돈 버는 재미도 나름 있었으니까.
회사다니면서 뭔가 딱히 힘든건 없었다.
남의 말에 관심없는 타입이라 귀닫고 살아서 그런지...

그리고 난 뭐 하나 티끌만한 것 결정하는데도 느려터져서

유학가봐야지 생각은 2017년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가는 것 뿐이다.

유학이 정말 가고 싶었어! 보다는
인생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느낌으로
선택했다. 내 상황에 불만족한 내 자신의
도피성 유학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난 이게 마음에 듈다
직장인의 도피성 유학!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경험을 중시하는 것 뿐이고.
내 선택지를 늘리는 것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니까.
내가 현재 유학에 관심이 가니까.

가서 재밌게 하기만 하면 된다 ㅋㅋㅋㅋ
재밌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힘든게 많은건 함정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도
그냥 합격한 대학들 중에 제일 맘에 들어서

